

청춘이란 이름의 춘천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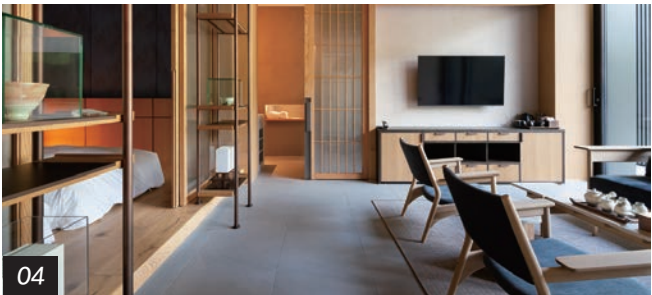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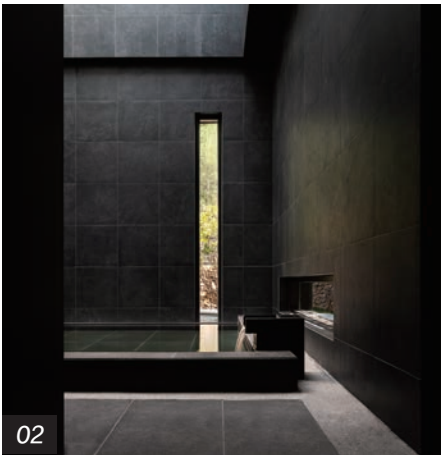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44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은,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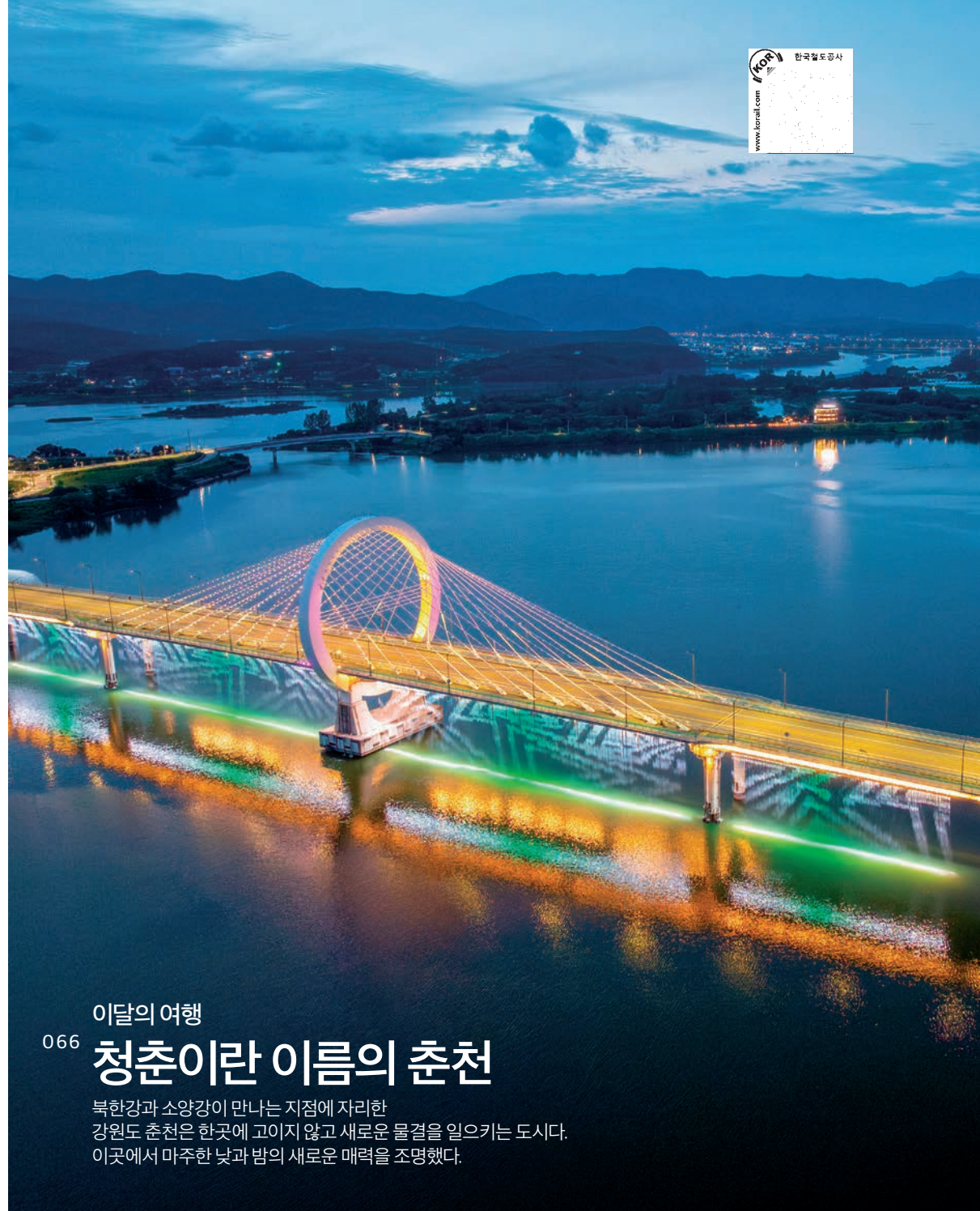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이달의 여행
066 **청춘이란 이름의 춘천**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강원도 춘천은 한곳에 고이지 않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도시다. 이곳에서 마주한 낮과 밤의 새로운 매력을 조명했다.



표지 이야기

춘천대교 아래 북한강

일교차가 커지는 계절, 춘천에 아침이 오면 춘천대교 주변은 차분하고 아련한 분위기로 변모한다. 다리 아래로 잔잔히 흐르는 북한강은 오묘한 색의 물안개를 피워 올리며 익숙한 도시를 낯선 세계로 바꿔 놓는다. 초가을 이른 아침의 호수. 주홍빛 투명한 결을 더하며 물로 그린 수채화 한 폭이 걸렸다.



AHILO

홈페이지 www.ahilo.co.kr | 대표 전화 02 2256 7901 | 개설킴문의 02 2254 4903
아일로의 2025 FW collection을 전국 아일로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세요

- 018 듣는 여행
대나무와 함께 춤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의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를 담았다.
- 020 촬영지 여행
길 위에서 찾은 소망
드라마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의 마지막 여행지로 경남 진주 성전암이 등장했다.
- 022 여행자의 방
비우고, 채우고, 머무르는 집 탄 한옥비치리조트
충남 태안 의항 해변엔 서해 바다와 하늘을 꼭 닮은 한옥 호텔이 있다.
- 030 한국의 멋
빗살 품은 청자
전통 청자에 빗살무늬를 결합한 김판기 명장의 작품을 소개한다.
- 032 한국의 맛
황금빛 결실
벼 이삭이 알차게 여물고, 비로소 올해의 첫 수확을 마주한다.
- 034 전국 행사 달력
10월의 축제·공연·전시 소식
추석 연휴를 더욱 알차게 누릴 매력적인 행사를 골랐다.
- 086 여행의 발견
가을 한복판, 함평
향기로운 국화 내음 따라 가을빛이 흥건한 전남 함평으로 길을 나섰다.
- 102 시절, 풍경
해거름 10월의 바다
전남 신안 증도와 만재도에 안전한 노을빛이 스며든다.

made in

MUNGYEONG

no.10

BOOK in BOOK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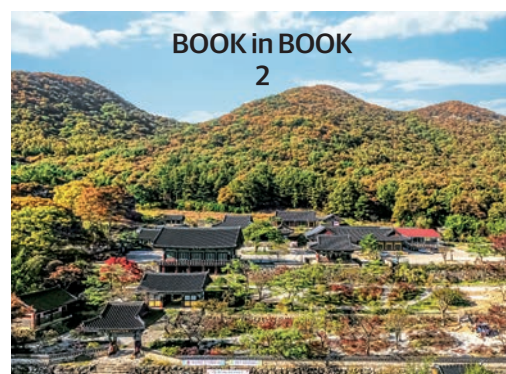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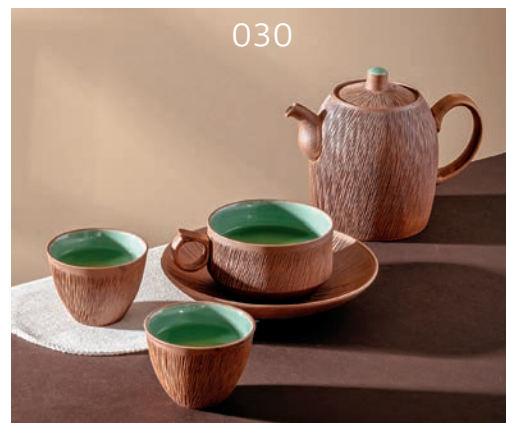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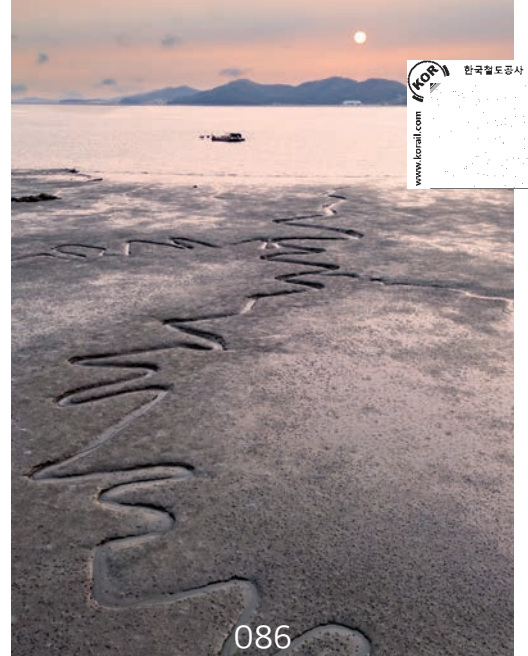
made in MUNGYEONG
문경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사람들과 그들의 공간을 찾았다.

전북 걷기 여행

가을바람 따라
전북 걷기 여행

올가을 전북에서 테마별로 걷기 좋은
네 가지 길을 추천한다.



TLX

Human Based
HANDY CARRY
SERVICE

7/24 Anywhere Worldwide

Same day
Fast
On Time
Safe
Secure & Reliable

TLX Express

V.P / KL Kim(김계림) 010 9593 5880
TEL)82-(0)2-334-3800
E-mail : handycarry@tlxintl.com
www.tlxintl.com

TLX International Inc.

108 인터뷰

인생 철학은 포크, 삶의 태도는 바느질

'죽음의 바느질 클럽'의 복태와 한군에게 수선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운다.

116 전시 보러 갑니다

백 년 동안의 고독

루이즈 부르주아의 개인전 <루이즈 부르주아: 덧없고 영원한>을 조명한다.

124 함께 여행

기억의 창고, 배다리를 거닐다

원도심의 사라지는 풍경을 기록하는 짝은비 작가를 따라
동인천 배다리를 탐험했다.

138 KTX타기 1시간 전

구레에서 유유자적

온전한 휴식을 위해 찾은 전남 구레에서 여정을 마무리할 공간을 선별했다.

162 트렌드 읽기

남의 연애가 더 재밌다

MZ세대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이유를 짚었다.

164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10월의 소식

섬세한 연출과 예측 불가한 전개로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꼽았다.

176 플레이리스트

다린과 떠나는 음악 여행

대표곡 '가을'로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다린의 추천 음악을 모았다.

168 코레일 소식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72 열차 이용 안내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 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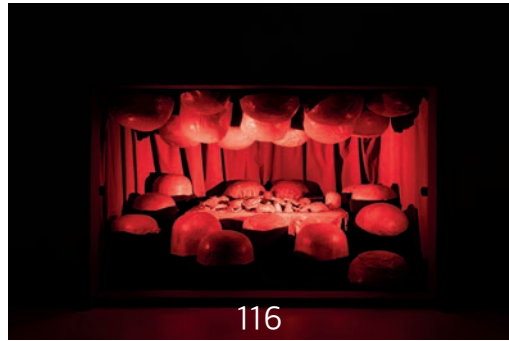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보이스아이 바코드



108



116



124



138

배려과 하루

A
Century
and
a Day
100 YEARS 문화역서울 284

옛 서울역 준공
100주년 기념전시
10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Culture
Station
Seoul 284

문화역서울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커넥트플레이스
CONNECT
PLACE

2025. 9. 30. — 11. 30.

주최 Hosted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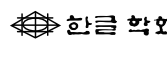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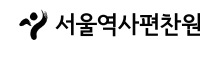
주관 Organized by



후원 Sponsored by



협력 Cooperation with



2025년 10월호

KTX

M A G A Z I N E

제22권 제10호 통권 제256호
2025년 10월 1일 발행

발행인 정정래(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박진명 이제희 이미혜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좋아요 291,285개

#춘천시 #막국수 #닭갈비 #소양강 #춘천맛집 #체험관광 #춘천휴양 #춘천힐링

시장, 그 뭉클한 그리움

여행을 할 때 꼭 한 번은 시장에 갑니다. 아무 정보 없이 갔는데, 운 좋게도 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입술 끝에서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올 만큼 신바람이 납니다. 어떤 설렘과 충만함. 시장에선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대책 없이 마음이 풀어지곤 합니다. 재미있는 건, 시장에 대한 기억은 늘 어떤 음식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된장에 켜 콩잎을 산처럼 수북이 쌓아 놓고 파는 울산 울주의 남창옹기종기시장, 콩치의 내장을 빼지 않고 그대로 말린 통과메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경북 포항의 죽도시장,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어묵을 쓰으읍쌈 소리를 내며 먹었던 충북 제천의 중앙시장...

추석을 맞아 지역 축제 기사가 유독 많은 10월호를 만들다 보니 시장에 더 가고 싶어졌습니다. 뭉클한 그리움이랄까. 차를 타고 늘 지나치기만 했던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에 직접 가 보기로 한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연중 봄비는 곳이지만, 명절 밑 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건다 보니 어느새 경동시장이 나오고, 제기동 약령시장까지 발길이 뻗었습니다. 그런 틈에 시선을 낚아챈 건 전국 팔도의 특산품들. 금산 인삼과 안동 우엉, 공주 밤과 곡성 토란, 고창 토란대와 전주 봉동 생강, 그리고 제주 더덕까지. 지금 우리 땅에서 나는 '진짜 국산'을 마주하는 건 뜻밖의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산머루 한 소쿠리 5000원, 쪽파씨 한 근 4000원, 갓이 어린 아이 주먹만 한 송이버섯 5개는 8만 원. 웬만해선 보기 힘든 귀한 농산물의 가격을 포착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40년 전통의 찹쌀 도넛과 압축기로 금방 뽑아 낸 막국수를 먹고, 숯돌에 갈을 가는 노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하며, 끝내 충청도 '할배'의 능청스러운 입담에 흘러 새조갯살 한 바구니를 사고야 마는 시장 탐험. 왠지 분위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닐다 보니, 마음은 이미 추석 한가운데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달 <KTX매거진>은 한가위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스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강원도 춘천에선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공지천 유원지부터 해가 지면 의암호를 황홀한 빛으로 물들이는 춘천대교까지, 춘천의 낮과 밤을 세심한 시선으로 조명했습니다. 10월 말 국화 축제가 열리는 전남 함평에선 추상회화 같은 연흔을 그리는 함평만 갯벌과 고아한 자태의 주포한옥마을, 소나무와 팽나무가 에워싼 정원카페를 찾아가 가을의 정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뮤지션이자 '죽음의 바느질 클럽' 운영자인 복태와 한군 부부를 만나 실을 꿰어 옷을 짓듯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인천의 원도심 풍경을 기록하는 짝은비 작가를 따라 동인천 배다리의 옛 흔적을 간직한 '도시화석'을 발견했습니다. KTX 구례구역을 방문해 비둘기호를 콘셉트로 한 제과점과 야생 차를 내는 찻집, 인테리어 소품 가게로 변모한 우체국도 둘러봤습니다.

지금 경기도 용인의 호암미술관에서 열리는 <루이즈 부르주아: 덧없고 영원한>전도 빼놓을 수 없네요. 스스로를 '도망친 소녀'로 비유한 루이즈 부르주아의 삶과 예술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해부한 칼럼은 독자의 호기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결국 미술관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루하루 투명하게 색을 더하는 계절입니다. 풍성한 추석과 함께 근사한 10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장 최현주

함께하는 삶의 향기 제15회 동서커피클래식 DONGSUH COFFEE CLASSIC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2025.11.12(수) 오후 7시

연주 대구시립교향악단 | 지휘 백진현 | 협연 대니 구 / 바이올린 | 이해원 / 소프라노 | 최성훈 / 카운터 테너 | 존 노 / 테너

문의 coffeeclassic2025@naver.com | 02-3210-9661 (평일 10:00~17:00)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ll_love37



♡💬🔗

🔖

오랜만에 KTX를 타고 부산에서 천안아산역으로 갔다. 아이가 잠든 덕분에 <KTX매거진>을 한 페이지도 놓치지 않고 다 읽었는데, 국내에도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곳이 참 많았다.
#국내여행 #KTX매거진 #부산역 #천안아산역

@dakl_experiences



♡💬🔗

🔖

반차를 내고 집에 내려가는 길, 직장 생활 5년 차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다 눈앞에 보이는 책자를 꺼냈다. 법고를 치는 스님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반차 #직장인 #KTX매거진 #법고소리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필수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
서울의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청렴 교육을 받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안, 유튜브 영상을 보는 대신 매거진을 펼쳤다. 방금 전 강의에서 들었던 이원익 선생이 언급돼 무척 반가웠다. 어쩌면 <KTX매거진>이 청렴 교육의 마지막 파트가 아닐까.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10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10월 11일까지

이가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나태주 시인의 인터뷰를 완독한 뒤 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시는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언어라는 걸 깨달았다.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만해지다니, 이젠 일상 속 위로처럼 시를 가볍게 받아들여야겠다.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돌의 '데일리 반지갑'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썰비치 남해' 오픈기념 회원모집

SONOROUS	NOBLIAN BLACK
대한민국 20개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객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VIP 멤버십 '노블리안 블랙'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혜택 중 하나의 회원이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향'은 워터파크&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II. 추가할인

사용가능 입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입회금'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30%(A상품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계속되는 비전

썰비치 남해가 2025년 7월 그랜드 오픈했으며, 지난 9월경주도리뉴얼 오픈했습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멤버십은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 소노펠리체 C.C 비발디파크 EAST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시시오. 010-4140-6540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썰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남해 | 소노캄 고양 · 경주 · 거제 · 여수 · 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 · 천안 · 단양 · 청송 · 변산 · 제주

상담문의 02)2222.5917

Panasonic
Beauty

아름다움의 가치는
디테일부터,
파나소닉
뷰티의 차이



Panasonic

“원하는 피부를 위한 맞춤형 프리미엄 케어” 파나소닉 뷰티 Face Care 3종 출시



바이탈리프트 RF-EX(SR86)

업계 최대 4MHz 고출력 RF로 안티에이징 케어

기능	RF(고주파), 듀얼 다이내믹 EMS EX, LED, 이온(클렌징 / 흡수) 4가지 첨단 테크놀로지 조합 [멀티 액티브에이트 테크놀로지 EX]
모드	5가지 모드(RF×EMS 리프트, RF 펌프, 아이 케어, 모이스트, 클린)
효과	리프팅, 탄력, 보습, 모공·피부결 개선, 노폐물 딥 클렌징, 톤업 등 13가지 토털 케어
크기/무게	약 181×41×42mm, 약 190g
방수	IPX5 등급, 세척 가능

바이탈리프트 KASSA(SP86)

EMS와 광사의 시너지,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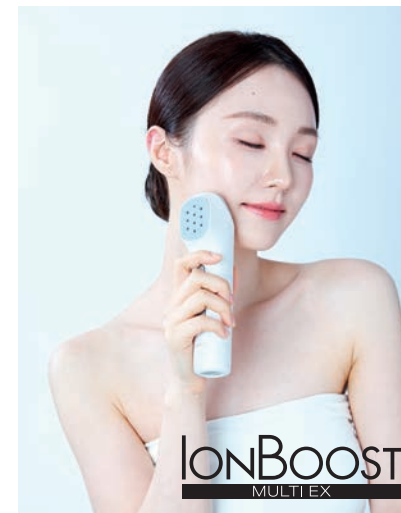
모드	W EMS LIFT / QUICK / WARM TREATMENT(총 3가지 모드)
EMS 레벨	6단계 강도 조절
온열 기능	저온 약 40°C, 고온 약 43°C(2단계 조절)
사용 시간	모드별 자동 종료(약 4~8분)
사용 부위	얼굴, 목, 팔뚝, 종아리 등 전신
크기/무게	약 8.9×12.3×4.2cm, 약 160g
방수	IPX7 등급, 세척 가능
충전	USB Type-C 타입



이온 부스트 멀티 EX(SS85)

클렌징·보습·미백·리프팅·진정 관리까지, 올인원 케어

기능	미세 전류(이온), EMS(3단계), 온열(3단계), 쿨링, LED
모드	클린, 부스트, 모이스트, 브라이트 업, 쿨 5가지 모드
효과	파워 부스트, 히알루론산 침투력 12배, 콜라겐 6.3배 강화 얼굴 근육 리프팅, 탄력·보습·미백·진정 관리
방수	IPX5 등급, 세척 가능
충전	USB Type-C 타입



VITALIFT
RF EX
EH-SR86



VITALIFT
KASSA
EH-SP86



IonBOOST
MULTI EX
EH-SS85

철도의날 131주년 기념

<KTX매거진>이 131명에게 쏜다!

<KTX매거진>이 철도의 날 131주년 기념 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과 한옥 독채 호텔 1박 숙박권을 드립니다.



태안 한옥 독채 호텔 '탄 한옥비치리조트'



참여 방법

- ① <KTX매거진> 인스타그램(@ktxmazine) 접속
- ② 프로필 링크 중 이벤트 링크 클릭
- ③ 설문 조사 참여하기

선물

- ① 당첨자 131명에게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 제공
- ② 당첨자 131명 중 1명에게 **충남 태안의 한옥 독채 호텔 '탄 한옥비치리조트' 윤슬(투베드룸 럭셔리 스위트 오션뷰) 객실 1박 숙박권** 제공

참여 기간

2025년 10월 1일~20일(20일간)

당첨자 발표

2025년 10월 28일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지금 바로
행운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최대 30만 원 페이백 + 2천만 원 당첨 기회



1

중소·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에서 소비액 인정

2

작년 소비액 대비 증가분의 20% 페이백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올해 9/10/11월 소비 증가분의 20% 환급, 월별 최대 10만 원
(3개월간 30만 원 한도)

3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환급금을 받기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 필요

4

상생페이백 신청 시 소비복권 자동 응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카드 결제 시 누적 결제 5만 원 당 복권 1장 지급, 최대 10장
(1일 10명 각 2천만 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소 비 로
함께하는
진짜 행복

상생
페이백

대나무와 함께 춤을

바람의 지휘에 따라 나무와 나무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를 반복한다.
그 앞에서 시간의 흐름을 소리로 감각한다.





길 위에서 찾은 소망

여름은 의뢰인을 대신해 전국 각지로 여행을 떠난다. 가을 문턱에 도착한 깊은 산속 암자에서 성공의 의미를 되새긴다.

드라마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의 주인공이자 아이돌 출신 리포터 여름은 그룹 해체 후 유일하게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하루 여행'에 최선을 다한다. 자신이 망가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적극적으로 여행지를 소개하지만, 협찬사 이름은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코너가 폐지돼 일자리를 잃는다. 그러던 중 여행을 대신해 달라는 편지가 도착하고, 여름은 스태프 없이 처음으로 홀로 여행을 떠난다. 그렇게 충남 부여, 경북 포항, 일본 하코다테 등 의뢰인이 요청한 지역을 누비며 곳곳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다. 마지막 여행지는 경남 진주. '하루 여행' 코너를 지원했던 협찬사의 성이화 회장은 오봉산 자락에 위치한 성전암에 가 달라고 요청한다. 여름은 가파른 산을 올라 다다른 암자에서 성 회장을 아는 승려를 만나고, 성공을 이룬 기업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눈치챈다. 그제야 자신 또한 지금껏 목적지는 알지 못한 채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음을 깨닫는다. 서울로 돌아온 여름은 회사 동료 연석이 모은 비하인드 영상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자신을 보고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다. "길 위에서 저렇게 한결같이 행복한 사람, 그게 여행자지." 대리 여행은 가능해도, 자신만의 속도로 걸으며 진짜 나를 마주하는 여정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다.



생계형 여행 리포터 여름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일한 프로그램 코너가 폐지돼 좌절하지만, 뜻밖의 의뢰로 시작된 대리 여행 덕에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배우 공승연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전국을 탐방한다.



© 채널A

기장군 가을을 즐기는 방법! 가을축제

제11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 축제

※ 10. 17.(금) ~ 19.(일) ※ 정관을 좌광천 일원

제19회
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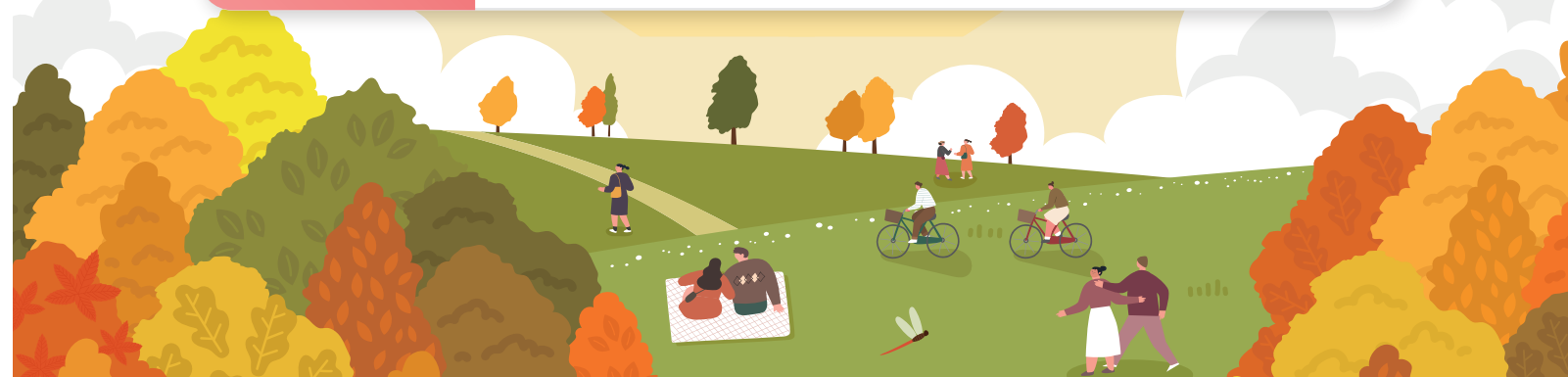
붕장어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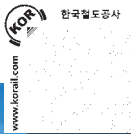
※ 10. 24.(금) ~ 26.(일) ※ 일광읍 칠암항 일원

제15회
철마

한우불고기 축제

※ 10. 29.(수) ~ 02.(일) ※ 철마도시농업공원 일원





비우고, 채우고, 머무르는 집 탄 한옥비치리조트

충남 태안, 의항 해변을
마주한 언덕에 하늘, 바다,
윤슬을 닮은 한옥 호텔이 있다.
비우고, 채우고, 머무르는 집.
호텔라이브가 만든
탄 한옥비치리조트다.



탄 한옥비치리조트(이하 탄)는 의항 해변을 마주한 언덕에 자리한 한옥 호텔. '탄'은 충청도 방언으로 태안을 뜻한다. 로컬 커뮤니티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 호텔라이브가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의 시화연풍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호텔이다. 객실 수는 총 22채. 모두 프라이빗 마당을 갖춘 한옥 독채로 윤슬, 바다, 풀꽃, 하늘, 큰구름, 작은구름, 머뭇, 땡땡 등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윤슬'은 의항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전통 한옥으로 넓은 마당과 대청마루, 현대식 다이닝 룸을 갖춰 최대 6명까지 묵으며 한옥의 멋과 낭만을 오롯이 누릴 수 있다. '하늘'은 모던한 분위기의 현대식 한옥. LP 플레이어와 클럽쉬 스피커가 비치된 와인 바 스테이션이 있어 프라이빗 파티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큰구름'은 현대식 한옥의 모던한 분위기와 편리함을 모두 갖췄고 '작은구름'은 스튜디오형 객실로 한옥의 멋스러움에 편안함을 더했다. 펫 프렌들리 호텔을 지향하는 탄은 반려견과 머무는 객실 '머뭇'과 '땡땡'도 마련했다. 탄의 전 객실에는 불멍 세트가 제공돼 평화롭고 따스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싱잉볼과 요가 매트 무료 대여해 객실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도 좋다. 객실마다 태안 특산품인 감태로 만든 강정과 고소한 곡물 침이 든 웰컴 박스가 놓여 있고, 간단한 조식으로 태안 현지에서 생산하는 로컬 요구르트와 그래놀라를 제공한다. 리조트 한편에 자리한 라운지 '느긋'에서는 분위기를 전환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차나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려도 좋다.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라운지에서 요가 클래스가 열린다. 방 안 깊숙이 스며든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불계 번지는 노을을 보며 사색에 잠기는 여유로움. 한 번쯤 한옥에 살고 싶었다면, 태안의 탄 한옥비치리조트만큼 완벽한 선택지는 없다. 주소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695-9



2025.
11. 28.^금
|
2026.
1. 31.^토

화·수·목·토·일 15:00
금 19:30
국립극장 하늘

주최
국립극장

예매·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NOL티켓
1544-1555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5-2026

국립극장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원안
김지일
연출
손진책
작곡
박범훈
안무
국수호
연희감독
김성녀

해양관광도시 1번지 포항

즐거움과 특별함으로 가득한 팡팡!

각종 촬영지와 힐링 명소로 사랑받는
친환경 녹색도시 '해양관광 1번지' 포항

천혜의 자연 경관 푸른 바다를 품은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포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朝鮮日報 선정 2025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주최 | 조선일보 후원 |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풍성한 한가위, 마음도 건강도 채우는 줄기세포가 전하는 선물

관절염과 당뇨, 피부 노화, 탈모까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줄기세포 및 안티에이징 전문가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에게 도움말을 들어 본다.

“요즘 젊은 연예인들도 줄기세포를 그렇게 찾는다며?”

오랜만에 가족과 만난 추석 연휴. 푸짐하게 차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다. 이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 요즘 건강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됐다. 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도 젊음과 건강에 중점을 두는 시대다.

이렇다 보니 명절 때마다 현재 유행하는 건강관리 정보를 공유한다. 그중 최근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줄기세포다. 40대의 할리우드 셀럽 김 카다시안이 근래 한국을 찾아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2AM 임슬옹도 줄기세포 주사를 맞은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줄기세포는 과거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요즘에는 뛰어난 재생 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대의 고민을 개선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줄기세포 및 안티에이징 전문가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봤다.

줄기세포, 장년층만? 세대 아우르는 재생 치료

줄기세포는 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조직 세포로 변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녀 '재생 의학의 꽃'으로 불린다. 세포 본연의 재생 능력을 활용해 기존 치료로는 회복이 어려운 조직이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줄기세포는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같은 부모 세대의 고질적 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중장년층의 만성질환, 피부 노화·탈모·난임 등 젊은 세대의 고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인슐린 기능 회복, 손상된 심근 재생, 난소 기능 개선, 모낭 세포 활성화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K-줄기세포 성장 중, 젊은 층도 '이럴 때' 고려

국내에서는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한 시술이 여러 분야에서 치료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성체 줄기세포를 특정 부위에 선택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은 기능 회복과 외형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최근에는 만성피로나 면역력 저하를 겪는 이들도 줄기세포를 찾는다. 링거를 활용해 정맥에 주입함으로써 전신 회복을 돕는 치료다. 이는 젊은 층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체내에 주입된 줄기세포는 약해진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신생 혈관이 생성되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자연스럽게 기초 체력을 증진시킨다. 이렇다 보니 부모님 추석 선물로도 좋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선물로도 손색이 없다.

조찬호 대표원장은 “난치병 치료부터 항노화 시술까지 활용 가능성이 넓어 인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정 연령대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리쥬란’의 힘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 (주)파마리서치

국내 최대 연어 산란지인 강원도 강릉의 남대천. 이곳에서 탄생한 기술이 전 세계 에스테틱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인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혁신을 거듭하는 기업, 파마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다.

뛰어난 기술력과 지속적인 노력

K-뷰티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스킨 부스터 ‘리쥬란’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김 카다시안, 제니퍼 애니스턴 등 글로벌 스타들의 추천으로 리쥬란 시술을 받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는가 하면, 최근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대표 스킨부스터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글로벌 미용 시장을 휩쓸고 있는 리쥬란은 재생 바이오 전문 제약 기업 (주)파마리서치의 대표 제품이다. 의약품과 의료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파마리서치는 1993년 창립 이래 의약품 인허가 컨설팅 및 혁신 의약품 수입 판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2009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해양 자원을 활용한 조직 재생 활성 물질인 PDRN 의약품 제조 기술을 완성했다. 이후 2013년 GMP 제약 공장 인증, 2015년 7월 코스닥 상장, 2016년 혁신형 제약 기업 선정을 통해 종합 제약 기업으로서 발판을 다졌다. 더불어 2020~2022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2022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2024년 5000만 달러 수출의탑 수상 등 탄탄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 1 리쥬란의 특허 기술을 적용한 DOT™ c-PDRN 성분의 화장품.
- 2 파마리서치의 제2판교 R&D센터에서는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기능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 3 연어 DNA에서 추출한 PN 성분의 스킨 부스터 리쥬란.
- 4, 5 해외 심포지엄에 참가해 리쥬란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있다.

국에서 약 500명의 의료진과 에스테틱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파마리서치만의 DOT®(DNA Optimizing Technology) 특허 기술을 적용한 리쥬란을 중심으로 주요 에스테틱 제품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이 외에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PDRN, PN의 원재료인 동해안 회귀 국산 연어를 체험할 수 있는 동해생명자원센터를 비롯, 파마리서치와 파마리서치바이오 강릉 공장에서는 원재료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공개한다.

꾸준히 발전하는 제품

파마리서치를 글로벌 기업으로 이끈 리쥬란은 2014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피부 콜라겐 재생 촉진 효과로 꾸준히 인지도를 쌓아 오고 있다. 성장 인자 복합체인 PN을 이용해 피부의 세포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데, 인체 적합도가 매우 높은 성분을 활용해 안전성까지 보장한다. 리쥬란은 ‘스킨 부스터’의 원조라 불리며 외국인 의료 관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현재 안면부 주름 개선 의료 기기 리쥬란을 필드로, 히알루론산 필러 ‘리쥬비엘’, 관절강 주사 ‘콘쥬란’ 등을 판매한다. 또한 리쥬란 코스메틱은 c-PDRN을 더해 안티에이징 효과를 주는 힐러, 피부 진정에 특화된 PDRx를 함유한 더마 힐러, DOT™ c-PDRN 기술로 모공 개선에 효과적인 더마 힐러 포어, 바이옴 힐러 콤플렉스로 햇빛에 의한 광노화를 케어해 주는 바이옴 힐러 등의 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각 라인은 앰플, 마스크, 크림 등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해 피부 고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인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혁신을 거듭하는 파마리서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파마리서치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DOT® PDRN/PN 기반의 의약품, 에스테틱 의료 기기 및 더마코스메틱 보강을 통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DOT® PDRN은 파마리서치의 DNA 최적화 특허 기술로 추출한 연어 DNA 조각으로, 조직 재생과 염증 감소 효과가 탁월하다. 보툴리눔 독신 제제 라인업 등 토털 에스테틱 솔루션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항노화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향토 기업

파마리서치의 핵심 기술은 강원도 강릉의 남대천에서 탄생했다. 매년 연어 수만 마리가 산란을 하기 위해 남대천으로 회귀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 오랜 연구 끝에 고순도 연어 DNA 추출에 성공했으며, 2013년 강릉과 학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 기기과 의약품, 화장품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산란 후 생을 다한 연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지역에 뿌리를 둔 향토 기업의 성공 신화가 이렇게 시작됐다. 파마리서치는 혁신적인 연구 개발과 사회적 기업의 가치로 인류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미션 아래 향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수출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 이 밖에도 매년 연어 치어 방류 활동에 참여해 생물 자원 순환 가치를 실천한다. 방류된 연어 치어는 북태평양을 회유하며 성장한 뒤 수년 후 약 2만 킬로미터를 이동해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와 산란하기 때문에 연어 자원 보존 활동은 생태계 보호를 넘어 생물 자원을 순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파마리서치의 기술 철학과도 연결된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강릉에서 ‘파마리서치 글로벌 심포지엄(Pharmaresearch Global Symposium, PGS)’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이 행사에는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등의 25개



제약 지원 (주)파마리서치

물 한 방울의 소중함, 손길 하나의 따뜻함.
여러분의 마음이 강릉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강릉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빗살 품은 청자

표면을 빼곡히 채운 빗살무늬 찻잔 속으로 푸른빛이 은은하게 번진다. 안팎으로 거친 적갈색과 매끈한 비색의 낮은 대비가 묘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은 김판기 명장의 '빗살무늬 청자'다. 40여 년간 청자와 백자를 빚어 온 그는 전통 청자 기법에 인화문과 빗살문을 접목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와 고려 시대 청자의 만남이 이색적인 풍경을 이룬다.

25년 전 라식 수술 후 찾아온 노안과 백내장, LAL 수술로 젊은 눈 되찾다

힐링안과가 국내 단 네 곳만 보유한 LDD 장비로 수술 후 시력까지 정밀 조정하는 백내장 수술을 선보인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51세, 남성)는 최근 들어 급격히 눈이 불편해졌다. 낮에는 유난히 눈이 부시고 저녁이면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밤에 운전대를 잡으면 더 심각했다. 차선이 퍼져 보이고 신호등 불빛은 별처럼 번져 시야를 가렸다. 표지판은 분명히 보이는데 또렷하게 읽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차례 들었다.

A씨는 25년 전 라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야간 빛 번짐과 건조증이 약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낮에는 눈부심이 심하고 밤에는 운전이 두려울 정도로 불편이 커졌다.

결국 A씨는 안과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나이에 따른 노안과 함께 혼탁해진 수정체(백내장)에 빛이 산란되어 시야가 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권유했지만, 고민이 깊었다. 이미 라식 수술로 각막을 절삭한 상태에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기존 백내장 수술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원하는 시력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안경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백내장 관련 정보를 살살이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LAL(Light Adjustable Lens™) 인공 수정체였다.

LAL은 미국 의료 기기 기업 알엑스사이트(RxSight)가 개발한 세계 유일의 광 조절 인공 수정체다. 수술 전 단 한번의 정밀 검사로 렌즈 도수를 결정하는 기존 수술과 다르게, 백내장 수술 후 환자에게 맞춰 전용 장비(LDD)를 이용해 특수 빛을 쏘아 렌즈의 구조를 바꿔 가며 시력을 커스터마이징한다. 한번의 수술로 끝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환자 개인별 생활 패턴에 맞춰 수술 후에 렌즈를 세밀하게 보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A씨는 국내 최초 LAL 인공 수정체 도입 병원 중 하나인 힐링안과를 찾아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 후 첫 2주는 비교적 평온했다. 이후 의료진과의 상담에서 “낮에는 괜찮지만 컴퓨터 화면이 흐릿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중간 거리 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첫 번째 조정을 시행했다. 두 번째 조정에서는 야간 불빛 번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 번째 조정까지 끝난 뒤 A씨는 “예전 라식 수술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만족스럽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검사 단계부터 최고 수준의 정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힐링안과는 국내 최초로 LAL 인공 수정체와 LDD 장비를 도입한 병원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전국에서 단 네 곳만 LDD를 보유하고 있다. 힐링안과는 백내장 수술만 2만 3000건 이상 집도한

김선영 대표원장을 비롯해 10년 이상 경력의 검안사들이 상주해 수술 전후 과정을 전담한다. 시력검사 오차 0.25디옵터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단계부터 최고 수준의 정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힐링안과는 '평생 책임 보증제'를 운영한다. 시력 조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다면 렌즈 교체까지 무상으로 재수술을 시행해 환자에게 안정감을 준다.

풍부한 임상 경험 갖춘 김선영 원장의 약속

김선영 힐링안과 원장은 국내외 학회 활동과 방송 출연을 통해 꾸준히 최신 안과 치료법을 알리고 있다. KBS, JTBC, YTN 등의 방송에서 최신 백내장 수술법과 노안 관리법을 소개하며 대중에게 신뢰를 쌓아 왔다. 또한 유튜브 채널 '안과언니'를 운영하며 5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소통한다. 채널에서는 백내장 수술 전 알아야 할 점, 노안 늦추는 생활 습관, 집에서 실천 가능한 눈 건강관리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노안과 백내장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LAL 인공 수정체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개인 맞춤형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더 이상 불편을 견디며 살 필요가 없게 됐다.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LAL 인공 수정체를 통해 깨끗한 시야와 또렷한 시력을 되찾고, 한층 높아진 삶의 질을 경험해보는 것이 어떨까.



황금빛 결실

가을 들녘이 황금빛 물결로 넘실댄다. 벼 이삭이 알차게 여우는 계절, 농부의 땀과 정성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한여름 불볕더위와 장마를 이겨 낸 인고의 시간. 단단한 껍질을 벗겨 내자 비로소 하얀 속살의 쌀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리적 표시제 제12호로 등재된 이천 쌀은 예부터 임금님께 진상할 만큼 윤기와 밥맛이 뛰어나기로 이름났다. 매년 10월 경기도 이천에서는 이천쌀문화축제가 열린다.



솔향 그윽한 대관령숲길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100년 된 금강소나무가
군락을 이룬 대관령소나무숲길을 오른다.
솔향 뽕뽕 머금은 공기를 들이마시니 몸과 마음이
절로 맑아진다.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대관령소나무숲길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한국 고유종 벌개미취는 50~60센티미터로 곧게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잎은 끝이 뾰족한 타원형으로 길이가 최대 19센티미터에 달한다. 6월부터 10월까지 줄기 끝에 한송이씩 연보라색 꽃이 피어 가을이면 도로변이 연한 자줏빛으로 물든다.

제작 지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국립수목원, 공해진

강원도 영동과 영서를 잇는 대관령에는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관령숲길이 있다. 103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길은 열두 개의 개별 숲길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대관령 소나무숲길이 이맘때 가장 즐기기에 좋은 트레킹 장소다. 어흘리 산림관광안내센터에서 출발해 삼포암, 금강송정, 풍옥대 등을 지나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걷는 내내 소나무 숲의 청량한 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숲길에 들어서면 먼저 청명한 물소리가 귓가를 간질인다. 소리의 주인공은 삼포암. 작은 폭포 세 개가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 내는 풍광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이어 솔숲교와 솔고개 입구, 노루목이를 지나면 이 길의 하이라이트인 풍옥대에 닿는다. 이곳에서는 하늘로 20미터 이상 곧게 뻗은 수만 그루의 금강소나무가 군락을 이룬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그 넓이가 무려 축구장 57개를 합친 규모라니 자연의 웅장함이 온몸으로 전해진다. 이어지는 전망대에 올라 강릉 시내를 한눈에 담으면 가슴이 시원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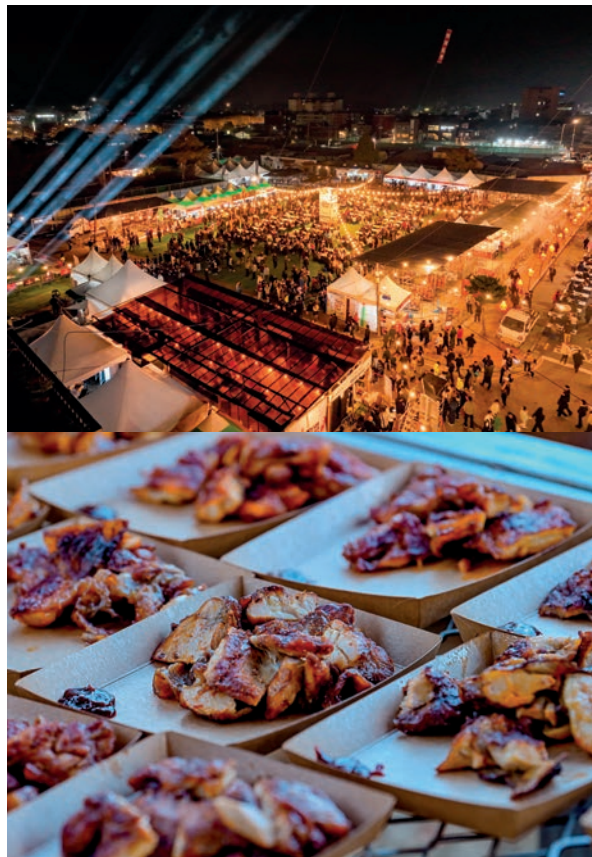
대관령소나무숲길을 걷기 전후로 어흘리 마을에 잠깐 들러 생강나무꽃차를 맛보는 것도 좋다. 마을 곳곳에 생강나무가 자생해 가을이면 어디서나 생강나무꽃차를 즐길 수 있다. 생강나무꽃차는 면역력 증진과 해독 효과가 있어 가벼운 감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일교차가 큰 가을에 특히 제격이다. 생강나무 향과 솔향이 어우러진 대관령소나무숲길에서 이 계절이 선사하는 상쾌한 기운을 만끽해 보자.



1수만 그루의 금강소나무가 군락을 이룬 모습이 장관이다. 2작은 폭포 세 개가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 내는 삼포암. 청량한 물소리가 탐방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강릉시의회
GANGNEUNG CITY COUNCIL



EXHIBITION



© 문화역서울284

〈백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

서울 09.30~11.30

1925년 경성역으로 개관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전환기를 함께한 상징적 건축물, 옛 서울역이 복합 문화 공간인 문화역서울284로 새롭게 단장한 이후 문화 예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식 준공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1945년에 발견한 <조선말 큰사전> 원고와 서울역이 등장하는 다양한 문학작품을 소개한다. 옛 서울역과 현 서울역을 연결하는 야외 공간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전시해 역사적 장소가 지나온 시간과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장소 서울 문화역서울284
문의 02-3407-3508



SHOW



© Julieta Cervantes



© Chang Chen Chou

〈202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 10.16~11.09

국내외 공연 예술계의 흐름을 파악할 화제작과 실험적인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키보드 100대가 만들어 내는 미세한 음향 차이를 탐구한 사운드 퍼포먼스 <100개의 키보드(100 Keyboards)>,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마거릿 령 탄의 삶과 예술을 담은 서정적인 공연 <드래곤 레이디는 울지 않는다(Dragon Ladies Don't Weep)>,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무용 공연 <1도씨(1 Degree Celsius)> 등 주요 작품 22편 외에도 워크숍과 협력 창작 랩 등 각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장소 서울 아코·대학로예술극장 외
문의 02-2098-2983



2025 Wonju Mandu Festival



10.24.(금)~10.26.(일)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



주최 원주시

주관 원주시

후원 h-well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



FESTIVAL

2025 김천김밥축제

김천 10.25~26

이틀간 김밥 세상이 펼쳐진다. 취향대로 김밥을 만들거나 지역색이 담긴 김밥을 시식하는 등 하나의 주제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밥'을 노래하는 자두의 축하 공연과 삼각김밥 머리의 원조인 노라조의 무대가 열기를 더한다. 김밥에 얹힌 추억을 새롭게 쓸 차례다.

장소 경북 김천 직지문화공원 일원
문의 053-965-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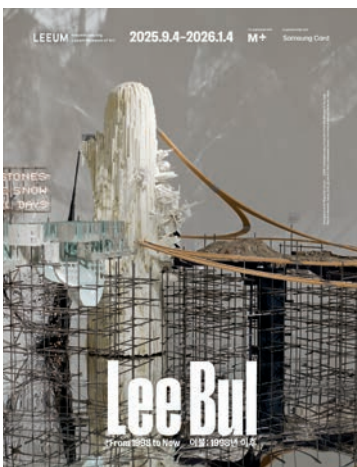
SHOW

<더 레시피>

안동 09.20~11.02

무대에 오른 한 선비가 성대한 잔치를 열고, 관객은 손님이 된다. 사물놀이와 전통 연희 등 흥겨운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간단한 음식과 술, 음료를 즐기는 이머시브 다이닝 공연이다. 전통 음식을 연구하는 수운잡방 연구원이 음식 자문으로 참여했다.

장소 경북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문의 02-6954-0772



EXHIBITION

<이불: 1998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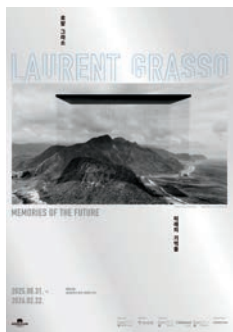
서울 09.04~2026.01.04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온 현대미술 작가 이불의 주요 작업을 조망한다. 관람객이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조각, 대형 설치, 평면, 드로잉 등 150여 점의 작품을 연대기 형식을 따르지 않고 배치했다. 전시장 입구에는 기술 진보에 대한 인류의 열망과 좌절을 상징하는 길이 17미터의 은빛 비행선 '취약할 의향-메탈라이즈드 별문'을 설치했다. 이 외에도 작가의 초기 대표작 '사이보그' '아나그램', 건축적 설치 연작 '몽그랑레시(Mon Grand Récit)'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장소 서울 리움미술관
문의 02-2014-6900



리움미술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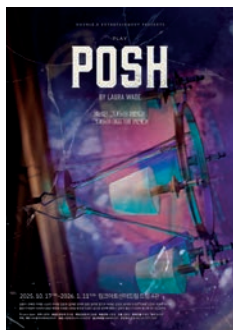
EXHIBITION

<로랑 그라소: 미래의 기억들>

대전 08.31~2026.02.22

프랑스 현대미술가 로랑 그라소가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를 예술 언어로 풀어 낸 작업물 20여 점을 공개한다. 영상, 회화, 조각 설치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작품 중 대표작 '오키드 섬(Orchid Island)'은 대만 란위섬에서 촬영한 영상에 그래픽 작업을 더해 기후 위기로 인한 긴장감을 시각화했다.

장소 대전 헤레디움
문의 0507-1422-2075



SHOW

<포쉬>

서울 10.17~2026.01.11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실제 비밀 사고 모임을 모티브로 해 상류층의 일탈을 거침없이 풍자하는 연극 <포쉬>가 돌아왔다. 성별에 관계없이 배역을 맡는 젠더프리 캐스팅을 시도해 화제가 됐으며, 배우 김수호가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작품이다.

장소 서울 링크아트센터드림
문의 1577-3363



www.busanaircruise.co.kr



하늘과 바다를 잇는 특별한 경험 송도해상케이블카

A Special Experience Connecting the Sky and the Sea
Songdo Cable Car



송도해상케이블카
홈페이지 바로가기



송도해상케이블카에서 즐기는 특별한 재미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노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 여행 필수코스



김천문화마을



해운대문화마을



국제시장

문의전화 051) 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천년 건강 풍기인삼축제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면, 막 캐낸 인삼 내음이 가득한 경북 영주로 떠나 보자.

본격적인 인삼 수확철인 10월, 소백산 아래 자리한 영주시에서는 18일부터 26일까지 풍기인삼축제가 열린다.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는 1998년부터 이어져 온 지역대표 축제. 인삼을 캐고 먹고 구매하는 체험을 포함해 댄스 축제, 가요제, 풍기군수 주세봉 행차 재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황금 인삼을 찾아라'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인삼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순금 한돈짜리 황금 인삼을 제공한다. 구매 고객들에게 고마움과 행운을 전달하며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인삼 깎기' '인삼 병주 만들기' 등 재미있는 체험도 준비돼 있다. 오감을 사로잡는 축제의 완성은 단연 먹거리. 축제장에 설치된 부스에서 인삼 막걸리, 인삼튀김, 인삼 빵 등 영양 만점 풍기인삼으로 만든 요리를 맛보거나, 지역 농가에서 키운 수삼과 홍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는 무대 행사도 풍성하다. 전통 국악 공연부터 K-팝 공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풍년 놀이 한마당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해가 저물면 남원천을 따라 인삼과 영주사과를 형상화한 유등이 밤하늘을 밝히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2025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기간 10월 18일~26일

장소 경북 영주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및 남원천 일원

문의 054-635-0020

제작 지원 영주시청

2025
경북영주

YEONGJU PUNGGI
GINSENG FESTIVAL

풍기
인삼
축제

2025.10.18 토

9일간 10.26 일

장소 |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및 남원천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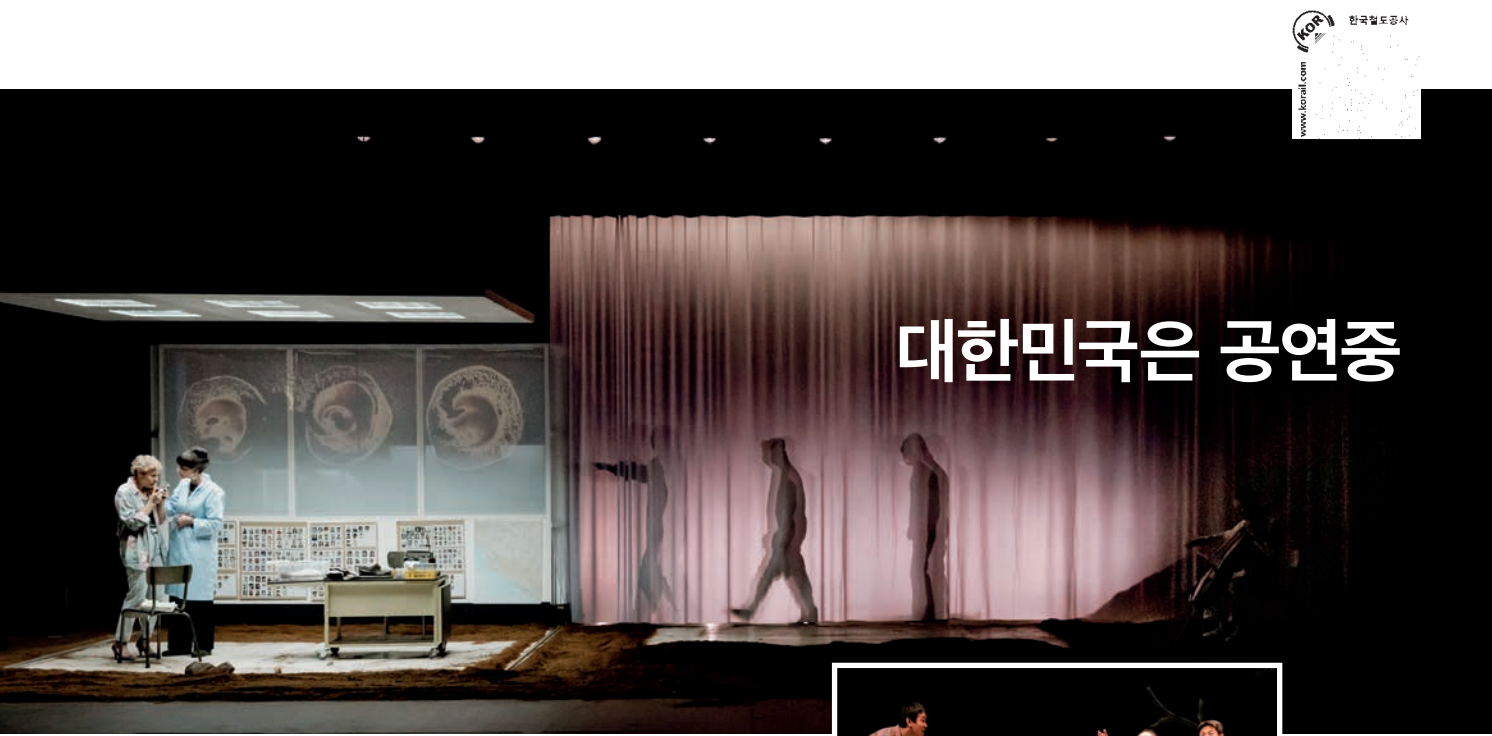
주최·주관 | 영주시,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054) 635-0020

www.pgginsengfestival.co.kr



대한민국은 지금, 공연중

가을이 다가오면 전국 곳곳이 무대로 변한다. 연극·뮤지컬·무용·국악·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 다가와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공연예술을 국민에게 더 가깝게 전하고, 한국 공연예술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대표 통합 홍보 행사다.

전국은 공연중

<대한민국은 공연중>의 주요 구성인 '전국은 공연중'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리는 200여 개의 공연이 관객을 기다린다. 각 지역의 창작 무대는 물론 해외 예술가와 예술 단체의 작품까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시도와 세계적 흐름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연극·뮤지컬·무용·국악·클래식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연들은 공연예술을 처음 접하는 시민부터 오랜 애호가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를 마련한다. 전국에서 같은 시기에 이어지는 무대는,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이 된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공연예술을 하나로 잇다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단순히 공연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연예술의 유통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인 서울아트마켓(PAMS), 국내외 공연예술의 흐름을 보여 주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그리고 지역 공연예술을 서울에서 소개하는 무대인 리:바운드(Re:Bound) 축제와 홍보를 연계하며 공연예술의 교류와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과 수도권, 국내와 해외가 긴밀히 연결되며, 한국 공연예술이 세계 무대와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모두의 일상 속으로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공연예술을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다. 가까운 공연장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순간은 일상에 여유와 기쁨을 더하고, 동시에 한국 공연예술의 미래와도 연결된다. 공연예술은 예술가와 예술 단체가 만들어 가는 무대를 통해 언제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연중입니다.

K STAGE FESTA

2025 대한민국은 공연중

2025 PAMS 서울아트마켓
2025.10.14-10.18

spaf 2025 spaf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25.10.16-11.9

Re: Re:Bound 리:바운드 축제
2025.10.16-11.16

10.14.TUE ————— 11.16.SUN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

기간 10월 24일~11월 2일
장소 전국 참여처 206개소



내일을 만나는 공공디자인

2022년에 처음 시작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이 올해로 4회를 맞는다.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 동안 지역 협력 도시인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국의 공공디자인 거점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은 한복문화주간이나 공예주간처럼 특정 기간에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주간형 행사다. 단일 전시관에 모이는 박람회 형태가 아니라, 전국 각지의 공공디자인 거점에서 전시, 포럼, 체험 프로그램을 분산해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디자인이 정부나 지자체만의 영역이 아닌, 일상을 가꾸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인 것 공무원과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전시·교육 프로그램도 폭넓게 운영한다. 또한 한 해 동안 공공디자인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크게 전문가 대상(토론회, 페차쿠차, 학술 행사)과 대중 참여(마켓, 전시, 교육, 체험)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직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낯선 시민이 많은 만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농부시장 마르쉐, 기적의도서관 같은 생활 밀착형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업도 진행한다.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은 해마다 지역 협력 도시를 정하는데, 올해는 광주광역시가 선정되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종사자 등 100여 명이 모여 공공디자인 토론회를 열고, 행사 기간 동안 광주폴리 '뷰 폴리'를 개방한다. 또한 10월 24일에는 광주폴리 '소통의 오두막'에서 야와 공연이 펼쳐지고, 26일에는 '숨쉬는 폴리'에서 어린이 ESG 교육인 자원 순환 폴리마켓을 연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서울 성수 코사이어티 D동에서 역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을 전시한다.



제작 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

Public Design Festival

2025.10.24.-11.2.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

Coexistence: Public Design for the Future

광주광역시 및 성수 코사이어티
전국 공공디자인 거점



publicdesign.kr/festival



25 2000-2025
일상의 문화를 바꾸는 우리의 미래
Our Future that changes the Culture of Everyday Life

공공디자인

주최 Hosted by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Organized by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협력 Partnered with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gidp 광주디자인진흥원

후원 Sponsored by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Confédération suisse
Confederazione Svizzera
Confederaziun svizra
Embassy of Switzer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마르쉐@

제주 삼다수

OverLab®

책은사회문화재단
Book Culture Foundation

design house

Korea Design Festival

동서양 블랙의 미학 〈BLACK & BLACK〉

프랑스의 시인이자 서예가 프랑수아 청이 말했듯, 블랙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생명과 빛을 머금은 여백의 공간이다. <BLACK & BLACK>전은 동서양이 검정이라는 공통 언어로 예술적 교감을 이루어 낸다.

동서양 블랙의 미학적 차이와 조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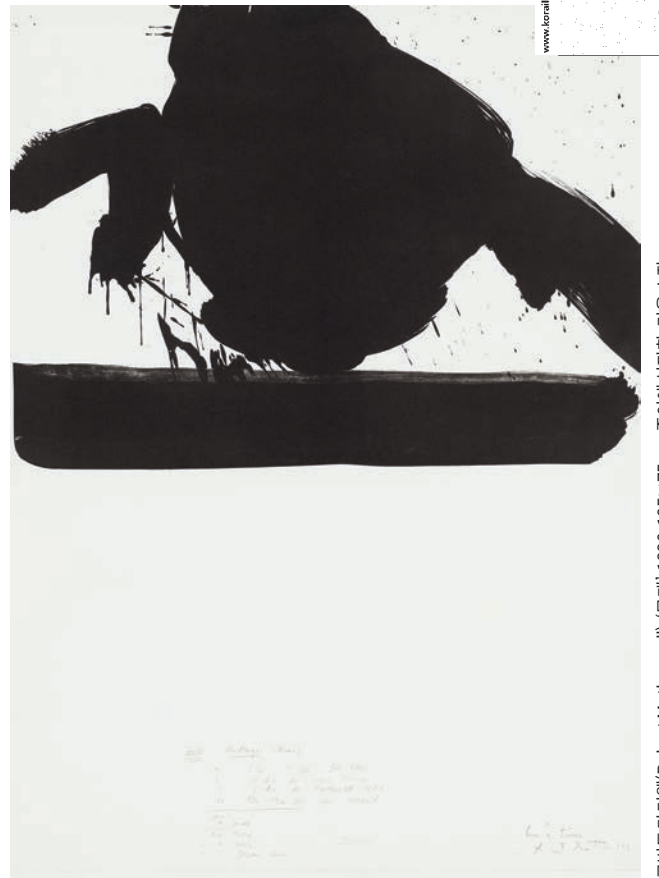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4주년을 기념하는 <BLACK & BLACK>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아시아 수묵 남종화와 1950년대 서구 블랙 회화를 현대미술의 시각에서 교차 조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동양 수묵에서 먹빛은 무수한 농담을 통해 기(氣)의 흐름과 생명력을 드러내고, 여백은 결핍이 아니라 형상이 호흡하는 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사상은 서구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의 제스처적 블랙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동양의 수묵화가 전통적으로 여백과 비움을 통해 미를 탐구하는 반면, 서구의 현대미술은 블랙의 물질성과 평면성을 활용해 새로운 추상적 언어를 개척했다. 같은 블랙을 사용하지만 문화적·철학적 배경의 차이 속에서 서로 다른 예술적 함의가 드러난다. 결국 블랙은 동서양 모두에서 부재가 아닌 생성의 원천이며, 비움과 충만, 빛과 어둠의 상보성, 생명과 우주의 질서를 담는 매개로 기능한다.

세계적 거장과 남도 화맥의 만남

전시는 조선 시대 공재 윤두서에서 시작해 남도 수묵의 전통을 잇는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을 거쳐 세계 현대미술사의 거장들과 연결된다. 특히 서구 블랙 회화의 중심에 있는 피에르 솔라주와 앵포르멜의 대가 한스 아르통, 그리고 추상표현주의의 장 드고텍스와 로버트 마더웰, 중국 출신의 자오우키 등을 소개한다. 동시에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끈 이우환, 이응노, 이강소의 작업을 비중 있게 전시한다. 이들은 동양의 서체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창적 조형 언어를 구축해 블랙을 통해 세계 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아울러 동양 서체의 영향을 받은 김호득, 황인기 외에 남도의 수묵 정신을 계승한 최종섭, 송필용, 박종갑, 정광희, 설박, 박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 '무제', 1990, 105×75cm, 종이에 석판화, 리움 소장

〈BLACK & BLACK〉전

기간 12월 14일까지

장소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자오우키(Zao Wou-Ki), '1966년 2월 26일', 1966,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프랑스 국립현대미술센터 소장, FNAC 28957, 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Collection

정선 등 한국 현대 수묵의 대표 작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전시는 이처럼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회화와 서예적 정신이 교차하는 장을 열며, 블랙의 다층적 의미를 한자리에서 경험하게 한다. <BLACK & BLACK>은 단순한 색채 전시가 아니라, 검정이라는 공통 언어가 어떻게 시대와 공간을 넘어 예술적 교감을 이루어 내는지를 증명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제작 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공재 윤두서

Yun Duseo

소치 허련

Heo Ryeon

한스 아르통

Hans Hartung

이응노

Lee Ungno

로버트 마더웰

Robert Motherwell

장 드고텍스

Jean Degottex

피에르 솔라주

Pierre Soulages

자오우키

Zao Wou-Ki

이우환

Lee Ufan

이강소

Lee Kangso

의재 허백련

Heo Baekryeon

남농 허건

Heo Geon

최종섭

Choi Jongsup

김호득

Kim Hodeuk

황인기

Hwang Inkie

송필용

Song Philyong

박종갑

Park Jonggab

정광희

Jeong Gwanghee

박정선

Park Jungsun

설박

Sul Park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기념

BLACK & BLACK

블랙&블랙

2025.
9.16. - 12.14.

주최

JEONNAM MUSEUM OF ART

전라남도

JeollaNamdo

협력

MUSEUM OF ART

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PERROTIN

foundation hartung bergman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LEEUNGNO MUSEUM

LEEUM

HEREDIUM

DTC 아트센터

南農記念館

국립중앙대학교박물관

MANA MOANA

Arts of the Great Ocean, OCEANIA



국립중앙박물관
순회전시

Masterpieces of
★ MUSÉE DU QUAI BRANLY
JACQUES CHIRAC



오세아니아

©musée du quai Branly-Jacques Chirac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국립중앙박물관 후원 전남도립미술관 협주 MBC

2025.10.02.THU
— 2026.1.4.SUN

made in

문경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MUNGYEONG

no.10



1

2025 문경사과축제

사과 향기를 따라 길을 나선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라는 기발한 주제로 기획한 문경사과축제가 지난해 방문객 41만 명을 끌어모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 한층 진화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주인공은 문경의 대표 품종 감홍사과다. 문경사과와 감홍 품종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 전시관을 마련하고 사과 빨리 먹기, 사과 빨리 쪼개기, 사과 길게 깎기 등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의 총체적 체험을 유도한다. 온 감각을 동원해 사과를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다.
기간 10월 18일~26일 장소 경북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문의 054-571-7677



2

3



자연이 선물한 달콤한

문경사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꽃 내음이 흐드러지고, 과육을 씹어 넘길 때마다 다디단 과즙이 흘러넘친다. 경북 문경 땅의 붉은 보석, 사과의 계절이 돌아왔다. 배수가 잘되는 석회암 토질, 일교차가 큰 기후, 맑은 물과 청정한 환경 덕에 문경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사과 산지로 자리매김했다. 홍로, 선홍, 부사, 화홍 등 맛도 이름도 고운 품종이 여럿이지만 평균 17브릭스의 당도를 자랑하는 감홍은 단연 문경의 자랑으로 꼽힌다. 1993년부터 보급된 감홍은 초창기 생육 과정이 까다롭고 껍질이 검붉다는 이유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외면받았다. 그러다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재배 매뉴얼 개발과 안정적 유통망 확보 등 문경시와 농가의 노력 끝에 그 독보적인 품미가 차츰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름처럼 감미롭고 깊은 맛과 향을 지닌 감홍은 어느덧 '없어서 못 파는' 명품이 되었고, 문경사과 농가의 주력 품종으로 거듭났다. 최근에는 양질의 과실과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팔을 걷어붙였다. 기후변화로 자연 수분율이 낮아지자 '꽃가루 은행'을 운영, 인공 수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첨단 농업과학과 천혜의 환경이 빚어 낸 결실이랄 할 만하다. 감홍 맛을 오롯이 즐기고 싶다면 문경사과축제만 한 행사도 없다. 감홍이 한껏 무르익는 시기에 열리는 축제로, 제철 사과의 싱싱한 향내를 맡으며 수확의 기쁨을 누릴 기회다. 올가을, 문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달콤하고 향긋한 초대장을 기꺼이 열어 볼 일이다.

☎ 054-572-0055(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054-552-6690(문경시유통사업단)

4





1



3

4



여
행
의
심
표
이
자
느
낌
표

고
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깊은 휴식으로 이끄는 안식처이자, 지역의 정서와 감각을 온전히 느끼게 하는 문화적 매개체. 좋은 숙소는 좋은 여행을 보장하는 결정적 조건이다. 탄광촌 역사를 간직한 문경 가든에는 옛 대장간 건물에 스테이 고결이 들어서 있다. 단정한 외벽과 여린 풀포기가 우거진 마당은 주택가 골목에 보호색처럼 녹아들었으나, 현관 안쪽 풍경은 상상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농묵으로 칠한 듯한 서까래와 기둥, 세필로 그린 것처럼 정교한 간살문의 실루엣, 검박한 선비의 취향이 어른거리는 도자기와 다구.... 오직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수묵화 같은 장면이 시선을 붙든다. 공간의 모든 조형 요소는 문경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손길로 완성되었다. 창호지와 조명에는 국가무형유산 김삼식 한지장의 문경한지를 쓰고, 거실과 객실 한편에는 유태근 화백의 서정적인 그림이 걸렸으며, 입구에 드리운 가리개 천과 라운지웨이는 천연 염색 공예가 진계숙의 작품이다. 이뿐인가. 가든요의 다구와 현암요의 욕실 어메니티 용기가 미적 감흥을 돋운다. 문경의 자연은 이곳에서의 경험을 보다 명상적으로 구현한다. 욕실 창 너머 아득한 산마루를 바라보며 입욕을 즐기거나, 싱그러운 향을 뿜어 내는 문경다원의 차를 음미하며 어지러운 머릿속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는 시간도 여정도 삶도 조금은 더디게 흘러간다.

📍 경북 문경시 가든 양산개5길 5 📞 gogyeol.kr



2

1 간살문이 아름다운 고결의 거실.

2, 3 공예의 고장인 문경 작가들의 작품을 곳곳에서 만난다.

4, 5 소박한 정원이 어른거리는 마루와 침실.



5



1



2

마음을
빛나는
시간

현암요

천년의 도자 역사를 품은 문경은 장작 가마의 전통을 계승하며 질박하고 아름다운 차 사발을 생산해 온 민예의 고장이다. 운달산과 주흘산 자락에 안긴 문경을 팔영리의 고요한 산촌, 이곳에 도예가 2대가 함께 작업하는 현암요가 있다. 문경에서 나고 자란 현암 오순택은 20여 년간 직접 터를 다지고 가마를 쌓아, 가업을 잇는 세 자녀와 함께 불을 지피며 흙을 만지는 놀이터를 완성했다. 지형과 지세에 순응해 꾸민 정원과 거처, 작업장, 전시장은 오롯이 그의 예술 철학을 닮았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으니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 있는 모든 것이 그저 즐거움의 흔적이예요.” 유약을 바르지 않고 불에 여러 차례 구워 낸 현암의 다구는 흙 본연의 색과 질감을 고스란히 품는데, 이 과정에서 재가 묻거나 흘러 내려 독특한 무늬와 빛깔을 만드는 현상인 요변(窯變)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출수부와 손잡이 형태, 뚜껑 크기와 각도, 거름망의 구멍 개수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 완벽에 가까운 사용감을 구현했다.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팽팽한 균형을 견지하는 기예의 경지다. 자연은 현암 다구의 영원한 모티브다. 나무 그루터기를 닮은 널찍한 다반, 한 떨기 능소화처럼 앙증맞은 찻잔, 입안 가득 꽃을 머금은 물고기 모양 다우.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앙상한 가시고기 형태의 차시·차침 받침대를 빚기도 했다. 차에 인생을 걸었다고 고백하는 이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은 우주를 들여다본다.

📍 경북 문경시 문경을 팔영안길 21-19 ☎ 054-572-2740

1 현암요 전시장에는 오순택 작가의 작품은 물론이고 2대 오하람·오진술·오수민 작가의 작품도 만나 볼 수 있다.
2 오순택 작가가 손수 쌓은 가마.
3 능소화를 닮은 찻잔이 사랑스럽다.
4 다구를 만드는 삶을 사랑하는 오순택 작가.

3



4



1

쌀도 '카이' 흥겨운 한잔

두술도가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익어 간다는 것,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 뚜껑을 열어 봐야만 맛을 안다는 것. 술독에 둘러싸여 발효와 숙성의 세월을 지나 온 김두수·이재희 두술도가 대표를 보면 술 빚는 일과 인간의 삶이 묘하게 닮았음을 깨닫는다.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두 사람은 손수 먹을 것만 생산하는 자급자족 생활, 생태주의적 가치를 좇아 귀농을 꿈꿨다. 2005년, 부부가 정착한 곳은 회양산과 대야산, 작약산에 둘러싸인 문경의 작은 마을 가은읍이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가 탄생한, 남다른 기운이 흐르는 땅. 여기서 온갖 작물을 기르며 안전한 농사꾼이 된 이들은 회양산 자락에 먼저 자리를 잡고 유기농 농법으로 우렁쌀을 재배하는 회양산마을영농조합법인 구성원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애주가 김두수 대표는 이들과 나눠 마실 요량으로 술을 만들었는데, 쌀 소비량이 급감해 판로를 고민하는 동료들의 애환을 듣고 2차 가공업으로 양조를 떠올렸다. 그리하여 2019년 아자개장터 초가 점포 한편에 양조 시설을 갖추고 '두술도가'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쌀 본연의 풍미를 균형 있게 블렌딩한 '회양산 막걸리' 9도·15도와 문경 특산물인 오미자 즙을 넣은 '오미자씨'는 출시와 함께 막걸리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최근에는 막걸리를 두 차례 증류하고 3년 동안 옹기에서 숙성시켜 완성한 '회양산 소주' 40도·53도가 주목받고 있다. 그림책 작가 전미화의 익살스러운 필치로 디자인한 라벨이 멋과 흥을 더한다.

📍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가은5길 7(아자개장터) 📞 doosoldoga



interview

김두수·이재희 두술도가 대표

회양산 막걸리가 세대를 불문하고 널리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전통 누룩으로 빚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맛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구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밸런스 좋은 와인처럼 산미와 진한 풍미, 적절한 당도가 고르게 느껴지도록 블렌딩을 시도했죠. 병입할 때마다 날씨 등 조건에 맞춰 블렌딩 비율을 달리해 완성도 높은 맛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예측 불가한 발효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겠습니다.** 술 빚는 일의 핵심은 효모를 관리하는 것이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맛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협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술 빚는 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귀농하고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다양한 사람과 만나며 인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술만큼 훌륭한 만남의 매개도 없으니까요. **앞으로 두술도가는 어떤 술을 선보이게 될까요?** 그간 약주를 내놓으려고 준비해 왔어요. 두술도가만의 개성이 깃든 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인공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빚어 낸 회양산 막걸리. 와인처럼 드라이한 풍미에 많은 애주가가 열광했다.
- 2 쌀 발효 지게미로 만든 막걸리 올인원 비누.
- 3 김두수·이재희 대표의 꿈이 담긴 회양산 소주. 쌀의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목 넘김이 인상적이다.



2



3



1



3

2025 문경약돌한우축제

미네랄이 풍부한 약돌을 먹고 자라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부드러운 문경약돌한우. 엄격한 사양 관리 프로그램을 거친 최고급 한우만을 엄선해 문경약돌한우축제에서 선보인다. 하이라이트는 최대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구이 터. 저렴한 가격에 맛과 품질이 뛰어난 문경약돌한우를 마음껏 즐길 기회다. 한우에 곁들여 먹으면 더 좋은 문경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두루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기간 10월 31일~11월 2일 장소 경북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문의 054-571-7677



4



1 문경약돌한우의
먹음직스러운 자태.
문경축산농협
약돌한우프라자에 가면
다양한 메뉴로 즐길 수 있다.
2, 3 올가을,
문경약돌한우축제가
고소한 향기로 여행자의
발길을 유혹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문경약돌한우를 맛볼 기회다.
4 약돌 사료를 급여해 키운
최고급 문경약돌한우.

2

자연과 정성으로 완성한 품미 마그마한우

만물이 여물고 맛이 차오르는 계절, 헛헛한 몸과 마음을 채우는 미식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는 문경약돌한우축제. 여기서 '약돌한우'란 돌에 구운 한우가 아니라 돌을 먹고 자란 한우다. 마그마의 분화 생성물인 페그마타이트, 즉 거정 화성암은 신체 재생 능력을 활성화하는 게르마늄·규소·셀레늄 등 미네랄을 함유해 '약돌'이란 별칭이 붙었다. 가은읍 수예리의 페그마타이트 암맥에서는 유독 미네랄 함량이 높은 약돌이 난다. 문경축산농협은 이를 배합한 사료를 제조해 관내 한우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생후 6개월부터 14개월까지 하루 8그램가량 꾸준히 약돌을 섭취한 한우는 육질이 쫄깃하고 잡내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 불포화지방산과 올레인산이 많아 소화를 돕고 담백한 맛을 낸다. 게다가 건강체로 자랄 확률이 높아 약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믿고 먹을 만하다. 2004년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발족 이래 문경시는 지난 20여 년간 사양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료 급여 절차, 우사 환경, 개체별 질병 감염 여부 등을 철저히 살피며 품질이 뛰어난 한우를 생산해 왔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문경약돌한우축제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고급 한우를 제공하는데, 축제가 아닌 때에도 축제 같은 한 상을 즐기고 싶다면 문경축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약돌한우프라자를 찾아가면 된다. 신선한 문경약돌한우는 구워 먹을 때 가장 맛있지만, 몸에 이로운 약재를 아낌없이 우려 낸 한우원기탕과 버섯 향이 품미를 돋우는 버섯불고기전골, 혀에 착 감기는 육회비빔밥도 기분 좋은 포만감을 안긴다.

📍 경북 문경시 호계면 문경대로 1024(문경축산농협 약돌한우프라자) ☎ 054-554-7401

점촌역은 한국 최초 산업 철도인 문경선과 경북선의 연결점이었다. 탄광 산업 부흥으로 어엿한 도심을 이룬 점촌시는 1995년 문경군에 통합되어 사라진 행정구역이 되었으나, 점촌 원도심의 점촌점빵길은 지금도 그 시절의 정서와 문화를 기억하고 계승하고 있다. 이 거리의 구심점은 문경과 경북 지역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을 한데 모아 전시·판매하는 '소장가치'다. 문경 기반의 태평양조가 완성한 프리미엄 라거 문경맥주부터 사과 가공 제품 브랜드 '오아플'이 선보인 문경사과 발효 식초까지 다종다양한 제품을 구경하는 것만으로 문경을 살살이 여행한 듯한 기분이 든다. 로컬 디자인 그룹 '엘오알오'를 통해 입체적인 지역 콘텐츠를 개발해 온 청년 창작자 박현희 대표의 큐레이션이 빛을 발한 덕이다. 양손 가득 쇼핑을 즐겼다면, 존재감 넘치는 이웃 가게 '레퍼토리'로 넘어갈 차례. 점촌 스타일 한식 주점을 표방하는 이곳의 '주모'는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관광 지원 프로젝트 '관광두레' 협의회의 전국 초대 회장을 지낸 천금량 대표. 오랜 시간 지역 활동가로 지낸 그는 경력만큼이나 노련한 손길로 점촌점빵길을 대표하는 메뉴 '약돌돼지 궁물 두루치기'를 요리해 낸다. 달걀물을 입힌 식빵을 구워 설탕을 잔뜩 묻힌 '문방구 토스트'와 호계면의 맛 좋은 두부를 활용한 '호계 두부 김치' 또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다.

- 📍 경북 문경시 호서로 12-1(소장가치), 호서로 14(레퍼토리)
- ☎ 054-553-0109(소장가치), 0507-1389-9041(레퍼토리)

점촌에 발아한 변화의 씨앗 소장가치 x 레퍼토리

1



- 1 오아플의 향긋한 사과 제품이 옹기종기 늘어서 있다.
- 2 레퍼토리의 푸짐한 약돌돼지 궁물 두루치기. 문경맥주를 곁들이면 맛이 배가된다.
- 3 레퍼토리 벽 한편에는 점촌의 옛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붙여 두었다.



2



3

interview

박현희 소장가치 대표 & 천금량 레퍼토리 대표

소장가치와 레퍼토리가 의기투합하게 된 과정을 들려주세요. 저(천금량 대표)는 점촌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 예술 활동가로 일했고, 박현희 대표는 그 학원에서 수학하며 회화를 전공한 뒤 문경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가 되었죠. 지금은 문경의 문화와 청년의 이야기에 기반한 공동체 '가치살자협동조합'을 함께 조직해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문경에 정착하도록 독려하는 일도 해 오셨죠?** 2020년부터 5년간 청년 정착 프로젝트 '달빛탐사대'를 진행했어요. 숙소와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총 197명이 참여해 45명이 정착했을 만큼 상당한 성과를 거뒀죠. 이렇게 정착한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두 곳이 어떻게 나아가길 바라나요?** 소장가치는 자체 기획 상품을 늘려갈 예정이고, 레퍼토리는 아늑한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거예요. 여기서 문경의 자연과 사람이 간직한 에너지를 온전히 느끼셨으면 합니다.





1



2

1 주흘관 앞에서 시원스러운
문경의 산세를 맞닥뜨린다.
2 청량한 물소리가
문경새재를 걷는 이의
귀를 즐겁게 한다.
3 길 한쪽에 자리한 최고령
한글 비석 '산불도심'.

가을바람 따라 옛길을 걷다

문경새재



3

옛사람들은 길 위에서 느끼는 아득한 기분을 이렇게 호소했다. “문경아 새재 고개는 웬 고갯지/ 구비야 구비구비가 눈물이 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문경새재에 얹힌 인간사의 곡절을 울부짖듯 노래한 ‘문경새재아리랑’의 한 소절이다. 조선 태종 14년, 새들도 쉬어 넘는다는 가파른 고개 새재 동쪽 자락을 개척해 영남에서 한양까지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냈다. 지방 선비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 길을 거쳤고, 장원급제해 금의환향할 때도 같은 곳을 지났다. 새로 부임한 경상도 관찰사도 이 길가에 자리한 교귀정에서 임기를 다한 전임 관찰사를 만나 인수인계 의식을 치렀다. 무수한 묵객 또한 이곳을 경유하며 시를 지어 읊기도 했다. 퇴계 이황은 “나그네는 유월에도 얼음이며 눈을 밟는다네/ 깊은 웅덩이 곁에는 국도가 서울로 달리고 있어/ 날마다 수레며 말발굽이 끊이지 않는다네”라고 쓴 시 ‘용추’를 남겼다. 여행객들이 묵어 간 조령원터, 현존하는 최고령 한글 비석 ‘산불도심’, 춤추는 것처럼 가지를 뒤뉘며 자란 수백 살 수령의 소나무, 관리가 백성에게 베푼 공덕을 기리며 바위 곳곳에 음각해 놓은 비문, 예나 지금이나 쉼 없이 흐르는 조령천 물길까지. 제1관문 주흘관부터 제3관문 조령관까지 이어지는 6.5킬로미터의 기나긴 옛길, 이곳에 깃든 유구한 세월과 이야기가 자아내는 모든 풍경이 내딛는 걸음걸음을 충만하게 한다.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일원 ☎ 0507-1321-0709

no.10

MUNGYEONG



KTX MAGAZINE

문경사과

고결

현암요

두술도가

문경약돌한우

소장가치×레퍼토리

문경새재

WRITER 이제희(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장은주

제작 지원 문경시청



백성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2025 문경 사과축제

10. 18.(토) ~ 10. 26.(일) 9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개막식 10. 18.(토) 14:00 | 폐막식 10. 26.(일) 14:00 |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사과특판행사 연장운영 : 11. 2.(일) 까지

개막식



전유진



김용빈



손태진



안성훈



배일호



박서진



최예진

폐막식



청춘이란 이름의 춘천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의 시간은 강변에서 시작해 강변에서 끝난다.
도시의 가장 역동적인 면모를 간직한 공지천 유원지부터
해가 저물면 강물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는 춘천대교까지, 시시각각 달라지는
강변 풍경은 도시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어 준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ITX-청춘을
타고 춘천역까지 1시간 15분 정도 걸린다.

제작 지원 춘천시청



산과 강, 도시가 빛어낸 낮의 정경

강변의 여유, 청년들의 도전, 그리고 삼악산의
아름다운 풍광이 담긴 춘천의 한낫.

역사와예술, 일상이공존하는강변

춘천 중심부를 지나 북한강으로 흐르는 공지천을 따라 걸으면, 평일 낮인데도 사람이 제법 많다. 벤치에 앉아 강물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고, 오리 배를 타고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기도 한다. 수상스키로 물살을 가르며 짜릿한 스릴을 즐기는 이들도 눈에 띈다. 공지천은 동쪽의 대룡산, 남쪽의 금병산 등에서 흘러온 다섯 개의 물줄기가 하나로 모이는 곳이다. 쉽 없이 흐르는 물의 역동적 에너지 덕분에인지 주변에 공원과 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여가 공간이 조성되어 하나의 유원지를 이루고 있다. 물길 따라 난 산책로를 거닐고, 지난 연말에 개통한 출렁다리 '춘천사이로248'을 오가는 것도 공지천을 만끽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공지천 양옆으로는 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공원이 여럿 있다. 그중 의암공원은 춘천 출신으로 조선 후기 성리학자이자 의병장인 유인석의 호에서 이름을 따왔다.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삶의 터전에 되새기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의암 유인석 동상 앞쪽에는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윤희순 열사의 동상이 자리한다. 의병장 유홍석(의암의 육촌 형)의 며느리로, 춘천에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며 의병을 지원하고 일제강점기에는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양성한 인물이다. 경건한 마음으로 두 동상을 지나면 산딸나무, 단풍나무 등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산책로가 나온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



리, 백로가 날개짓을 하며 물 위를 날아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사색에 잠기기 좋은 길이다. 건너편 조각 공원은 키 큰 나무가 즐비한 의암공원과 달리, 넓게 펼쳐진 잔디밭 곳곳에 예술품이 놓여 있어 야외 미술관을 방불케 한다. 춘천 출신 소설가 김유정의 문학비와 잡지 <개벽>의 창간 멤버이자 한국 잡지 언론의 개척자로 불리는 청호 차상찬 동상은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 조각 공원 맞은편 일대는 공지천 재즈 페스타와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등 지역 축제가 열리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삼악산을 편안하게 즐기는 방법

태백산맥 서쪽에 자리한 춘천은 소나무와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오봉산과 기이한 바위를 품은 용화산 등 여러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다. 그중 한국의 100대 명산으로 이름난 삼악산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크고 작은 폭포를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어 인

기가 많다. 청운봉, 등선봉, 용화봉 세 개 봉우리로 이뤄진 삼악산의 아름다움은 등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국내 최장 길이 3.61킬로미터의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를 타는 것이다. 케이블카에 오르면 춘천 시내와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것은 물론,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이뤄진 산세가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진다.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다면 텍 산책길 끝에 자리한 삼악산 스카이워크로 향하자.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함이 색다른 묘미를 선사한다.

춘천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인구의 지역 이탈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화동2571'은 그런 흐름

1 공지천 유원지 안에 자리한 출렁다리 '춘천사이로248'. 2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를 타면, 춘천 시내의 물론 의암호 풍경을 두루 조망할 수 있다. 3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 공간 '근화동396'.



+

춘천의 지역 축제

2025 춘천커피축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공지천에서 열린다. 올해는 공지천재즈페스타와 동시에 개최하며, 재즈와 커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공지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미식 축제. 춘천의 별미 막국수와 닭갈비를 포함한 지역 전통 음식과 독창적인 로컬 F&B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화동2571은 각기 다른 콘셉트의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청년 셰프와 지역 자원이 어우러져 로컬 외식 문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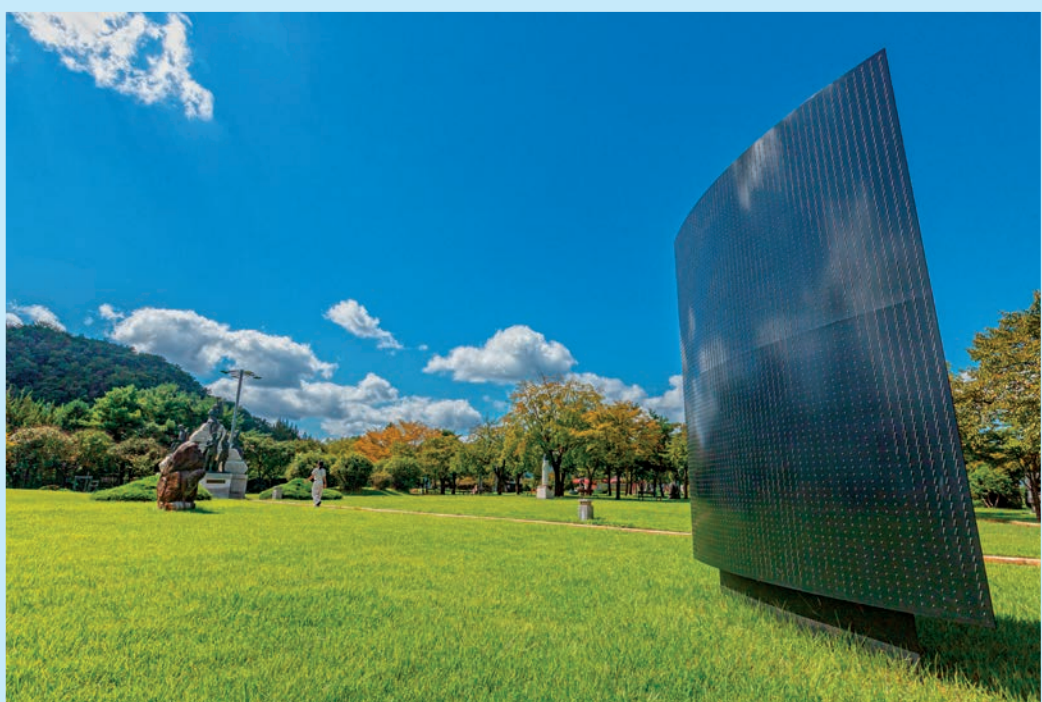
1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화동2571' 전경.
2 라토피아는 지역 식재료를 재해석한 이탈리아 음식을 선보인다.
3 라토피아의 대표 메뉴인 닭갈비 플레이트. 춘천의 명물 닭갈비와 메밀로 만든 토르티야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속에서 탄생했다. 2019년에 오픈한 청년 창업실 '근 화동396'에 이은 춘천시의 두 번째 창업 브랜드다. '서로 어울리며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의 '화동(和同)'과 부지 주소의 건물 번호인 '2571'을 결합한 화동2571은 청년 창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려졌다. 근화동 북한강 변에 자리한 화동2571은 다섯 동의 건물로 조성되었고 이곳에는 청년 창업 플랫폼 '키친2571', 이탈리아 퓨전 레스토랑 '라토피아' 등이 있다. 이 중 키친2571에선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과 장비 제공은 물론, 메뉴 개발 교육과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현재 심사 과정을 거쳐 업선된 총 여섯 개의 로컬 F&B 브랜드가 영업 중이다. 프리미엄 덮밥 전문점 '놀밥'부터 메밀가루와 쌀

가루로 디저트를 만드는 '메메밀', 수제 한돈 패티 토르티야를 판매하는 '또구뽕구', 감자반죽 크로켓 전문점 '미트 고로케', 감자채전으로 타코를 선보이는 '포코타코', 퓨전 컨템퍼러리 미식 공간 '미술랭'까지 각기 다른 콘셉트의 브랜드가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김남훈 셰프가 이끄는 라토피아는 치즈와 닭갈비로 속을 채운 라비올리, 강원도 감자로 만든 뇨키, 제철 과일을 넣은 샐러드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르 꼬르동 블루 오타와 출신으로 서울과 속초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 온 그는 청년들의 든든한 조연자도 되어 준다. 청년 셰프의 도전과 지역의 자원이 어우러진 화동2571은 로컬 외식 문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가는 중이다.

Mountains, Rivers, and the City's Daytime Ch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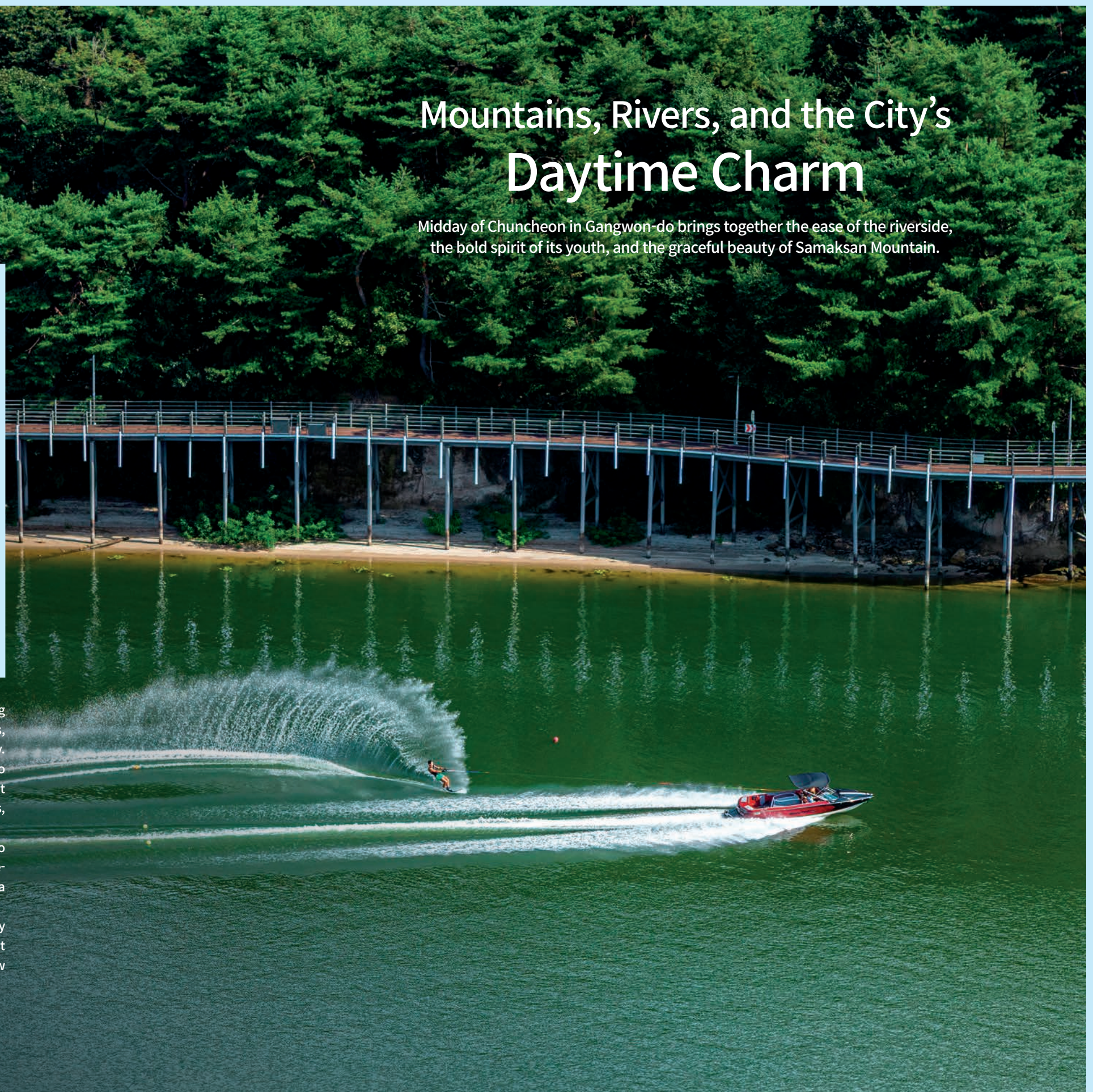
Midday of Chuncheon in Gangwon-do brings together the ease of the riverside, the bold spirit of its youth, and the graceful beauty of Samaksan Mountain.



Gongjicheon, which flows through downtown Chuncheon, is formed where five streams descending from Daeryongsan Mountain and Geumbyeongsan Mountain converge. Along its banks, you'll find parks, performance venues, and an inline skating rink, all creating a lively leisure space in the middle of the city. Strolling along the walking paths or crossing Chuncheon 248, the suspension bridge, are wonderful ways to enjoy the stream. On either side are two parks with distinct characters: Uiam Park, named after the patriot Yu In-seok, often serves as a stage for festivals, while Sculpture Park, with works placed across the lawns, feels like an open-air art museum within the city.

To see how the community is supporting young entrepreneurs and boosting the local economy, head to Hwadong 2571, a new food and culture complex that opened this past August. Its Kitchen 2571 provides one-stop support for start-ups, from workspace and equipment to menu development and marketing, while La Topia, an Italian fusion restaurant highlighting local specialties, welcomes visitors with inventive flavors. No daytime journey through Chuncheon would be complete without experiencing the mountains cradled by the Taebaek range. To take in the beauty of Samaksan with ease, ride the Samaksan Cable Car, the longest in Korea at 3.61 kilometers. Crossing over Uiamho Lake, the cable car offers sweeping views of the city below and the surrounding pine forests.

Address 690-1, Geunhwa-dong, Chuncheon-si, Gangwon-do (Gongjicheon), 2571, Yeongseo-ro, Chuncheon-si, Gangwon-do (Hwadong 2571), 245, Sports town-gil, Chuncheon-si, Gangwon-do (Samaksan Cable Car Uiamho Lake Station)



충천연색으로 빛나는 춘천의 밤

여행의 이정표가 되어 주는 의암호 둘레길의 불빛,
호수 위 거대한 예술 작품 같은 춘천대교의 조명,
주탑의 유연한 곡선 위로 떨어지는 마장달빛교의 노을.
춘천은 해가 진 후 더 아름답게 빛난다.

의암호둘레길을 따라 걷는 야행

초가을의 노을이 의암호에 번지면, 호수를 따라 조성한 둘레길은 오가는 사람들과 자전거가 지나는 풍경으로 한층 더 활기를 띤다. 약 30킬로미터 길이에 이르는 의암호 둘레길은 춘천역에서 출발해 춘천대교, 소양강스카이워크, 공지천 유원지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지나 다시 춘천역으로 돌아오는 순환형 코스로 되어 있다. 의암호는 1967년 의암댐 완공으로 북한강과 소양강 물을 가두면서 형성된 인공 호수다. 의암리 옷바위 근처 협곡을 막아 만든 이 호수는 산악 도시이던 춘천에 '호반의 도시'라는 새로운 이름을 안겨 주었고, 시민들은 물론 수많은 여행자가 몰려들면서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지난해 말 개장한 근화수변 문화광장의 숲은 둘레길을 걷다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장소다. 춘천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자리한 이 공원은 한때 배가 드나들던 근화동의 물양장 터에 조성돼 이목을 끌었다. 1만 제곱미터 부지에 잔디 마당과 공연장, 야생화원, 전망대가 한데 모여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펼쳐진 보행 데크이다. 산책로 끝에는 고운 능선의 산과 맑은 호수를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자리한다.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의암호에 서식하는 붕어, 쏘가리, 잉어 등의 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다. 해가 지면 보행로에





1 일몰 무렵 춘천사이로248의 전경. 2 의암호 일대를
낭만적인 분위기로 물들이는 근화수변 문화광장의 숲.



빛과 물이 어우러진 춘천대교.
거묵한 물결이 일렁이는 수면 위로 꽃, 하트, 구름 등 도시를 형상화한
열두 가지 패턴의 분수 쇼가 펼쳐진다.

조명이 켜져 빛을 발산하며 주변이 한층 낭만적인
분위기로 물든다.

드라마보다더드라마틱한춘천의야경

근화수변 문화광장의 숲 전망대에서 살짝 고개를
돌리면 춘천 시내와 중도를 잇는 춘천대교가 한눈
에 잡힌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에 배경으로 등장한 덕분인지 춘천
대교가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중앙의 대형 아치
구조물과 비스듬히 뻗은 케이블이 조형미를 자랑

하는 춘천대교에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됐다. 케이
블이 원형의 주탑을 당기고 초고성능 콘크리트로
제작한 하부구조가 이를 지탱하는 형태로 설계한
것. 세계 최초의 교량 건축 기술로 완공한 춘천대교
는 2019년 대한토목학회 '올해의 토목구조물상' 금
상을 수상했다.

곧게 뻗은 다리는 강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드라
이브 명소로도 사랑받는다. 다리 위에 보행로도 설
치돼 있어 낮에는 잔잔한 북한강을 내려다보며 산
책하기 좋고, 밤에는 빛과 물이 어우러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거묵한 물결이 일렁이는 수면 위로
꽃, 하트, 구름 등 도시를 형상화한 열두 가지 패턴
의 분수 쇼도 펼쳐진다. 총천연색 조명이 어우러지
며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는 곳, 춘천의 밤
은 결코 같은 빛으로 되풀이되지 않는다.

시민이 함께 밝힌 춘천의 새로운 밤

춘천에는 40여 개의 물줄기가 흐른다. 벽화 마을로
유명한 효자동, 아파트 단지로 가득한 우두동 등
시내 곳곳을 휘감는 시냇물은 춘천을 '물의 도시'라

부르는 이유를 증명한다. 도심의 지천은 홍수 예방
과 생태계 보전은 물론, 주민들이 일상과 문화를 즐
기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지난 8월 준공식을 마친
마장달빛교는 마장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
으로 조성했다. 산책로에 와이어 조명을 드리우고
하천에는 연꽃을 비추는 투사 조명을 더해 춘천의
또 다른 노을 명소로 떠올랐다. 의암호 둘레길과 연
결돼 자전거 코스로도 손색없다. 마장달빛교는 주
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깊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아



1 올해부터 '춘풍야장'이라는 새 이름으로 풍물 시장에 들어선 야시장. 2 직화로 구운 매운 닭발은 춘풍야장의 인기 메뉴. 양념 사이로 불 향이 스며들어 더욱 고소하게 느껴진다.



이디어를 얻은 뒤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했다. 앞으로 다리 위에선 사생 대회나 전시회,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추억의 숯불 향이 불러낸 밤 풍경

춘천의 밤이 낮보다 더 유혹적인 것은 지금처럼 고기 굽는 소리와 고소한 음식 냄새가 발길을 붙들기 때문이다. 남춘천역과 춘천역을 연결하는 경춘선 철로 교각 아래, 3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풍물 시장이 출출한 여행자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2010년 말 풍물 시장은 이 자리에 터를 잡았다. 본래는 약

사천 위에서 장터를 열곤 했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장소를 옮긴 것. 덕분에 풍물 시장은 철로 하부 공간을 이용한 전국 최초의 전통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매달 2·7일로 끝나는 날에 오일장이 열리면 지역 농산물과 싱싱한 수산물은 물론, 장떡과 메밀전 같은 강원도 토속 음식을 파는 노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선다.

풍물 시장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야시장 '춘풍야장'이 열려 춘천의 밤을 활자한 분위기로 이끈다. 지난해까지는 금·토·일요일에만 운영했는데 올해는 장날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손님을 맞는다. 장소도 기존 풍물 시장 잔디밭에서 지붕이 설치된 아케이드 구간까지 확대해 먹거리와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춘풍야장의 별미는 단연 춘천식 숯불 닭갈비. 지금은 철판에 닭고기와 채소를 볶아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60년대 춘천 닭갈비의 시작은 숯불에 양념한 닭갈비를 구워 먹는 방식이었다. 그 시절을 재현하듯 춘풍야장은 숯불 연기를 자욱하게 피워올리며 야행객을 유혹한다. 야시장의 환한 불빛, 불꽃이 타닥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덕분에 춘천의 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Chuncheon Nights in Full Color

The nights are long in Chuncheon, filled with light. The city pulses with new rhythms along the Uiamho Lake trail, across the glowing span of Chuncheondaegyo Bridge, and on Majang Moonlight Bridge where sunset hues linger.



At the end of last year, the Geunhwa Waterside Culture Square Forest opened on the site of an old dock in Geunhwa-dong, once a bustling port for boats. Spanning 10,000 square meters, it features a lawn plaza, a performance stage, a wildflower garden, and an observatory, making it an inviting place for both strolling and rest. From its glass-bottom walkway, visitors can look straight down onto Uiamho Lake, watch the ridgelines of the surrounding mountains, and even spot fish such as crucian carp, mandarin fish, and carp swimming below. When night falls, the walkway lights up, casting a romantic glow across the lakeshore.

From here, the night view of Chuncheon's landmark, Chuncheondaegyo Bridge, fills the horizon. Linking downtown Chuncheon with Sindong-myeon, the bridge has become a favorite backdrop in popular dramas. Its sweeping central arch and diagonal cables are striking, and the bridge is reinforced with ultra-high-performance concrete (UHPC). Incorporating world-first engineering techniques, Chuncheondaegyo Bridge won the Grand Prize in the 2019 Civil Engineering Structure Awards of the Year, organized by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Streams winding throughout Chuncheon not only preserve the local ecosystem and help prevent flooding, they also serve as everyday cultural spaces. In August, Majang Moonlight Bridge opened with a completion ceremony. Its illuminated wire lighting, paired with lotus-shaped projections on the water, quickly made it one of Chuncheon's newest sunset-viewing spots. The bridge will also host events such as art contests, photo exhibitions, and small concerts set against its scenic backdrop.

Meanwhile, under starry lights, the Chuncheon Folk Flea Market transforms into a vibrant night market in summer. Rebranded as Chunpoong Night Market, the market now opens daily from 6 to 11 p.m., except on traditional market days and Sundays. Its signature dish is Chuncheon-style dakgalbi, grilled over charcoal just as it was in the 1960s when the dish first gained fame. The smoky aroma, rising with the chatter of people, recreates the bustling atmosphere of those days.

Address 611, Geunhwa-dong, Chuncheon-si, Gangwon-do (Geunhwa Waterside Culture Square Forest & Chuncheondaegyo Bridge), 61, Sanong-dong, Chuncheon-si, Gangwon-do (Majang Moonlight Bridge), 2352-24, Yeongseo-ro, Chuncheon-si, Gangwon-do (Folk Flea Market)

나날이 새로운 춘천

낮선 도시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현지인에게 숨은 명소를 추천받는 것이 가장 좋다. 춘천에서 나고 자란 육동한 춘천시장이 이곳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가을 여행 팁을 건넸다.



춘천 토박이가 생각하는 춘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향기는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촉매제라고 합니다. 산과 호수의 싱그러운 내음을 맡으면, 제 고향 춘천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토박이뿐 아니라 춘천에 와 본 분이라면 이곳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 이유는 ITX-청춘 열차를 타고 한 시간만 달리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힐링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춘천은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춘천은 사계절이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에는 춘천 고유의 색이 더욱 짙어집니다. 단풍으로 물든 구봉산과 용화산, 삼악산, 대룡산을 소양호와 의암호가 감싸고 있는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절경입니다. 아름다운 의암호를 조망할 수 있는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아이들의 창의력과 꿈이 자라나는 레고랜드, 호수위를 걷는 아찔한 경험을 선사하는 소양강스카이워크 등 가족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이 춘천 곳곳의 개성 넘치는 카페에 주목하며 '커피의 성지'로도 불리고 있죠. 24시간이 즐거운 매력 도시, 춘천을 많이 찾아주세요.

최근 오픈한 '화동2571'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화동2571은 춘천의 새로운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뜻을 모아 함께 이룬다'는 의미가 담긴 이름 '화동'은 시민과 청년 창업가, 그리고 지역 농가와 의 상생이라는 지속 가능한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닭갈비, 막국수 등 지역의 대표 음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미식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춘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라 접근성이 좋고, 부근에 의암호가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까지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춘천대교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의암호 둘레길을 따라 춘천사이로248, 근화수변 문화광장의 숲, 춘천대교, 삼악산 스카이워크, 소양2교, 마장달빛교로 이어지는 코스는 춘천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루트입니다. 그중에서도 춘천대교는 야경의 백미라 할 수 있어요. 다리 위 케이블로 연결된 독특한 원형 구조물이 거대한 작품 같아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대표적 명소입니다. 최근에는 걸 그룹 트와이스의 '원 스파크(One Spark)'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지난해 화제를 모은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주요 장면에 춘천대교가 등장해 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요. 환상적인 분수 쇼가 펼쳐지고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 춘천대교에서 아름다운 춘천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해주세요.

춘천사이로248은 의암호를 가로지르는 248미터의 출렁다리로, 지난해 12월 개통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분이 찾고 있습니다. 서면에서 춘천대교와 레고랜드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낭만적인 장소입니다. 춘천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죠. 중앙시장과 번개시장, 애막골 새벽 시장 등은 70년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특히 풍물 시장은 올해 문화관광형 특성화 야시장으로 선정돼 야간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중도는 섬에 습지가 형성된 숲섬이라는 특별한 생태계를 이루는 곳으로, 이곳에 호수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원 조성 and 산업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정원 관련 기관인 국립정원소재센터도 들어섭니다. 정원 교육과 체험, 박람회 같은 문화 행사와 시민정원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죠. 그렇게 완성된 호수 정원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이들에게는 생태 교육의 장이 되는 등 춘천의 미래를 밝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에는 춘천에서도 다양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지천 산책로 일대에서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5 춘천커피축제' '공지천 재즈 페스타' '춘천국제탱고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됩니다. 춘천은 1968년 에티오피아 황제가 외교부에 전달한 황실 원두를 국내 최초로 로스팅한 도시로, 대한민국 커피 역사의 시작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춘천의 정취가 느껴지는 커피와 재즈, 탱고가 만나 더욱 세련되고 감성적인 축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춘천을 대표하는 '2025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공지천을 중심으로 도시 전역에서 열립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면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진행되는 '2025 춘천애니토이페스티벌'은 온 가족을 동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무르익은 가을, 춘천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가을 한복판, 함평

알싸한 가을바람, 향기로운 국화 내음 따라 걸음을 땀다. 가을빛이 짙게 물든
전남 함평의 자연에 몸을 내맡길 때다.

채지 자연 함평군청

가는 방법 함평과 가까운 역은 광주송정역,
나주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1시간 50분 정도 걸린다.

1

호남가 따라 한 걸음 함평 천지길

판소리 연구가 신재효가 정리하고 명창 임방울이 가창한 단가 '호남가'는 전라도 50여 곳의 지명을 하나하나 불러 세우며 애항심을 자극한다. 이 노래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이름이 바로 함평이다. "함평천지 높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라 허고/ 제주 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네갈 제..." 다 함(咸)에 평평할 평(平)자를 쓰는 함평을 경유해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을 전한 셈이다. 함평읍 수산봉 둘레길과 생태 습지, 화양근린공원, 함평엑스포공원을 에워싼 6킬로미터 길이의 함평 천지길은 '호남가'의 이상을 구현한 듯 너그러운 풍광을 자아낸다. 삼나무 숲으로 이어진 산책로 덕을 따라 걷거나, 황톳길 '맨발로'를 거닐며 흙의 온기를 느끼는 동안 어수선한 마음은 고요해지고 맑은 기운이 온몸에 차오른다. 발바닥이 기분 좋을 만큼 데워졌다면 함평엑스포공원으로 들어설 차례다. 봄에는 '함평나비대축제', 가을엔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공원에는 지역 예술의 구심점인 함평군립미술관, 함평 읍내의 옛 풍경을 재현한 추억전시관 등 볼거리가 여럿인데 그중에서도 나비곤충생태관과 황금박쥐특별전시관이 가장 많은 발길이 모이는 곳이다. 함평의 자연을 상징하는 산호랑나비 세밀화,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을 감상하며 이 고장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진다.

주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일원 문의 061-320-2230(함평엑스포공원)



1 수산봉 정상에 거대한 LED 나비 조형물이 자리해 있다. 함평 천지길은 수산봉과 함평엑스포공원을 아우르는 트레킹 코스다. 2 순금 162킬로그램으로 제작한 황금박쥐 조형물은 금 시세 폭등으로 화제를 모으며 함평의 랜드마크가 됐다. 3 함평엑스포공원 곳곳에서 날갯짓하는 나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

여린 봄꽃과 매혹적인 여름꽃의 시절을 지나 청순한 가을꽃을 만나러 갈 때다. 10월에 만개해 절정을 이루는 국화는 예부터 선비의 기상과 절개를 뜻하는 사군자 중 하나로, 고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라 여겨졌다. 함평에서는 2004년부터 국화를 주인공으로 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열어 가을날의 정취를 더하는데, 지난 1월에는 제13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관광·생태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행사는 '마법의 국향랜드'라는 몽환적인 주제로 한층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신비로운 동화 속 장면처럼 만발한 국화로 꾸민 회전목마, 마법의 성, 대관람차가 여행자들을 기다린다.

기간 10월 24일~11월 9일 장소 전남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문의 061-320-2238



함평 마스코트 친구들

생물 다양성을 간직한 땅, 함평의 청정한 자연 환경을 대표하는 두 친구를 소개한다. 함평 관광 마스코트 '황박이'는 세계적 멸종 위기종 황금박쥐로, 활짝 핀 날개와 동그란 눈이 사랑스럽다. 두 뺨이 발그레하게 물든 나비 '뽀뽀'는 에듀테인먼트파크인 '나빛파크'를 상징하는 캐릭터다. 함평엑스포공원 팝업 스토어에서 황박이와 뽀뽀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함평겨울빛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끝난 뒤에도 축제의 환상적인 장면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 축제장을 장식한 대형 조형물과 함평엑스포공원의 야간 경관 조명을 활용해 겨울밤을 수놓을 함평겨울빛축제가 11월 말부터 막을 올린다. 밤공기에 묻어나는 그윽한 국화 향기와 영롱하게 빛나는 색색의 조명이 공감각적 감흥을 끌어내는데,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전시가 축제장의 예술적 구심점을 이루며 축제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다. 함평 지역 농특산물과 맛깔스러운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와 산타복 입기 등 체험 존 코너, 겨울날의 시린 공기를 뭉근하게 데워 줄만한 적인 버스킹 공연이 멋과 흥을 더한다.

기간 11월 28일~2026년 1월 11일 장소 전남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문의 061-320-2238





2

명절맞이 전통 체험 매동포레스트 & 주포한옥마을

시절인연만큼 의연하고 아름다운 것이 시절음식이다. 명절이나 절기에 맞춰 제철 농작물로 만드는 음식을 이르는 시절음식은 우주의 운행과 땅의 질서를 되새기게 한다. 대동면 매동길 언덕바지에 자리한 작은 미식 공간, 매동포레스트의 윤경 대표는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이애섭 남도의례음식장에게 전통 음식을 사사해 시절음식의 즐거움을 많은 이와 나누고 있다. 한가위가 든 10월, 윤 대표는 송편과 바람떡 빚기를 권한다. “뉘은 깨에 설탕, 소금, 꿀을 섞어 만든 달콤한 소를 넣어 송편을 빚을 거예요. 자, 반죽을 복주머니라 생각하고 소를 한가득 채우세요.” 치자, 강황, 아로니아 등 자연에서 온 알록달록한 색이 반죽에 고스란히 들어 있어 빚어 놓은 송편이 마치 꽃 같다. 다 익힌 반죽을 틀에 찍어 내는 바람떡 절편 공예 체험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데, 함평을 상징하는 나비 모양 떡이 당장이라도 포르르 날아오를 듯하다. 이제 정성껏 만든 떡을 손에 들고 바다로 떠날 차례. 주포항의 넉넉한 바다를 마주하는 주포한옥마을은 30여 동의 전통 한옥 스테이가 들어선 숙박 지구로 핑크몰리와 억새가 한창인 가을에 가장 눈부신 풍광을 자랑한다. 까만 밤, 대청에 몸을 누인 채 은은한 파도 소리와 풀벌레 울음에 귀 기울일 시간이다.



1 매동포레스트에서는 ‘함평에서 농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바람떡 빚기, 궁중식 브런치 월과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진행한다. 김부각, 약과, 오란다, 강정 등 윤경 대표가 손수 만든 전통 간식도 판매한다. 2, 3 주포 앞바다의 전망이 시원스럽게 펼쳐진 주포한옥마을. 고아한 정취가 깃든 한옥에 머물며 함평의 너그러운 자연을 생각한다. 저녁에는 억새정원과 전망대를 산책해도 좋다.



1, 2 함평천지 몽베르는 2023년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26호로 지정됐다. 소나무 아래 정자에 앉아 있으면 기차가 함평역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인다.
3 시목 건물 2층 한편에는 시적 소품점을 표방하는 '단순한 것들을 기리는 노래'가 자리한다.
천연 염색 의류 브랜드 '뽕데강'의 감각적인 제품과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다정한 수공예품을 구비해 놓았다.

주소 전남 함평군 학교면 둔기길 59-26(함평천지 몽베르) 전남 함평군 손불면 남교길 11(시목) 문의 061-322-6223(함평천지 몽베르), 0507-1464-1635(시목)



3

숲이 에워싼 휴식처 함평천지 몽베르 & 시목

금목서와 은목서가 피어나 암향을 뿜어내는 계절이다. 학교면 죽정리의 정원 카페 함평천지 몽베르에 가면 대숲에 고인 가을꽃의 그윽한 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300여 년간 가문의 집터로 보존해 온 땅에 손수 나무를 심고 꽃과 풀을 길러 함평의 첫 민간정원으로 가꾼 지용구 대표는 이곳이 전남 담양 소재원처럼 수백 년 영속할 정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수형이 유려한 수백 살 소나무와 악귀를 쫓는 영험한 팽나무, 선비 정신을 구현한 매화나무와 참나무를 감상하는 동안 정원주의 고매한 뜻과 비지런한 손길이 느껴져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손불면 산남리의 폐교를 개조한 문화 공간이자 카페인 시목도 남다른 아름다움이 깃든 장소다. 천연 염색 공예가로 변신한 가수이자 디자이너 은희는 20여 년 전 함평군의 초청으로 이곳에 정착해 교사 두 동을 잇는 이국적인 건물을 짓고,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펼쳐 왔다. 이제는 2대 김키미와 이준협 대표가 시목을 자신들의 색깔로 물들여 가는 중이다. 대지의 색깔과 질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벽체, 오래된 목재와 천 자락 같은 자연의 재료로 장식한 인테리어는 명상적 분위기를 완성한다. 감미로운 차와 커피, 디저트가 세월의 흔적이 어른거리는 공간을 더 깊이 음미하도록 이끈다.

무르익는 계절, 저무는 바다 서해랑길35코스 함평 구간

함평군 북서쪽 해안은 전남 무안군과 영광군에 둘러싸여 좁고 긴 만을 이룬다. 이름하여 함평만. 서해랑길35코스는 추상회화 같은 연흔이 새겨진 함평만 갯벌을 끼고서 느린 파도처럼 걸어 나가는 길이다. 함평읍 석성리에서 출발해 이웃 지역인 전남 영광 향화도까지 다다르는 눈부신 여정. 마침 염생식물인 칠면초가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므로 해 저무는 시간에 맞추어 가면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불타는 듯한 장관을 마주할 수 있다. 시작점은 돌머리해수욕장. 바다 방향으로 이어진 채도 높은 무지개다리가 걷는 이의 마음을 독려한다. 역새가 아름다운 주포항을 지나면 함평해수찜 마을에 이르는데, 장작불로 달군 유황석을 해수에 담가 증기를 유발하는 전통 방식으로 유명하다. 200여 년간 성업해 온 터줏대감 '함평주포해수약찜'에서 몸과 마음을 뭉근하게 녹인 뒤엔 안악해변으로 간다. 낙지 중 낙지라 손꼽히는 손불 뿔낙지가 이 주변에서 잡히니 인근 식당에서 그 탱탱하고 쫄깃쫄깃한 맛을 즐겨 보아야 한다. 해가 다 기울 무렵 함평항으로 이동해 낙조를 마주한다. 하늘과 땅, 갯벌과 물길이 달군 숯불처럼 붉어지는 순간이다. 멀리 어 른거리는 칠산대교의 실루엣은 장엄한 해넘이의 풍광을 더욱 선명히 각인시킨다.



1

1 함평항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머지않아 어둠이 내리고, 칠산대교에 색색의 조명이 드리울 것이다.
2 물길이 드나들며 생겨난 갯고랑의 아름다운 무늬.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풍경이다.

2



Hampyeong, In the Heart of Autumn

1

Hampyeong Cheonji-gil

Honamga, a short pansori piece organized by scholar Shin Jae-hyo and later sung by master singer Im Bang-ul, stirs deep affection for the region by calling out more than 50 place names across Jeolla. The song begins with Hampyeong: “From the wide Hampyeong plains, this old body looks toward my hometown of Gwangju... Morning fog over Mount Gosan drapes across Yeongam...” The name Hampyeong itself, with “ham” meaning “all” and “pyeong” meaning “peace,” carries the hope for a world where peace belongs to everyone. The six-kilometer Hampyeong Cheonji-gil trail, which circles around Susanbong, Hwayang Neighborhood Park, and Hampyeong Expo Park, seems to embody the ideal vision expressed in the song with its generous landscapes. The park is also home to the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in spring and the Grand Chrysanthemum Festival in autumn. Within it are many attractions, including the Hampyeong Museum of Art, a hub of local culture, and the Memory Exhibition Hall, which recreates old scenes of Hampyeong town. The Butterfly and Insect Eco Hall and the Golden Bat Exhibition Hall draw the most visitors. Here, you can admire detailed illustrations of the Korean swallowtail butterfly, a symbol of Hampyeong’s natural beauty, and a pure gold sculpture of the rare golden bat, bringing you closer to the spirit of this region.

Address Hampyeong-eup, Hampyeong-gun, Jeollanam-do **Contact** 061-320-2230 (Hampyeong Expo Park)



A crisp autumn breeze and the fragrance of chrysanthemums lead the way. It is time to immerse yourself the autumn glow of Hampyeong’s natural beauty in Jeollanam-do.



2

Maedong Forest & Jupoh Hanok Village

Seasonal food is as graceful and timely as the turning of the seasons themselves. These dishes, prepared with ingredients harvested at their peak and eaten during holidays or special times of year, remind us of the rhythms of the earth and the order of the universe. On a hillside along Maedong-gil in Daedong-myeon, Maedong Forest offers a small but special culinary space. Its owner, Yoon Kyung, studied traditional food under Lee Ae-seop,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 of Namdo Ritual Food, and now shares the joy of seasonal dishes with many others. In October, during Chuseok, Yoon recommends making songpyeon (half-moon rice cakes) and baramtteok. Natural ingredients such as gardenia, turmeric, and aronia add vibrant colors to the dough, making the finished songpyeon look like delicate flowers. The baramtteok workshop, where steamed dough is pressed into decorative molds, offers a different delight. Butterfly-shaped rice cakes, symbolizing Hampyeong, look ready to flutter into the air at any moment. With these carefully crafted treats in hand, it is time to head for the sea. Facing the open waters of Jupoh Port, Jupoh Hanok Village is a lodging district with more than 30 traditional Korean houses for stays. In autumn, when the fields of pink muhly and silver grass are in full bloom, the village presents one of Hampyeong’s most breathtaking landscapes.

Address 204-9, Maedong-gil, Daedong-myeon, Hampyeong-gun (Maedong Forest), 3, Jupohanok-gil, Hampyeong-eup, Hampyeong-gun, Jeollanam-do (Jupoh Hanok Village) **Contact** 061-323-2326 (Maedong Forest)



3

Hampyeong Cheonji Montvert & Simok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ason has come when golden and silver osmanthus bloom, filling the air with their deep, subtle fragrance. At Hampyeong Cheonji Montvert, a garden café in Jukjeong-ri, Hakgyo-myeon, the refreshing scent of bamboo mingles with the aromas of autumn blossoms, leaving visitors entranced. The site, preserved as a family estate for more than 300 years, has been transformed into Hampyeong’s first “private garden,” where the owner planted trees and cultivated flowers by hand. Walking among centuries-old pines with their elegant silhouettes, a sacred hackberry tree believed to ward off evil spirits, and plum and oak trees embodying the spirit of seonbi, one cannot help but admire the garden’s noble vision and the diligent care that sustains it. Another space with its own special beauty is Simok, a cultural venue and café created from a former school building in Sannam-ri, Sonbul-myeon. The walls carry the tones and textures of the earth itself, while interiors decorated with natural materials such as aged wood and cloth evoke a meditative atmosphere. Gentle teas, coffee, and desserts deepen the experience, inviting visitors to savor both the flavors and the lingering traces of time.

Address 59-26, Dungi-gil, Hakgyo-myeon, Hampyeong-gun (Hampyeong Cheonji Montvert), 11, Namgyo-gil, Sonbul-myeon, Hampyeong-gun, Jeollanam-do (Simok) **Contact** 061-322-6223 (Hampyeong Cheonji Montvert), 0507-1464-1635 (Simok)

4

Seohaerang Trail Course 35 – Hampyeong Section

On the northwest coast of Hampyeong, the shoreline narrows into a long, slender bay framed by Muan to the south and Yeonggwang to the north. This is Hampyeong Bay. Course 35 of the Seohaerang Trail traces its tidal flats, where rippling patterns spread across the mudflats like an abstract painting, guiding walkers forward at the pace of the gentle waves. The course begins at Dolmeori Beach, where a brightly painted rainbow bridge stretching toward the sea seems to invite you to keep walking. Passing Juppo Port, with its autumn fields of silver grass, you arrive at Hampyeong Haesujjim Village. Here, the family-run Hampyeong Juppo Haesu Yakjjim has been perfecting its traditional seawater steam baths for more than 200 years, using sulfur stones heated by wood fire to produce restorative steam. After easing both body and mind, the trail continues to Anak Beach. This area is known for the prized Sonbul mud octopus, famed for its firm, chewy texture, which can be enjoyed in nearby restaurants. By the time the sun dips low, you reach Hampyeong Port, just in time to witness the sunset. The sky, the tidal flats, and the sea turn red like glowing charcoal, while the silhouette of Chilsan Bridge shimmers in the distance, etching the mesmerizing sunset into memory.

Address Hampyeong-eup and Sonbul-myeon, Hampyeong-gun, Jeollanam-do **Contact** www.durunubi.kr



해거름 10월의 바다

가을바람 푸짐한 남도의 섬에
두 개의 소금 산과 소금 창고, 소금 삽과 소금 밭이 마주 섰다.

햇볕과 바람이 일군 바다의 결정. 농부는 뽕씨를 뿌려 쌀을 거두고,
염부는 바닷물을 넣어 소금을 얻는다.

2023년 10월, 전남 신안 증도

해거름 그림자가 사라진 토관 위로 소금이 고봉밥처럼 쌓였다.
레일 위에 나란한 하루의 수고.
2023년 10월, 전남 신안 증도



해가 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섬.
채비 마친 낚시꾼이 무대에 섰다. 대물을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들.

2020년 10월, 전남新安 만재도



인생 철학은 포크, 삶의 태도는 바느질

치앙마이 여행에서 시작된 바느질이 몸과 마음을
수선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됐다. 힘을 빼고
느긋하게 자기만의 언어로 실을 꿰어 옷을 짓고 수를
놓는다. 바느질로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죽음의 바느질 클럽'의 목태와 한군을 만났다.



바느질을 한다, 힘을 빼고. 힘들면 멈춘다.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하면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즐겁게
바느질하는 비법이다. 적당히 하고 멈추는 것, 더 하고 싶을 때
그만두는 것이 다음을 기대하게 만든다. 그렇게 과정을 즐기는 것,
우리는 이를 ‘치앙마이 정신’이라 부른다.

여행은 세상과 나의 접촉면을 넓혀 가는 과정이다. 떠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낯선 것을 발견하고, 알던 것도 새로운 프리즘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개인의 우주는 넓고 깊어지기에 우리는 여행을 소비가 아닌 경험으로 분류한다. 포크 밴드 '선과영' 멤버이자 부부인 복태와 한군은 2016년 태국 치앙마일로 여행을 떠났다. 대단한 기대나 거룩한 사명이 있었던 건 아니다. 추운 한국을 피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따뜻한 여름의 나라에서 겨울을 보낼 요량이었다. 그곳에서 복태가 '액'을 발견했다.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묘기에 가까운 바느질을 하는 아저씨. 한눈에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예상대로 액은 신기한 사람이었다.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대 난민촌에서 태국어를 가르치며 목숨 걸고 국경을 넘은 이들과 연대했다. 중국의 메콩강 유역 댐 건설을 반대하며 비영리 환경 단체에서 활동했고, 거대 기업에 맞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한 후에는 소수민족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 그때부터 그의 바느질 인생이 시작됐다. 복태가 액의 바느질에 반한 이유는 아마도 포크 음악과 통했기 때문일 거다.

세상을 잇고 사람을 연결하는 바느질

삼고초려 끝에 액은 복태의 바느질 스승이 되었다. 다

시는 치앙마이에 오지 않을 것처럼 복태가 분 단위로 짜 놓은 스케줄에 맞춰 관광하느라 지친 한군과 아이들에게 액은 선물 같았다. 복태가 바느질하는 동안 자유 시간이 생긴 것이다. 복태는 언제 어디서든 바느질을 했다.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멈추고 다시 이어 갔다. 아이러니하게 바느질이 복태에겐 완벽에 집착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삶을 유연하게 대하는 전환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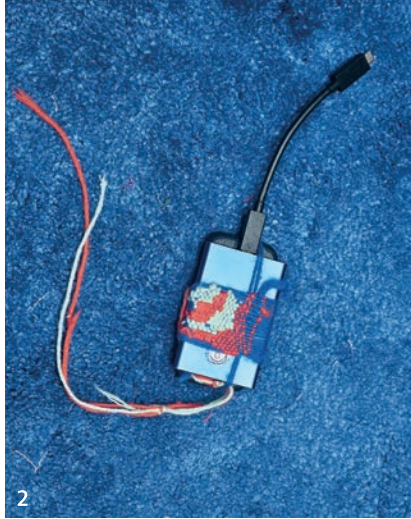
바느질 전도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알음알음 사람을 모아 2018년 가을 첫 바느질 워크숍을 열었다. 이름 없는 바느질 워크숍은 오전 11시에 시작해 밤 10시가 넘도록 계속됐다. 끝나면 모두 녹초가 됐다. 누군가 말했다. 이거 완전 '죽음의 바느질 클럽(죽바클)'이잖아! 그렇게 워크숍 이름이 지어졌다. 그때까지 바느질에 합류하지 않던 한군은 2019년 액의 재킷 자수를 보고 반해 바느질 세계에 발을 들였다.

바느질로 다양한 사람과 연결됐다. 환경을 생각하며 낡은 옷을 고쳐 입으려는 이, 자급자족의 삶을 추구하며 스스로 옷을 지어 입고자 하는 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이 등등. 요즘 복태는 재단하지 않아 자투리 천이 남지 않는 옷을 짓고, 한군은 바늘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수선하고 자수를 놓아 장식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수선하며 바느질로 사람들을 잇고 있다.





한군 액의 일상은 펍크예요. 보통 수선은 원래와 비슷하게 복원하거나 망가진 부위를 최대한 가리는데, 액은 완전히 튼는 원단과 바느질 기법을 써요. 의도를 물으면 “내가 했어. 완전 맛있지?” 하고 되물어요. 웃도 늘 작게 짓고요. 그러면서 다 주인이 나타날 거래요.



복태는 액의 철학자같은 생각에, 한군은 펑크에 가까운 액의 바느질 태도에 반한거였네요.

복태 한예종에서 연극학을 전공한 저는 습득해 온 예술의 정의가 있어요. 예술은 순수해야 하고, 쓸모없어야 해요. 그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철학적 의미를 찾아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일이 예술이죠. 그런데 바느질은 쓸모 그 자체예요. 그래서 바느질은 기술이라 여겼어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산업화된 사회에서 내 손으로 옷을 짓는 일보다 쓸모없는 일이 없어요. 나는 지금 예술을 하고 있는 게 맞아! 사서 고생하는 송고한 예술!

워크숍을 오픈하자마자 매진되는 ‘죽음의 바느질 클럽(죽바클)’의 인기 비결은 뭘까요?

복태 패턴이나 도안이 없어요. 옷을 짓거나 수리하고, 자수 놓는 기법을 알려 주면 각자 하고 싶은 걸 해요. 전통의 복은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요. 바느질을 잘못하면 뜯어야 하고, 전통을 지켜야 하기에 위계질서도 엄격하죠. 인기의 비결은 우리가 그 문턱을 낮췄기 때문일 거예요. 수업 2회 차면 옷 하나가 똑딱 완성돼요.

비닐봉지를 바느질로 멋들어지게 만든 한군의 작품을 봤어요. ‘이게 현대미술이지’ 하고 감탄했어요.

한군 2024년 ‘치앙마이 크래프트’ 때 처음 선보인 작업이에요. 전통적인 섬유공예 문법을 배우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음악을 매개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다면, 바느질을 매개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전통을 따르기보다 지속적으로 경계를 허물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었고요. 섬유가 아니더라도 바늘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수선했어요. 외장 하드에 옷을 만들어 입히기도 했죠. 더 이상 시도할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복태가 “비닐봉지에 해 보는 건 어때?” 하고 제안했어요. 치앙마이에 머물 때였는데, 비닐봉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닐의 물성이 상징하는 것을 바느질로 엮다 보니 스토리가 더 풍부해졌어요.

메시지까지 완벽하네요.

한군 수리·수선을 통해 다시 쓰는 자원 순환,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등 손바느질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키워드로 회자되기도 하는데, 모두 부수적인 효과예요. 각자의 미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발현하는 것, 그로 인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치앙마이 바느질의 핵심이에요.

음악과 바느질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요.

한군 전선을 연결해 소리를 만드는 ‘모듈러 신스’라는 악기가 있어요. 바느질이 실과 바늘이 원단과 만나 형태와 질감, 색깔을 만들어 낸다면, 모듈러 신스는 전선의 연결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소리의 조합에 따라 리듬이 바

뀌어요. 그 지점에 이르자 ‘나는 지금 소리를 바느질해 리듬을 엮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개념으로 전자 음악 앨범을 만들 생각이예요. 최근에는 구리 선으로 바느질을 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원단을 찾고 있어요. 구리로 바느질한 원단을 악기와 연결하고 터치하면 저의 생체 전류가 바느질 원단을 거쳐 악기에서 소리와 리듬이 되어나오는 거죠. 음악과 바느질의 경계가 없는 영역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예요.

두 사람의 삶을 보듬은 음악과 바느질 사이에 보완적인 관계가 있나요?

한군 음악은 나의 감각과 시간, 돈, 에너지 등 모든 것을 갈아 넣어 만들어요. 그런데 죽바클은 치앙마이 정신을 강조하잖아요. 쉬엄쉬엄, 천천히. 놀랍게도 선과영의 첫 번째 앨범 <밤과 낮>은 치앙마이 정신으로 만들었어요. 완벽한 지점은 없다. 애초에 완벽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미련이 남더라도 이것이 오늘의 최선이니 그냥 하자!

그렇게 만든 앨범이 2023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수상했잖아요.

복태 시상식 후보에 누가 올랐는지 봤는데, 우리 앨범이 최우수 포크 음반과 최우수 포크 노래 후보에 올라 있는 거예요. 올해의 음반상 후보를 발표했을 때는 뉴진스 옆에 있더라고요. 프로듀서 단편선도 “너희 왜 거기 있냐”고 농담할 정도였어요. **한군** 힘을 줘도 안 되던 일이 힘을 빼니 이뤄지다니! 주야장천 부르짖던 치앙마이 정신이 세상에 적용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선과영의 13년 음악 이야기와 치앙마이 정신이 만나 이뤄낸 결과예요.

세아이의 부모이기도 해요.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나요?

한군 어른이 돼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실천으로 보여 주고 싶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아이들에게 시시콜콜 얘기해 주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웃었다고, 행복을 나누고 아픔을 위로하는 거예요.

결국 행복에 관한 얘기군요.

복태 행복한 삶이 최고는 아니지만, 오늘 하루는 기뻛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다는 치앙마이 정신은 결국 나만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자는 의미예요. 타인이 배제된 내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이 더 강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복태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전주 갤러리 소안에서 전시를 해요. 한군이 만든 바늘집이랑 제가 카렌족의 직물로 만든 옷과 가방을 선보이는 자리예요. 전주에 오면 꼭 들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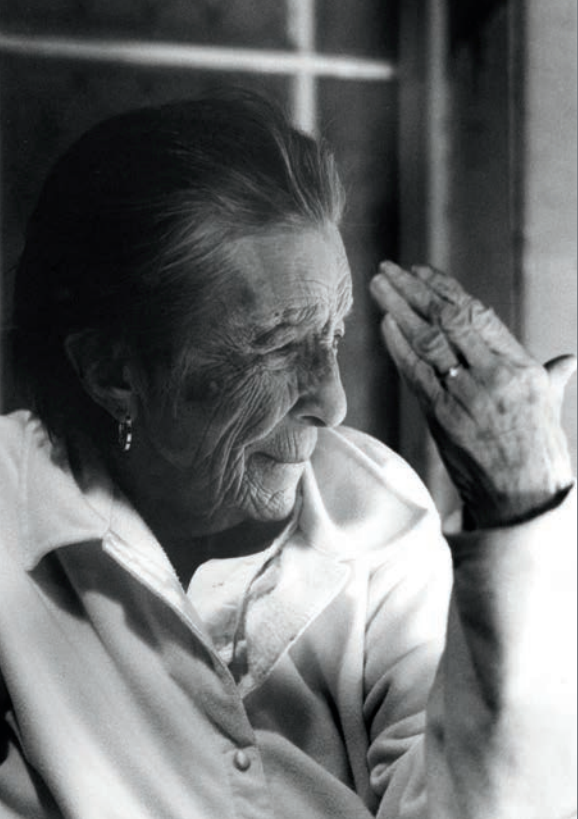
전시 보러 갑니다

WRITER 이미혜(미술 칼럼니스트, 독립 기획자) · PHOTOGRAPHER 서승이



백 년 동안의 고독

백 년의 고독한 운명을 타고난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는 9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술한 걸작을 남겼다. 영원히 기억될 이 만인의 예술가에게 예술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뉴욕자택에서 루이즈 부르주아(2003). 사진: 네다 램프렌코
© The Easton Foundation / Licensed by SACK, Korea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의 초상

“예술가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는다. 그는 순진하지 않으면서도 속박을 넘어서거나 떨쳐 낼 수 없는 아이로 남아 있다. 무의식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도 없다. 그것은 비극적 운명이다.” - 루이즈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종종 스스로를 ‘도망친 소녀(runway girl)’에 비유하곤 했다. 1938년에 그린 동명의 회화에서 긴 머리 소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바다를 건넌다. 프랑스에서 만난 미국인 미술 평론가와 결혼하며 뉴욕으로 이주한 부르주아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평생을 과거로부터 도망치듯 살았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작가로서 그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내일, 그리고 어제와 내일의 균형이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뿌리는 영원한 현재진행형의 과거로 늘 그를 따라다녔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편집증적 욕망, 성에 대한 양가적 감정, 격렬한 분노를 창작의 자양분으로 삼아 초현실적 작품으로 승화시킨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의 부모는 파리에서 테피스트리(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실내장식용 직물) 복원 작업실을 운영했다. 유복한 가정이었으나 외도를 일삼던 아버지에게 그는 심리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격렬한 반감은 아버지를 잡아먹는 상상을 시각화한 ‘아버지의 파괴’(1974-2017) 같은 작품으로 이어진다.

한편 보호자이자 친구였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



‘꽃’(2009). 사진: 크리스토퍼 버크
© The Easton Foundation / Licensed by SACK, Korea

1991년부터 부르주아가 선보인 ‘밀실’ 시리즈는 작가의 개인사뿐 아니라 건축적 요소와 경험의 만남이 있다. ‘밀실’(검은 날들)(2006).



두 개의 알루미늄 나선이 서로를 중심으로 삼고 회전하며 하나로 융합되어 가는 작품 ‘커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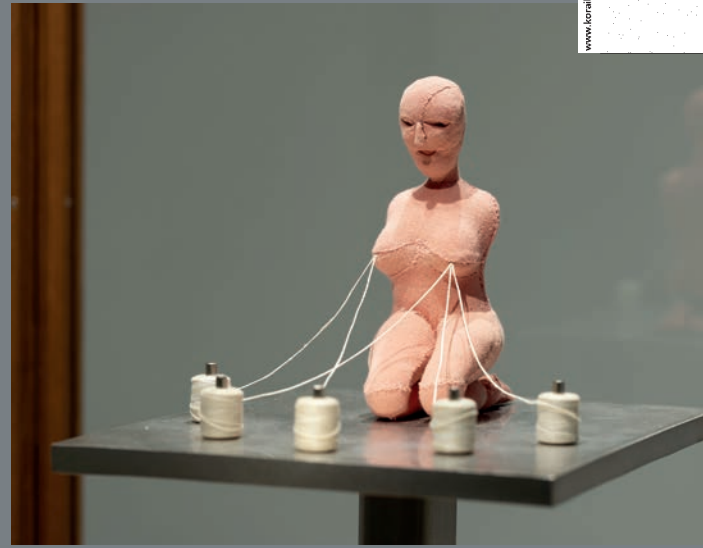
가족 관계 속 진밀함과 거리감을 탐구한 '붉은 방(부모)'(1994).
관람자는 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문들으로 안을 엿보게 되어 있다.



중영의 정동 조각 작품 '기슴과 칼날'(1991). 가까이 가서 보면 잔혹한 인형극 무대가 연출되는 붉은 색 홀로 그림자 작품들은 '무제'(1998-2014).

백 년의 고독한 운명을 타고난
부르주아는 긴 고독 속에서
걸작을 남겼다. 방대하고 다양한
이 작품들은 형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에게 예술은
생존과 치유의 도구였다.

테프스트리 복원 일을 하던 어머니에 대한 작가의 감정을
엿볼 수 있는 '붉은 엄마'(2003).



나 깊은 그리움을 남겼다. 부르주아에게 거미는 그런 어머니를 상징한다. 실과 직물에 둘러싸인 공방에서 자식들을 돌보던 가엾고 강인한 존재. 바느질하듯 자신의 찢어진 상처를 깎고 덧대는 그에게 예술은 심리적 복원의 한 형태다. 거미 모티프는 1940년대 목탄 드로잉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대형 조각상의 모습이 등장한 건 1990년대 이후다. 1982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첫 회고전이 열리기 전까지 부르주아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다. 당시는 마초의 시대였고, 미술 시장은 여성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없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수학과 기하학을 전공하고, 에콜 데 보자르와 몽마르트르 화가들의 작업실에서 미술 수업을 받은 그는 결혼 후에도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이어 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1973년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아예 집 거실과 다이닝 룸을 작업실로 바꾸고 작품 활동에 몰두했다. 그런 그가 작가로서 전성기를 맞이한 건 70대에 이르러서다. 부르주이가 여성 작가 최초로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1999년, 그의 나이는 81세였다.

기억과 무의식의 낮과 밤

〈루이즈 부르주아: 덧없고 영원한〉은 삼성문화재단 소장품 13점을 포함해 회화, 설치, 조각 등 11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엄마'만큼이나 눈에 익은 작품도 꽤 눈에 띈다. 불국사 백운교와 같은 아치형 돌계단으로 만든 호암미술관 입구 잔디 마당에 자리한 '아이 벤치

III'(1996~1997)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옥상정원에 있던 눈 모양의 화강석 벤치다. 미술관 중앙 홀에는 각자의 소용돌이 속에 갇힌 채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 나선형 알루미늄 조각 '커피'(2003)는 작가의 작업에서 중요한 주제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의 충동을 예고한다.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크게 질서와 의식을 상징하는 낮의 세계, 감정과 무의식을 상징하는 밤의 세계로 구분된다. 밝은 공간인 1층은 '도망친 소녀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을 선형적 서사로 풀어낸다. 실타래, 바늘, 천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과 붉은 과슈를 칠한 '꽃' 연작은 테프스트리 기술자였던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작품은 집과 하나가 된 여성을 그린 '잡-여자'(1946~1947), 그리고 거대한 새장 같은 설치 작업 '밀실(검은 날들)'(2006)이다. 불평등한 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나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예술가에게 집은 피난처이자 덮이고 안식처이자 감옥이었을 것이다.

번쩍이는 대형 거미 조각 '웅크린 거미'(2003)로 시작되는 2층은 보다 어둡고 파괴적이다. 거미 뒤로는 1978년 뉴욕 해밀턴 갤러리에서 진행한 퍼포먼스 '연회/신체 부위들의 패션쇼의 흑백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어딘가 망가지거나 사지가 절단된 봉제 인형이 여기저기 박제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는 홀로그램으로 재현한 핏빛 극장과 슬픈 지옥도가 펼쳐진다. 앞서 언급한 식욕의 저녁 식탁 '아버지의 파괴'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권위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아버지에게 대한 분노를 살육의 식탁으로 표현한 '아버지의 파괴' (1974).

이 김복은 무대 맞은편에는 '붉은 방(부모)'(1994)가 놓여 있다. 나무문짝들로 둘러싸인 이 방은 아이가 부모의 침실을 엿보듯 문틈과 방 안의 거울을 통해서만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방 중앙의 붉은 침대 위에는 실로폰과 장난감, 쿠션 같은 평범한 물건들이 놓여 있는데 어쩐지 평화로운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 불온하고 불길한 밤의 세계 끝에는 다시 환한 풍경이 나타난다. 전시의 마지막 장에서 만나게 되는 건 서로 뒤엎겨 마침내 하나가 된 은빛 소용돌이다.

찰나와 영원의, 덧없고 영원한

이번 전시는 루이즈 부르주아의 아시아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뉴욕 이스턴 재단과 협력해 기획했다. 개최 장소마다 전시 내용과 구성이 다르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낮이 밤을 침범했다, 밤이 낮을 침범했다, 일본 도쿄에서는 '나는 지옥에 갔다 왔다, 멋진 일이었다'로 제목도 달라졌다. 한국 전시명은 '덧없고 영원한'이다. 모두 작가가 생전에 쓴 글에서 차용했다. 오랜 시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부르주아는 수백 편의 정신분석에 관한 기록과 일기를 남겼다. 시적인 비유로 가득한 그 글귀들이 전시장 곳곳에 유령처럼 출몰한다.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개념 미술가 제니 홀저의 협업 작품도 이번 전시에 포함된다. 두 작가는 이전에 몇 차

레 전시를 함께 한 적이 있다. 거리의 표지판, 티셔츠, 프로젝션 등을 통해 공공의 언어를 탐구하고 전복해 온 홀저는 광범위한 글쓰기 관점에서 부르주아의 텍스트를 발췌해 공간에 투사한다. 때로는 버림받을까 두려운 아이의 투정 같고, 때로는 감성적인 속삭임 같고, 대개는 무시무시한 고통의 절규처럼 들리는 이 문구들에서 관객은 작가가 일생 동안 싸웠던 내면의 공포와 불안을 엿볼 수 있다.

"예술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 수 있다면, 만약 당신 안에 그것이 있다면 예술가가 되어 고통을 표현하라." 어쩌면 부르주아는 고통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누리기 위해 작업을 지속했는지 모른다.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소설 <백년의 고독>의 주인공들처럼 말이다. 백 년의 고독한 운명을 타고난 부르주아는 기나긴 고독 속에서 술한 걸작을 남겼다. 방대하고 다양한 이 작품들은 형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에게 예술은 생존과 치유의 도구였다. 인생에서 한 번쯤 어떤 대상을 열렬히 사랑하고 증오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 그의 감정을 이해할 것이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반복되는 덧없는 열정.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계속된다. 물들어 가는 가을, 부르주아의 붉은 정원에서 당신의 내면세계를 탐험하라.

부르주아의 어록을 발췌한 제니 홀저(Jenny Holzer)의 프로젝션 작업과 공중에 매달린 '히스테리의 아이' (1993).



예술가의 디저트

호암미술관에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다. <루이즈 부르주아: 덧없고 영원한> 전시 개막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호암 카페'는 이번 전시를 기념해 거미 모양을 새긴 '마방' 케이크를 선보인다. 맛은 바닐라 헤이즐넛 무스와 초콜릿 테킬라 무스 두 가지. 호암 로고로 라테 아트를 꾸민 음료와 공작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시그너처 구움과자 '모나카 플로랑틴'도 판매한다. 꽃나물 육전 비빔밥, 한우 떡갈비 같은 식사 메뉴도 있다. 낙우송 숲길 아래 동굴처럼 이어진 감각적인 공간 또한 그냥 지나치기엔 아쉽다. 공간 설계는 2023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한 김남건축이 맡았다. 자연과 전통, 현대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정원 '희원'과 함께 산책길에 꼭 들러볼 것.



호암미술관의 가을 풍경과 새로 생긴 '호암 카페'의 거미 모양 디저트 '마방' 케이크. © 호암미술관

기억의 창고, 배다리를 거닐다



인천에서 사라져 가는 원도심의 풍경을 기록하는 작은비 작가를 따라 동인천 배다리를 걸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풍경의 연속이다.





나고자란 동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 짝은비 작가가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랬다. 인천 토박이인 그는 유년 시절을 보낸 학익동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록을 시작했다. 하굣길에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을 되살려 잊힐 뻔한 동네의 풍경을 사진과 영상에 담았다. 더 많은 이와 추억을 나누고자 '학익동지킴이'라는 이름의 SNS 계정도 만들었다. 그곳엔 인천의 재개발 구역과 빈집 등지를 포착한 학익동에 관한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사라져 가는 풍경에 주목하는 짝은비 작가를 따라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동인천 배다리를 거닐었다.

오래된 동네를 여행하는 법

서울역에서 한 시간쯤 걸리는 동인천의 한적한 마을, 배다리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 있다. 이곳의 첫 번째 목적지는 조흥상회 건물. 허름한 외관과 명조체로 둘러쓴 간판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느껴진다. 1948년 12월, 미군 노브 파에가 촬영한 배다리 시장 사진에는 '조흥상회'라 적힌 간판과 그 앞에 늘어선 좌판, 분주히 오가는 상인들의 모습이 또렷하다. 한때 인천에서 가장 북적이던 시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조흥상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다.

조흥상회를 끼고 돌면 현책방 거리 초입에서 서점 건물에 부착된 지도가 눈길을 끈다. 바로 짝은비 작가의 작품 '나의 사적인 배다리 지도'다. 어린 시절부터 드나든 배다리에 대한 기억을 모아 만든 것으로, 금곡살상회 간판과 옛 우물터, 색이 바랜 맨홀 등을 찍은 사진을 배다리 지도 위에 붙였다. 바로 옆에 전시된 또 다른 작품 '배다리 도시화석 보고서'는 오래된 표식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아 완성했다. "배다리에는 옛 도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도시화석'이 많이 남아 있어요. 대문 앞표찰, 보안등 표식, 맨홀 휘장 등으로 설치 연도를 추정하면서 도시의 역사를 천천히 알아 가는 거죠." 동네를 걸으며 도시화석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너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작가의 시선을 통해 익숙한 동네를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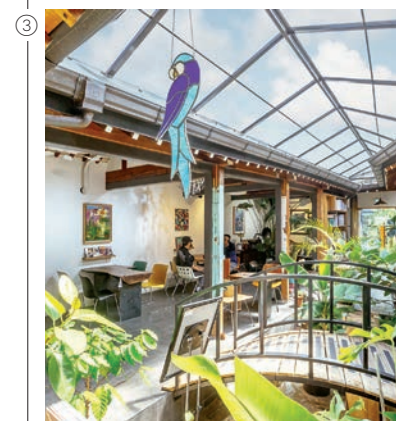
1 짝은비 작가가 알려 주는 배다리 관람 포인트



조흥상회 배다리 마을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에요. 한때는 배다리 안내소와 책방 나비날다가 자리했지만, 현재는 국가유산 등록을 앞두고 국가유산청이 내부 복원 작업을 진행중이라 비어 있어요.



배다리 현책방 거리 초입의 대창서림을 시작으로 집현전, 아벨서점, 한미서점, 삼성서림까지 현책방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책값이 궁금하다면 밀면에 적힌 가격을 살짝 확인해 보세요.



배다리 여인숙 골목 빨래터 카페 옆 작은 미술관 2층에 오르면 평소 보기 힘든 상량문이 있어요. 그곳엔 건물을 지은 연도가 적혀 있죠.



QR코드에 접속해 짝은비 작가의 '나의 사적인 배다리 지도'를 들여다보세요.

1 아벨서점이 한미서점 옆으로 이전하며 비어 있던 자리에 짝은비 작가의 작품 '나의 사적인 배다리 지도'가 자리하고 있다. 지도 위 오래된 표식을 한데 모아 보니 동네에 깃든 세월이 느껴진다.
2 1973년부터 현재까지 배다리 마을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아벨서점.
3 골목 깊숙한 곳에서 '진도 여인숙'이라 적힌 간판이 여행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4 짝은비 작가가 배다리 현책방의 매력을 정리한 기록물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이 전시된 장소는 작가에게 특별하다. “원래 아벨서점이 있던 자리예요. 어릴 때 엄마 손 잡고 동화책을 보러 오던, 제겐 추억이 서린 곳이지요.” 지난해 아벨서점이 한미서점 옆으로 이전하면서 쓰임을 잃은 공간은 작가의 손길이 닿아 따스한 온기로 채워졌다. 그의 지도가 배다리를 찾는 여행객을 골목 구석구석으로 안내한다.

새로운 쓰임을 찾은 배다리 공간

배다리에 발길을 붙드는 장면이 곳곳에 숨어 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건물 안쪽으로 발을 들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한책방 거리를 걷다가 아치형 입구가 인상적인 골목 깊은 곳에서 ‘진도 여인숙’이라 적힌 간판을 발견한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인숙이 아닌 미술관이다. 전시, 강연, 영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을 지나 건너편 문으로 나가면 산불 피해묵으로 만든 설치 작품 ‘숲의 정령’이 전시된 작은 정원을 마주하고, 발길은 자연스레 카페로 이어진다. 이 미로 같은 구조에는 사연이 있다. 2020년 동구청이 진도 여인숙과 성진 여인숙, 길조 여인숙 부지를 매입해 각각 미술관, 정원, 카페로 리모델링하면서 세 여인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것이다. 특히 길조 여인숙은 원래 ‘길조 카페’로 이름 지을 예정이었으나, 공사 중 1920년대 빨래터가 발견되면서 상호를 ‘빨래터 카페’로 바꿨다. 카페 내부에 전시된 자료들은 과거 이곳에 빨래터가 있었음을 생생히 증언한다. 골목을 빠져나가던 중 작은 비자가 “다음은 로봇이 서 있는 곳이에요”라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거대한 강통 로봇이 위병처럼 서 있는 건물 벽면에는 한자로 ‘仁川釀造株式會社(인천양조주식회사)’라고 새긴 세로형 간판이 자리한다. 한때 인천의 대표 막걸리인 소성주를 빚는 양조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전시와 공연 등이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 ‘스페이스빔’으로 변모했다. 2층 높이의 탁 트인 공간에는 ‘품질 향상’ ‘안전 주의’ 같은 옛 간판과 발효실, 시험실, 숙성실 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미로처럼 얽힌 스페이스빔을 탐험한 뒤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긴다. 머릿돌에 ‘1973. 10. 25’라고 또렷이 새겨진 이 건물은 ‘문화상점 동성한의원’. 50년 동안 자리를 지켜 온 동성한의원 간판 옆엔 ‘문화상점’ 간판이 나란히 놓여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한 지붕 아래 책방, 뜨개 공방, 제로 웨이트숍 등 다섯 가게가 모여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무인 운영이라 부담 없이 여유롭게 둘러보기 좋다. 안쪽에 놓인 긴 테이블과 넉넉한 의자들이 언제든 편히 쉬어도 좋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근대건축물을 관찰하는 세 가지 방법

문화상점 동성한의원을 지나 창영동 거리를 걷다 보면 의외의 장소에서 근대 건축물을 마주한다. 창영초등학교 구 교사와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인천 구 여성교사 합숙소가 그 주인공이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창영초등학교 구 교사. 교문을 지나 언덕을 오르니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④ **스페이스빔** 정해진 동선은 없어요 미로 같은 공간을 탐험하다 보면 과거 양조장의 흔적을 이곳저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끔 재미난 행사도 열리니 미리 일정을 확인해 보고 가면 더 알찬 투어가 될 거예요.



⑤ **문화상점 동성한의원**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이곳을 지나칠 수 없을 거예요. 책방 주인 대신 반달이가 손님들 반기는 무인 공간입니다. 한쪽 벽면이 고양이 관련 책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⑥ **창영초등학교 구 교사**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이자 인천 3·1운동 발상지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건물이에요. 외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시멘트로 덮은 흔적이 보이는데, 6·25전쟁 당시 생긴 탄흔을 메운 자리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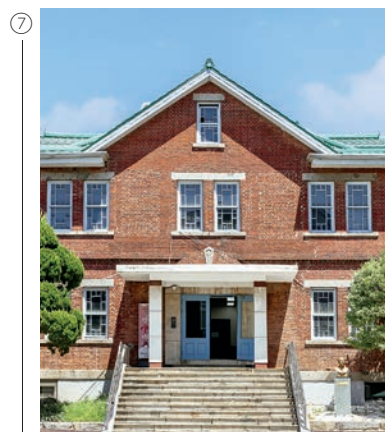


1 스페이스빔 1층은 양조장이던 시절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었으나, 전시 공간으로 개조하면서 벽을 세워 건물 안에 한옥을 품게 되었다. 2 아치형 창문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창영초등학교 구 교사. 외벽에 6·25전쟁 당시 생긴 탄흔을 메운 자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3 문화상점 동성한의원 내에 들어선 제로 웨이트숍 ‘슬로슬로’에서는 코코넛 화분, 코끼리 동으로 만든 노트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한다.





1 4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는 패치워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지역 축제를 열어 낯선 여행객들을 배다리로 안내한다.
2 세모난 지붕에 동그란 창문, 붉은 벽돌 굴뚝까지 독특한 외관의 인천 구 여선교사 합숙소는 동화 속 집을 떠올리게 한다.
3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창문 아래 톱니 모양 벽돌들은 장식용이면서 빗물을 막아 주기도 한다.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선교를 목적으로 신식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에요. 근대건축물 대부분은 내부 출입 금지지만, 이곳은 지금도 학생들의 예체능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인천 구 여선교사 합숙소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의 건물로 과거 여선교사의 합숙소였어요. 용자살과 교살을 혼용한 창호도 이색적이에요. 1993년에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죠.



패치워크 1층 동양가배관에서 배다리 헌책방에서 영감을 받은 원두 '고서'를 맛볼 수 있어요. 오래된 종이에서 풍기는 향이 짙게 올라오죠. 배다리의 매력을 담은 굿즈를 소장하고 싶다면 2층 패치워크 스테이션에 둘러보세요.

“창영초등학교 구 교사에는 작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창문을 여닫는 방식이 특이하죠. ‘오르내리창’이라고, 옛날 도르래를 올리는 원리처럼 위아래로 맞물린 창두개를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창문을 여닫는 장면을 상상에 맡긴 채 바로 옆에 자리한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으로 향한다. 민트색 지붕과 새파란 정문이 인상적인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에서 주목할 부분은 벽돌이다. “벽돌을 가로와 세로로 번갈아 쌓은 게 보이죠? 오래된 근대건축물에서 자주 쓰던 방식으로, 벽돌을 이렇게 쌓으면 건물이 튼튼하다고 해요.” 건물을 빙 둘러보다 보니 창문 아래 톱니처럼 툭 튀어나온 벽돌이 유독 눈에 들어온다. 건물의 장식적 요소이자 빗물이 벽을 타고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저마다 다른 쌓기 방식에서 옛 선교사들의 지혜가 엿보인다.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골목을 누비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목적지인 인천 구 여선교사 합숙소에 닿는다. 세모난 지붕과 둥근 창, 붉은 벽돌 굴뚝, 아담한 정원까지, 독특한 외관의 이 건물은 소설 <빨간 머리 앤>에 등장하는 초록 지붕 집을 닮았다. 출입문 위에 가로로 길게 짜 넣은 채광창도 아름답다. 촘촘한 별 모양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장식이 독특하네, 햇빛이 이 창을 통과하면 건물 안에 무수한 별 그림자가 만들어질 테다.

창영초등학교 구 교사,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인천 구 여선교사 합숙소, 세 건물은 멀리서 보면 얼핏 닮은 것 같지만 꼭을비 작가가 건넌 돋보기로 창문, 벽돌, 문양을 하나하나 세심히 관찰하니 건물마다 다른 표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근대건축물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새로워진 기분이다.

배다리의 새로운 미래

100여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배다리에 새로운 바람이 분 건 2021년, 젊은 문화기획자와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다. 그 중심에 패치워크가 있다. 동인천역과 도원역 사이 금곡동에 자리한 패치워크는 배다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로컬 크리에이티브 기획사다.

여행객의 발길을 배다리로 이끈 것은 김해리 패치워크 대표가 2023년 개최한 ‘언노운 북 페스티벌’이었다. 책을 매개로 배다리 헌책방 거리를 여행하는 콘셉트, 헌책방 운영자가 주인공이자 안내자로 축제를 이끌었다. “처음 이 축제를 만들 때 헌책방 주인 한 분 한 분을 만나 청해 들은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드렸어요. 그 마음이 그분들에게도 닿았는지 기꺼이 축제에 함께해 주셨죠. 언노운 북 페스티벌은 책방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 온 주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축제를 찾은 사람들은 헌책방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낯선 헌책방의 매력을 알아 가고, 꼭을비 작가를 따라 마을을 탐방하며 배다리의 숨은 이야기를 발견하기도 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다리를 경험한 이들은 이제 이곳을 ‘영똥하고 재미있는 일을 벌이는 동네’로 기억한다. 패치워크의 활동을 통해 원도심의 내일을 그려 본다. 지역의 유산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들의 애뜻한 마음이 있어 배다리의 시간은 여전히 흐른다.

가을 정취 품은 해남 오감 여행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보며 오시아노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닭 코스 요리로 배를 든든히 채운다.
눈과 입이 즐거운 전남 해남 여행을 제안한다.



바다 전망 완벽한 오시아노 캠핑장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오시아노관광단지 내에 자리한 오시아노 캠핑장은 위치와 규모, 시설이 단연 국내 최고 수준이다. 넓은 부지에 5개의 캠핑장과 데크 존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 잔디 광장과 야외 공연장, 레이스 카트나 ATV를 즐길 수 있는 레저 체험장도 조성되어 있다. 캠핑장 사이트는 파쇄석, 잔디, 데크 종류로 구성되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캠핑장이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자리해 수영이나 모래놀이, 산책 등을 즐기기가 좋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하기 그만이다. 게잡이 체험, 낚시 체험과 함께 썰물 때는 갯벌에서 고동 잡기 체험도 가능하다. 캠핑장 내부에는 바닥 분수, 커튼 분수, 안개 분수 등 시원한 분수 시설도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 공연과 이벤트도 열린다.

주소 전남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376-1



2025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일원에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25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가 열린다. 캠핑 트렌드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캠핑 박람회다. 캠핑 푸드관, 로컬 푸드관, 국제관 등 테마별 특별 전시관을 마련하고, 캠핑용품 DIY, 바비큐 체험, 밀키트 체험, 농활 체험, 세계 캠핑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박람회는 친환경적 공간배치 및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캠핑 문화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가을 캠핑의 낭만을 더해 줄 뮤직 페스타와 불꽃 축제도 열린다.



한국 차 문화의 성지, 두륜산 대흥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흥사는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해지면서 조선 불교의 중심 도량이 되었다. 풍담 스님부터 초의 스님까지 13명의 대종사와 만화 스님부터 범해 스님까지 13명의 대강사를 배출한 사찰이다. 대흥사 가는 길에서 여행자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십리숲길, 울창한 대숲과 계곡을 지나 일주문에 들어서면 대흥사가 얼마나 유서 깊은 사찰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도전이 나온다. 초의선사 부도인 초의탑과 서산대사탑 등 50여 기의 승탑과 14기의 비석이 있는데, 대흥사는 한국 사찰 중 승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또 대흥사는 차에 부처의 진리와 명상의 기쁨이 녹아 있다고 생각한 초의선사와도 인연이 깊다. 초의선사는 대흥사 계곡에 일지암을 짓고 40여 년 동안 홀로 수행에 전념했는데, 이로 인해 대흥사는 우리나라 차 문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연유로 대흥사에는 초의선사상이 있고 해마다 이곳에서 초의문화제를 연다. 초의선사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무염지를 지나 아름다운 곡선의 가हरु문 지방을 넘으면 1000명의 부처를 모신 천불전이 나온다. 대웅전 가는 길에는 수령 800년의 연리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두 그루의 느티나무 뿌리가 합쳐진 연리근에 소원을 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진리를 찾아 건너는 다리'라는 뜻의 심진교를 건너면 대웅보전에 이른다. 대흥사에는 국보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을 비롯해 서산대사 유물관에 선조의 하사품인 옥발, 비취옥발과 서산대사의 친필, 교자, 신발 그리고 금과 은으로 쓴 불경 등 총 24종의 유물이 있다.



해남의 자연과 문화 담은 체험형 숙소 호텔 울돌소리

올해 10월 호텔 울돌소리가 문을 연다. 해남을 대표하는 역사적 장소인 우수영국민관광지에 들어서는 호텔은 아름다운 남해를 배경으로 자연환경, 지역 문화, 액티비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테마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숙박 시설이자 체험을 테마로 하는 관광 플랫폼인 것. 지역 문화 생산자인 주민, 문화 소비자인 관광객,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지역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소통하는 지역 연계 서비스형 호텔이다. 객실은 총 32개. 슈페리어 더블, 패밀리 스위트, 핸드캡 더블(장애인실) 등 6개 타입으로 구성되었다. 전면 통유리로 마감해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레스토랑 '라운지 1597'에선 해남의 청정 자연에서 얻은 제철 식재료로 차린 조식을 즐길 수 있다. 프라이빗한 분위기에서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는 스파와 최신 IT 장비와 회의 지원 서비스를 갖춘 비즈니스 센터도 마련했다. 해남의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로컬 숍도 들어섰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쇼핑을 즐기는 것도 좋겠다. 호텔 울돌소리 주변에는 울돌목을 바라보는 해안길과 우수영관광지를 둘러싼 청룡산 둘레길이 있어 여유롭게 머무르며 해남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좋다.

주소 전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12-36 문의 061-880-7500

명량대첩 승리의 현장, 해남 우수영국민관광지

해남군 북평면과 진도군 군내면 사이 진도와 해남을 가르는 좁은 해협, 울돌목(명량)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방향을 바꾸며 거칠게 요동친다. 유속이 11.6노트, 시속 약 24킬로미터에 이르는 울돌목은 1597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역사적 현장이다. 불과 13척의 배로 왜군의 133척을 막아 낸 명량대첩. 그 위대한 업적과 생생한 감동이 우수영국민관광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여행의 시작점은 명량대첩해전사 기념전시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시관은 크게 진압부인 웰컴 존과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 영상실, 옥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옥선과 거북선 모형을 비롯해 명량대첩 당시 사용했던 무기와 병사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전시를 보다 보면,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민초들의 힘이 이끈 승리의 그날이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진다.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울돌목의 위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울돌목 스카이워크로 향하자. 진도대교 끝, 판옥선 모형과 거대한 돛이 설치되어 있고, 총길이 110미터, 주탑 높이 25미터의 스카이워크가 자리한다. 한반도를 형상화해 8자 모양으로 만든 스카이워크 위를 걸으면 발아래로 휘몰아치는 울돌목이 내려다보인다. 새의 시선으로 울돌목을 보는 방법도 있다.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는 것. 울돌목 해협을 가로질러 해남과 진도를 잇는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는데,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울돌목의 위세는 상상 그 이상이다. 진도대교가 시야에서 차츰 멀어지는 사이 발아래로 펼쳐진 울돌목을 보면, 하얗게 거품을 일으키는 물살이 아찔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주소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21 문의 061-530-5541





해남의 대표 진미, 닭 코스 요리

해남에서 단 한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닭 코스 요리다. 시골에서 키운 토종닭 한 마리를 부위별로 다양하게 조리해 차례대로 내놓는다. 1970년대에 닭백숙을 팔던 작은 음식점에서 시작된 해남 닭 코스 요리는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지역의 대표 맛으로 자리 잡았다. 가장 먼저 나오는 메뉴는 닭 가슴살과 닭뿔집, 닭발을 잘게 다져 참기름 소금장을 곁들인 닭 육회. 육질이 단단하고 신선도가 워낙 뛰어나 뽀드득 소리가 날 만큼 맛있는 닭 요리다. 다음 코스는 바삭하게 구운 닭날개구이와 닭 발구이, 그리고 닭다리구이. 부드럽고 고소한 닭구이로 배를 조금 채우고 나면, 닭고기 살을 발라 매콤한 양념장에 재운 닭불고기가 나온다. 고슬고슬한 찰밥을 가슴에 품은 닭백숙이 뒤를 잇고, 속을 편안하게 해 주는 닭죽이 마지막을 장식한다. 오로지 닭 하나로 이렇게나 다채롭고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니, 해남의 닭 코스 요리는 두고두고 추억을 부르는 남도의 절대 진미다. 해남에서 닭 코스 요리를 가장 쉽게 즐기는 방법은 해남읍 연동리 일원의 닭요리촌을 찾아가는 것이다. 2008년에 조성된 닭요리촌에서 역사와 전통, 손맛을 자랑하는 닭 코스 요리 전문점들이 여행자의 발길을 이끈다. 해남의 더 풍성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삼산면 두륜산도립공원 잔디구장 일원에서 열리는 미남축제로 향하자. 보리밥, 산채정식, 떡갈비, 닭 코스 요리, 삼치회, 생고기, 황칠오리백숙, 한정식 등 해남 8미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 고구마 가래떡구이, 막걸리만들기 등 체험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해남의 맛에 물들다 해남미남축제

2025. 10. 31. FRI - 11. 2. SUN

두륜산도립공원 잔디구장 일원

515김치비빔 | 미남떡국나눔 | 밀키트체험존 | 해남밥상존 | 해남김치협
미남플리마켓 | 미남막걸리카테일 체험 | 미남그림그리기대회 등



해남미남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aenam.go.kr/tour



구례에서 유유자적

온전한 휴식이 필요해 찾은 전남
구례에서 여정을 마무리할 공간을
소개한다. 구례의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가는 방법 서울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구례구역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구례역제과점
내가 바란 건 다디단 밤파이



구례구역에 내려 구례교를 건너면 또 다른 기차역이 나타난다. 사라진 완행열차 비둘기호 콘셉트로 조성한 구례역제과점 내부는 기차 안 풍경과 닮았고, 경쾌한 음악으로 시작하는 안내 방송도 흘러나온다. 열차가 곧 출발하니 자리에 착석해 달라는 말 뒤에, 촬영 허가 구역이라 디지털 사진을 자유롭게 찍어도 된다는 재치 있는 멘트가 이어진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지리산을 품고 섬진강을 굽어보는 구례역 대합실에 도착하겠습니다.” 구례에 놀러 왔다가 지리산과 섬진강의 여유로운 풍경에 반해 정착한 이은하 대표는 특산품인 밤을 활용해 지역을 알리기 위한 빵을 개발했다. 고메 버터를 사용해 만든 바삭한 파이지에 지리산 호지차 크림블과 진한 밤 크림, 직접 졸여 만든 보니밤을 가득 넣은 밤 파이가 오랜 연구 끝에 탄생했다. 반달곰 모양 쿠키로 장식한 파르페도 사계절 메뉴로, 또 다른 특산품인 산수유 잼과 제철 과일을 넣어 만든다. 오직 디저트 하나를 맛보려고 여행하는 문화가 있듯, 밤 파이를 먹기 위해 구례로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이 대표의 바람이다.



주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 23 문의 061-783-2369

지리산오여사
장날에 만나는 생선가스 맛집



방어, 농어, 광어, 삼치 등 제철 자연산 생선을 튀겨 내는 생선가스는 이 집의 인기 메뉴다. 비린 맛 없이 담백할 뿐 아니라 카레 가루를 입혀 감칠맛을 더하고, 곁들여 내는 타르타르소스는 구례 라임과 매실을 넣어 입맛을 돋운다. 소스와 반찬을 포함해 모든 메뉴를 국산 재료와 천연 조미료로 직접 조리하는 게 원칙. 배우 임시완이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를 촬영할 당시 여러 번 들러 생선가스를 먹은 걸로 유명하다. 걸쭉하고 녹진한 국물이 매력적인 우리 들깨 칼국수도 추천할 만하다. 구례에서 자란 통밀로 만든 면과 식물성 재료만 사용해 채식주의자에게도 반가운 메뉴다. 전남 장성의 순수령, 전북 남원의 보름달 등 무척가 생막걸리도 판매하니 한잔 시원하게 들이켜 온몸의 긴장을 풀어도 좋다. ‘반달곰을 사랑하는 1%’ 가게 중 하나로, 수익의 1퍼센트는 반달곰을 위해 기부한다.

고차수
야생 차의 매력을 우리다



물을 끓여 찻잔을 데우고, 우린 차를 잔에 담아내는 동안 찻집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지리산 야생 찻잎을 재배해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햇볕에 말리는 구중구포 제다법을 고수하는 고차수의 공정은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공현식 대표는 화암사의 제다사였던 어머니에게 전통 제다 방식을 배워 20여 년 동안 차를 뒤엎고, 맛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정 하나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다. “차는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라 몸에 들이는 거예요. 차의 냉성을 잘 다스려야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이가영 공동대표가 기획한 프로그램 ‘차를 탐내는 나그네여!’가 열려 한국 차의 세계를 알린다.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자라 맛의 균형이 뛰어난 피아골 작설차, 차나무가 바위틈을 따라 뿌리 내리며 자생해 바위에서 스며 나오는 성분이 풍미를 더한 홍류동 작설차 등을 자연 속에서 경험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구례 읍내에 있던 소품 가게 바꿈살이가 확장 이전한 곳은 옛 문척우체국 건물. 언뜻 보면 하얀 우체국 건물인가 싶지만, 문을 여니 치앙마이가 연상되는 이국적인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계산대 옆에 놓인 우체국장 명패와 벽에 걸린 옛 우체국 사진이 지난 시간을 짐작케 한다. 구례로 귀촌하기 전 정검지 대표는 출근하지 않는 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나만의 공간을 취향껏 꾸미는 일이 휴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테리어의 즐거움을 아는 그가 제품을 들이는 기준은 세 가지. 플라스틱이 아닌 도자기, 유리, 나무 소재 제품에 손님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구매할 만한 부담 없는 가격대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가게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제외한다. 눈이 편안해지는 나무 인테리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은은한 인센스 향, 꼬리를 살랑거리며 인사를 건네는 고양이 백설과 둥이 덕에 구례를 다시 찾을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다.



바꿈살이

우체국에서 인테리어 소품 가게로

주소전남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로 85 문의 0507-1400-1477



느리지만 건강한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카페. 아버지가 재배한 밀을 아들이 제분해 사용하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부재료로 활용한다. 밀밭 길로 향하는 사람을 묘사한 시 '나그네'를 지은 박목월 시인의 이름을 빌려 상호를 지었다. 메뉴가 80종이 넘어 고민된다면 구례 두부 긴빵, 구례 쑥부쟁이 치아바타, 구례 곱감 크림치즈 빵 등 지역명이 들어간 빵을 고르거나 산동면에서 재배한 팥을 직접 끓여 넣은 대표 메뉴 목월팥빵을 선택해도 좋다. 쫄깃한 빵피에 상큼한 과육이 씹히는 복숭아 크림치즈 빵도 인기가 높다. 특색 있는 음료를 찾는다면 참깨 크림을 올려 고소한 방앗간 라테, 오이를 넣어 청량한 모히토를 추천한다. 가까이에서 개울이 흐르는 야외 테라스, 빈티지한 분위기의 1층,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민 2층 등 색감과 구성이 다채로운 공간으로 이루어져 가게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주소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 46 문의 061-782-3820



이름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위치한 섬진강책사랑방은 20만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손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곳곳에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했다. 김종훈 대표는 학창 시절 헌책방을 드나들며 지식을 얻고 세상을 배웠기에 중고 서적에 대한 애정이 많다.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42년간 헌책방 대우서점을 운영했고, 구례에서 새로 터를 잡은 지 올해로 5년이 되었다. 모델을 개조해 만든 3층 건물의 책방 1층에는 아내 박선희 대표가 운영하는 북 카페 선이 자리한다. 상큼한 산수유 차 한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책장에 꽂힌 각 분야의 책 제목만 훑어도 재밌을 테다. 이곳에서 구례 출신 정지아 작가의 북 토크가 열렸고 지금도 시인, 사진가, 물리학자 등이 강의를 이어 나간다. “저녁에 천문학 강의를 진행하니 시간 되면 오세요.” 따스한 정까지 느껴지는 이곳은 사랑방이 틀림없다.

머밀빵이

밀밭이 더 어찌나 빵이

섬진강책사랑방

책방 지기의 오래된 보물 창고

천년 숨결이 깃든 미륵사지

익산 금마면, 해발고도 430미터 미륵산 남쪽 자락에 동양 최대 규모 사역인 익산 미륵사지가 자리한다. 동서로 172미터, 남북으로 148미터의 광활한 터에 석탑과 당간지주, 그리고 금당·승방·회랑 등의 건물을 짓는데 사용한 초석이 배치되어 있다. 동탑 내부에서 바라보는 미륵사지 석탑의 절경도 빼놓을 수 없다. 한없이 장엄해 보이던 석탑이 붉은 단풍으로 물든 미륵산에 둘러싸여 고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둠이 내려앉은 미륵사지는 낮과는 다른 고즈넉한 매력으로 여행객의 발걸음을 이끈다. 은은한 조명이 석탑을 비추고 수만 장의 돌이 빛에 반짝거리는 풍경은 올가을 미륵사지 야행에서만 즐길 수 있다.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7 문의 063-859-3873



4색(色) 이음 여행

전북이 역사 문화, 문화 예술, 향토 문화, 자연 휴양 네 가지 테마로 여행지를 발굴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설렘 가득한 풍경의 연속이다.



동화 같은 풍경 속으로 삼례책마을 그림책미술관

완주군 삼례책마을에 국내 유일한 그림책 특화 미술관이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1층 중앙에서 웃음 짓고 있는 빨간 열차를 시작으로 하늘을 나는 요정, 빗자루를 든 마녀, 계단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소년이 차례로 방문객을 반긴다. 모두 영국 작가 질만의 그림책 <요정과 마법 지팡이> 속 등장인물을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눈으로 인사하며 계단을 오르면 2층에서 상설전 <빅토리아시대 그림책 3대 거장>을 만난다. 그림책의 황금시대를 이끈 케이트 그린어웨이, 랜돌프 콜더컷, 월터 크레인의 그림책 원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밖에 인형극과 구연동화 프로그램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재미를 더한다.

주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48 문의 063-291-7821

제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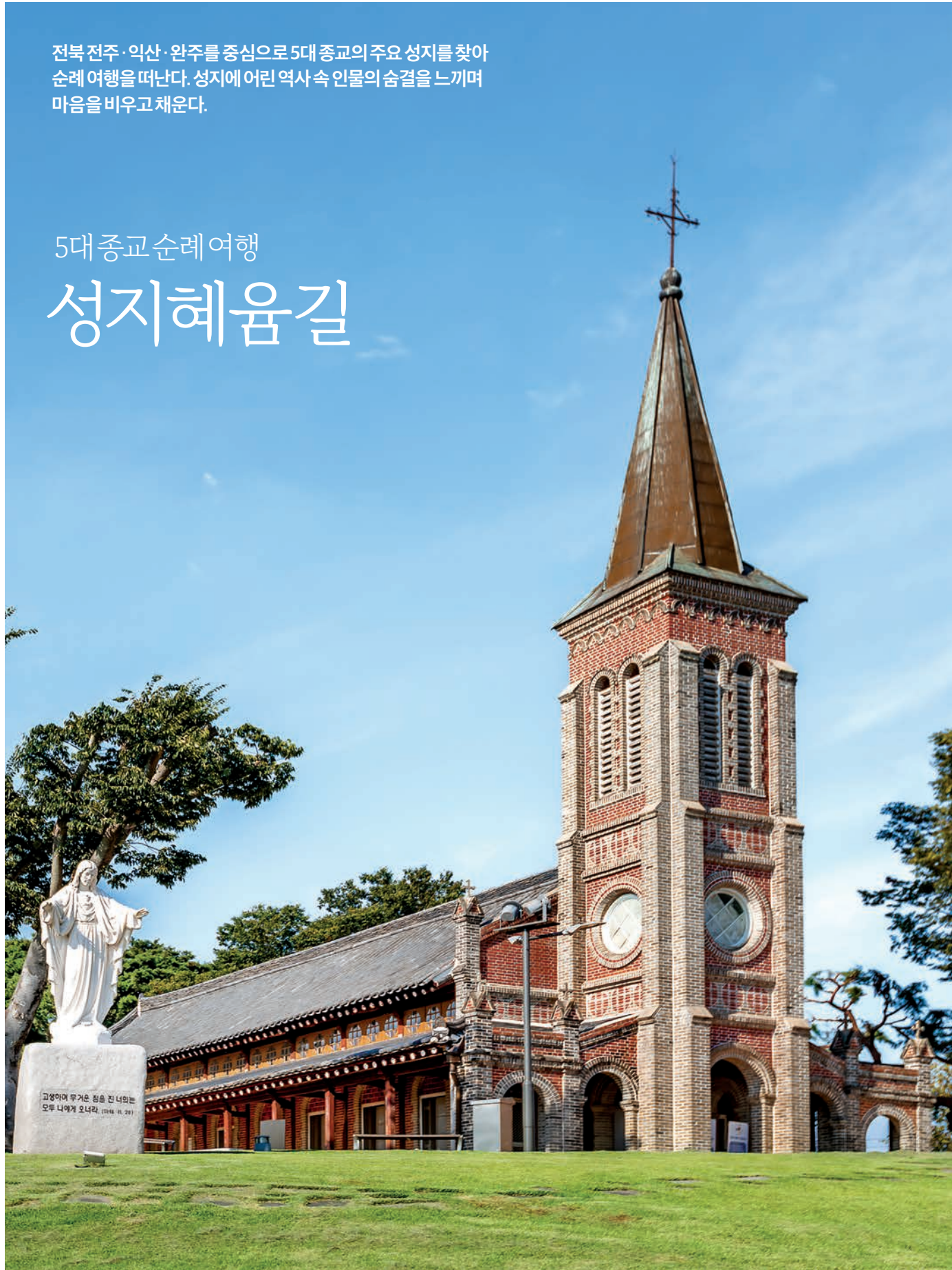
가을바람 따라

전북
전국
기
여행

전북 전주·익산·완주를 중심으로 5대 종교의 주요 성지를 찾아
순례 여행을 떠난다. 성지에 어린 역사 속 인물의 숨결을 느끼며
마음을 비우고 채운다.

5대 종교 순례 여행

성지혜움길



주요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길 146 문의 063-861-9210



1 나바위성당 내부
중앙엔 남녀 좌석을
구분하던 기둥이 남아
있다. 2 원불교 중앙총부
입구 앞 비석에 새겨진
'정신개벽'은 '과거의
부족한 나에게서
탈피해야 크게
변화한다'는 원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뜻한다.

동서양의 절묘한 조화

나바위성지

나지막한 화산(華山) 중턱에 자리한 나바위성지는 최초의 조선인 사제 김대건 신부가 한국 땅에 첫발을 내디딘 곳이다. 중국에서 11명의 신자를 태우고 출항한 라파엘호는 42일 동안 표류하다 너른 바위가 많은 이곳, 나바위에 상륙했다. 1907년 언덕 위에 세운 나바위성당은 본래 한옥 목조 양식으로 지었으나, 10년 뒤 증축 과정에서 흙벽을 서양식 벽돌로 바꾸고 입구에는 고딕식 종탑을 세워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 결과 서양식 성당 건축양식과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기법이 어우러진 독특한 건축미를 보여 준다.

성당 내부에도 현대건축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장면이 숨어 있다. 제대를 중심으로 중앙 통로 한가운데에 기둥이 남아 있는데, 이는 남녀 좌석을 구분하던 흔적이다. 금강 황산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본당 정면에는 마을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예수상이 서 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라는 말씀처럼 이곳에서만큼은 고단함을 내려놓고 깊은 평안에 이른다.

맑은 정신 어린 정원 원불교 중앙총부

원불교 교조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가 설립한 원불교 중앙총부에는 교단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건물 11곳이 자리한다. 원불교의 상징인 일원상을 봉안한 대각전을 비롯해 소태산 대종사가 제자와 이야기 나누며 설법하던 중법실, 대중 집회의 장인 공회당 등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8동이 대표적이다. 원불교 중앙총부는 교인들에게 성지 순례이지만, 역사 깊은 근대건축물과 아름다운 조경을 보기 위해 찾는 여행객도 많다. 정성껏 관리한 조경은 옛 목조 건물과 어우러져 한층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흰히 트인 길을 걷다 보면 저절로 정신이 맑아진다.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는 소태산 대종사의 유해를 모신 5층 성탑이 있다. 멋스러운 소나무 군락에 둘러싸인 성탑은 계단식으로 쌓은 기단 위에 연꽃 장식을 두르고 탑신을 올린 모습이 인상적이다. 술향 듬뿍 머금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2

주요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길 501 문의 063-850-3333





1

산중 천년 고찰 위봉사

완주 소양면 추출산 중턱에 천년 고찰 위봉사가 자리한다. '추출산위봉사'라 적힌 일주문을 지나면 익살스러운 표정의 사천왕상이 지키고 선 사천왕문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어 마지막 문루인 봉서루에 이른다. 봉서루 아래 돌계단에 붙어 있는 “말씀은 가만가만” “걸음은 조용조용”이란 글귀를 되뇌며 한 걸음씩 오르면 평탄한 법당 마당이 나온다. 마당 중앙에는 철갑을 두른 듯 기개 넘치는 소나무가 장엄하게 서 있고, 그 뒤로는 위봉사의 중심 법당인 보광명전을 비롯해 극락전과 나한전, 삼성각, 요사, 종각 등이 등직한 산세에 안긴 듯 배치되어 있다. 경건한 마음으로 보광명전에 들어서 합장 후 큰절을 올린다. 이마와 무릎이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진다. 세 번 절을 올리고 나니 법당을 오르며 가뻐던 숨이 잦아들고 세속의 번뇌가 씻겨 나가는 듯하다.



3

1 추출산 자락에 포근히 안겨 있는 위봉사 전경.
2 '추출산위봉사'라 적힌 일주문. 3 보광명전에서 큰절을 올리며 번뇌를 씻어 낸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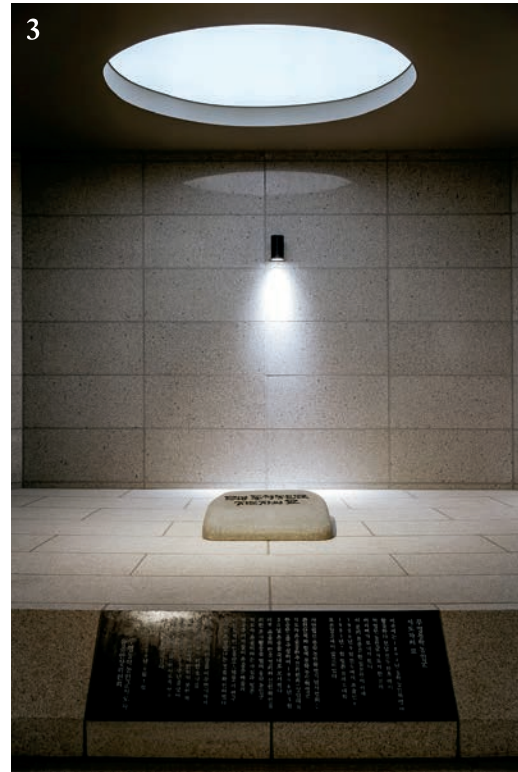
주소 전북 완주군 소양면 위봉길 53 문의 063-243-7657

130년 선교 역사의 보고

전주시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1894년 미국 남장로회에서 온 푸른 눈의 선교사 일곱 명이 전주를 찾았다. 그들은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전북 지역에 개신교의 뿌리를 내렸다. 이들의 공헌을 기리고자 2022년에 문을 연 전주시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은 전북 기독교 선교 130년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다. 2층에선 개신교 여성 운동가인 방애인, 걸인들의 성자라 불리는 이거두리 등 한국인 성도들의 삶을 각종 전시물과 애니메이션으로 생생하게 보여 준다. 3층 구바울 기념의학박물관에선 의료 선교와 복지를 실현한 예수병원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조명한다. 과거 선교사들이 서양에서 가져온 방광 내시경, 안과 수술 도구 등 호남 지역 최초의 근대 의료 유물도 볼 수 있다. 세월이 흐르며 낡고 해진 흔적이 역력하지만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떠올리면 자연스레 감사한 마음이 든다.

1, 2 3층 구바울 기념의학박물관에선 호남 지역 최초의 근대 의료 유물을 살펴볼 수 있다. 3 무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안치된 전주동학농민혁명녹두관. 4 박홍규의 작품 '후천개벽도' 속 사람들의 얼굴이 고대하던 세상을 마주한 듯 환하다.



3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안산동 신124-9 문의 063-281-2977



1

2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2 문의 063-230-8778

한국 근대 민주주의 성지 전주동학농민혁명녹두관

흰 무명 띠를 머리에 두르고 죽창을 든 군중이 전주성에 다다랐다. 이들은 동학농민군. 대표 전적지인 완산칠봉에 희생된 동학농민군을 기리는 전주동학농민혁명녹두관이 들어섰다. 전시관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박홍규 화백의 '후천개벽도'다. 밝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동학농민군의 염원을 담은 작품으로, 그림 속 사람들의 얼굴엔 바라던 세상을 마주한 듯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전시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표와 동학농민군의 바람을 담은 폐정개혁안 12개 조항 등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혁명의 발자취를 면면이 살필 수 있다. 전시관 중심에는 진도에서 처형된 무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1995년 일본에서 발견되어 이곳에 안장되기까지 겪었던 모진 세월을 떠올리면 절로 숙연해진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투쟁했던 수많은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게 된다.



4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을 뜻하는
순우리말 ‘시나브로’를 이름에 붙인 시나브로치유길.
완주와 진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며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시나브로 가벼워진다.

자연속 힐링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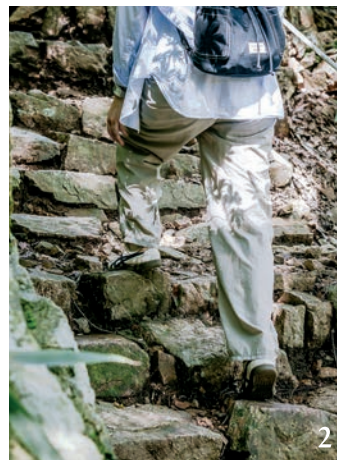
시나브로치유길



권영진 ©

1 마이산의 두 봉우리는 말의 귀를 닮았다. 2 운일암반일암 숲길을 걷다 보면 울창한 나무 사이로 용소바위, 대불바위 등 집채만 한 기암괴석을 만난다. 3 지상 80미터 높이의 구름다리에 서면 운일암반일암 계곡과 산의 절경이 한눈에 보인다.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마이산북부관광안내소)
주전면 동상주전로 1926(운일암반일암관광관리사무소)
문의 063-433-2652(마이산북부관광안내소),
063-430-8749(운일암반일암관광관리사무소)



2



1

기묘한 자연의 신비 진안고원길

점점산중 진안땅에 고원 위 마을과 고개를 잇는 도보 여행길, 진안고원길이 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그림 같은 풍광을 보고 싶다면 1구간 마이산으로 향하자.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만나는 곳에 20미터 간격으로 솟은 마이산의 두 봉우리는 그 자체가 말의 귀를 닮아 마이봉이라 부른다. 마이산에는 금색 기와가 인상적인 금당사, 태조가 백일기도를 올린 은수사, 강한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80여 개의 돌탑을 거느린 탑사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마이산 탐방을 마치고 자연의 장엄함을 느끼고 싶어 9구간 운일암반일암 숲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름에 얽힌 전설에 따르면, 깎아지른 절벽에서 하늘과 돌, 나무와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 운일암, 하루 중 반나절밖에 해를 볼 수 없어 반일암이라 불렸다. 하이лай트는 계곡과 산의 절경이 한눈에 담기는 지상 80미터 높이의 구름다리다. 겹겹이 쌓인 산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계곡물과 기묘한 암석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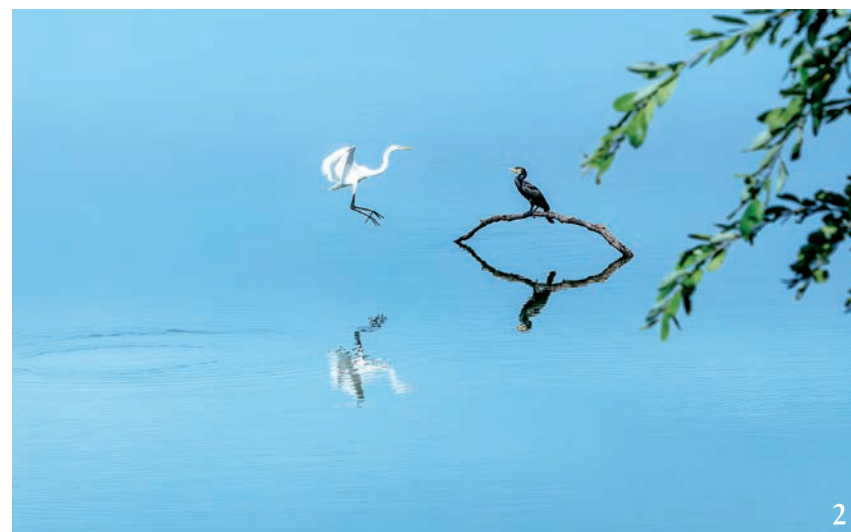
1

생명의 숨결이 깃든 구이저수지 둘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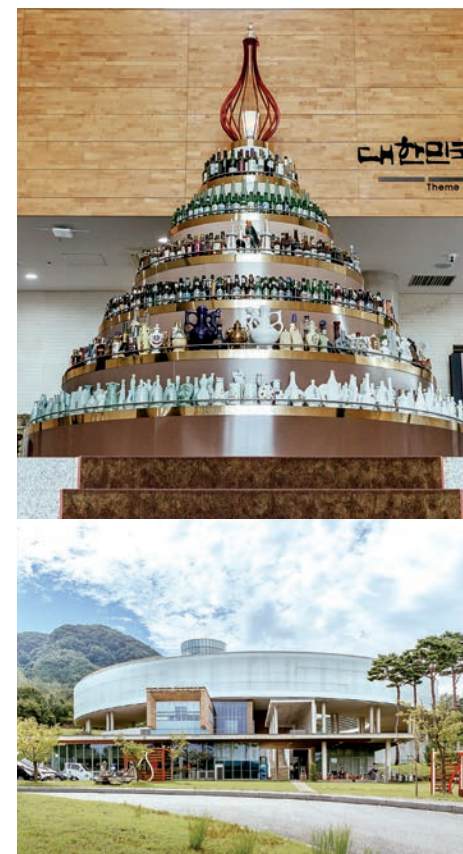
모악산과 경각산 사이, 두 산의 물이 모여드는 곳에 구이저수지가 자리한다. 저수지를 따라 조성한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약 8.8킬로미터로 너른 저수지의 풍광과 모악산의 웅장한 산세를 조망할 수 있다. 이 중 1구간은 경관교량에서 출발해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약 3.3킬로미터의 트레킹 코스로 1시간 정도 걸린다. 수변 데크와 흙길 등 다양한 형태의 길이 번갈아 이어져 지루할 틈이 없고, 걷는 동안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소리가 즐거움을 더한다. 발밑에서 마른 비자나무 열매가 부서지는 경쾌한 소리와 가만가만 스며드는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져 교향곡을 완성한다. 민물가마우지가 저수지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며 파동을 일으키고, 동그란 물결이 이내 고요히 가라앉는 풍경은 마음 속에 잔잔한 위안을 준다.

주소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거리 산87-1(구간) 문의 063-290-3596

1너른 저수지 풍광과 모악산의 웅장한 산세가 눈도 마음도 시원하게 만든다.
2 구이저수지에는 중대백로, 민물가마우지 등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 숨 쉰다.



2



+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2015년 10월에 개관한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술박물관이다. 술을 담아 옮기던 용기인 술춘, 일제강점기 주세검정용 술독 등 술 관련 유물만 무려 5만 5000여 점이 모여 있다. 주류 지면 광고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관과 음팡집, 뽕헛호프 등 시대별 술 문화를 재현한 체험관도 흥미를 더한다. 단체 방문객도 수용 가능한 넓은 주차장을 갖추어 자동차 여행객이라면 이곳에 주차한 뒤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걸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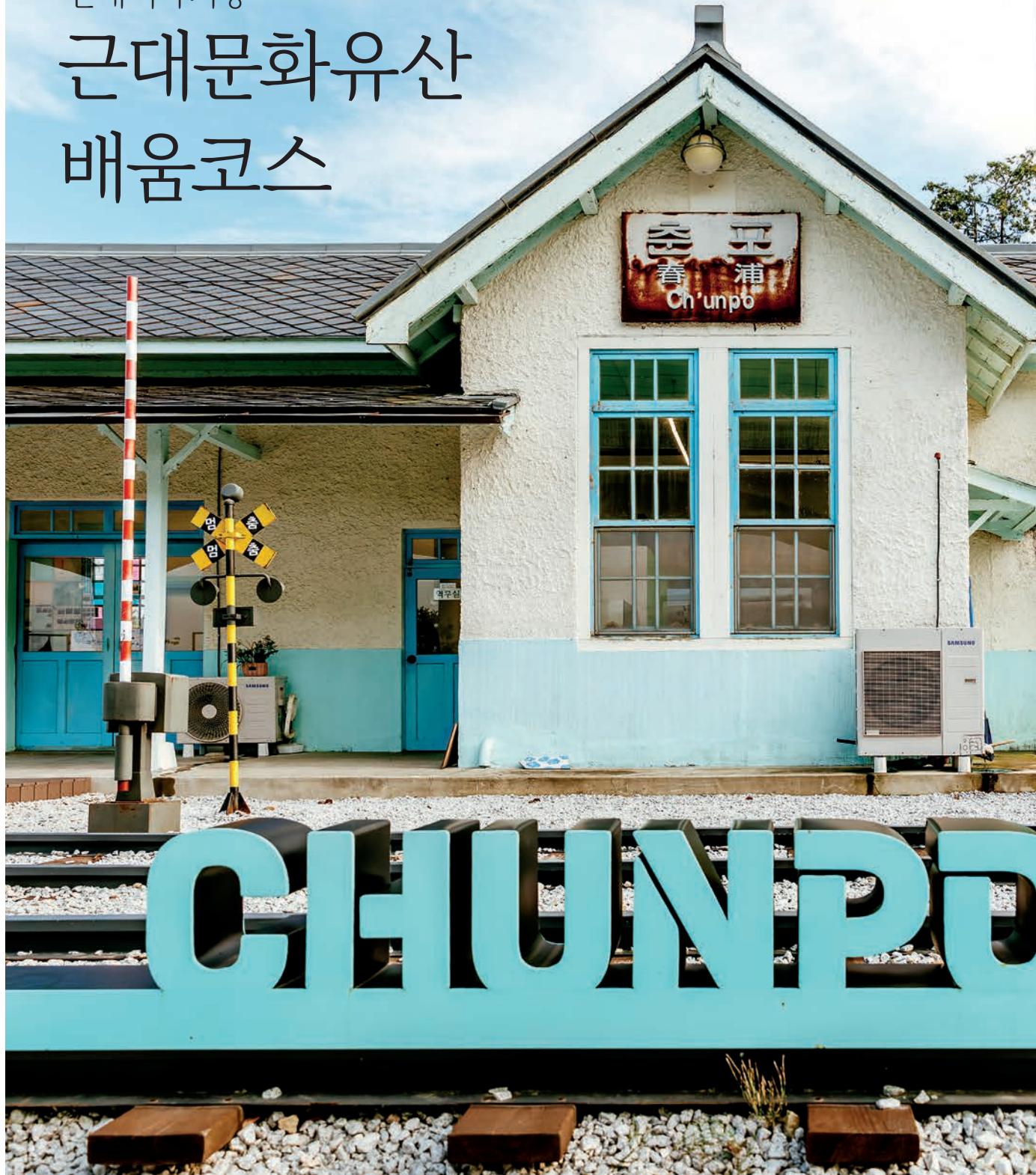
주소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문의 063-290-3842



QR코드에 접속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입장권 무료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역사가 깃든 공간에는 겹겹이 쌓인 시간만큼 사연도 많다.
익산과 완주의 근대유산을 탐방하며 공간이 품은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근대역사기행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문화 입은 역사 공간 익산근대역사관· 소리문화금고·춘포역

익산 중앙동에서 가난한 조선인을 치료하던 구 삼산의원이 이리·익산 근대사를 조명하는 익산근대역사관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각종 전시물과 영상물은 해방 이후 지역의 변천사를 보여 주고, 유리창 원형과 내부 벽체는 당시 건축재료와 구조를 짐작케 한다.

과거 소리로 불리던 인화동에는 민트색 외관이 인상적인 소리문화금고가 자리한다. 구 익산 금융조합 건물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 100년이 넘는 금융 역사를 품은 이곳에서는 영상물을 통해 옛 익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만의 지폐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금융 지식과 역사도 즐겁게 배울 수 있다.

익산 대표 국창지대인 춘포면에는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간이역인 춘포역이 있다. 일제강점기 이곳에 정착한 일본인은 인근에서 생산된 쌀을 군산항으로 운송하는 데 춘포역(구 대장역)을 이용했다. 2011년 폐역이 되었지만, 이곳에서 재생되는 옛 춘포의 풍경을 담은 영상과 새마을호·비둘기호·통일호 열차 소리가 그 시절 춘포역을 이용하던 이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1 옛 춘포의 풍경을 담은 영상은 그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2, 3 레트로한 색상의 외관이 눈길을 끄는 익산근대역사관에서 이리·익산의 근대사를 각종 전시물과 영상물로 생생하게 만난다. 4 100년의 금융 역사가 깃든 소리문화금고는 나무를 삼각형 형태로 기대어 지은 근대건축 기법과 당시 금융기관의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다.



1, 2 보물 같은 헌책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한 북 하우스에서 1980년대 라디오 방송 인기 DJ 김광환을 기리는 특별전이 열린다. 3 구 만경강철교와 신철교가 한눈에 보이는 비비정에선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다. 구 만경강철교 위엔 갤러리 카페 비비정예술열차가 들어섰다. 4, 5 삼례문화예술촌 곳곳에 자리한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볼거리를 더한다.



주소 전북 안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삼례문화예술촌), 삼례역로 68(삼례책마을), 후정리 139-1(비비정예술열차) 문의 063-290-3863(삼례문화예술촌), 063-291-7820(삼례책마을), 063-211-7788(비비정예술열차)

과거와 현대의 공존

삼례문화예술촌·삼례책마을·비비정

일제강점기 양곡 수탈의 중심지였던 옛 삼례양곡창고가 2013년 복합 문화 공간 삼례문화예술촌으로 재탄생했다. 네 개의 전시관과 공연장, 야외 마당,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 이곳은 건물 외벽과 지붕 뼈대, 상부 환기 시설 등 옛 양곡 창고 구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야외에 놓인 맹꽁이, 로봇 등의 조각품은 역사적인 건물과 어우러져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또 다른 양곡 창고는 2016년 삼례책마을로 탈바꿈했다. 삼례책마을은 고서와 문학, 수집에 관심이 많다면 놓치면 안 될 보물 같은 여행지다. 헌책방과 북 카페로 구성된 '북 하우스'와 한국학 관련 고서를 소장한 '한국학아카이브', 전시와 강연이 열리는 '북 갤러리' 등 세 동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현재 북 하우스에서는 <전설의 DJ 김광환 팝송전>이 열리고 있다. <월간팝송> 모음집, 인터뷰 녹음 테이프 등 김광환의 유품 2만여 점을 전시해 라디오를 즐겨 들던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 여행이 될 것이다. 해가 저물 무렵 여행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비비정으로 몰려든다. 비비정에 서면 구 만경강철교와 신철교가 한눈에 펼쳐져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오묘한 풍경을 이룬다. 현재 구 만경강철교 위엔 새마을호 폐열차를 리모델링해 만든 갤러리 카페 '비비정 예술열차'가 자리한다. 해질녘 만경강 위로 갈대가 일렁이는 모습은 삼례 여행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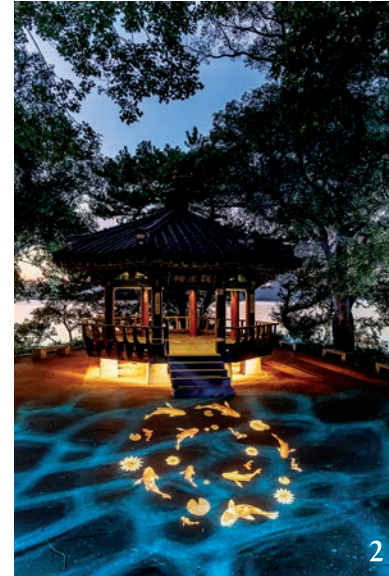


비단처럼 아름다운 금강변을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이 계절의 정취를 느껴 본다.

금강따라자전거여행 비단가람온길



1, 2 어둠이 내려앉은 웅포관광지곰개나루터에
오색빛깔 불이 켜지고 낮과는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3 금강 전망이 한눈에 담기는
웅포관광지곰개나루터는 해가 지면 더욱
아름다운 빛깔로 물든다.



가을 낙조의 정석

성당포구마을 · 웅포관광지곰개나루터

수려한 금강을 품은 성당포구마을은 바람개비 마을로 유명하다. 자전거를 타고 강
둑을 따라 길게 늘어선 알록달록한 바람개비 길을 달리며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흰하트인 눈발과 드높은 하늘이 완성한 그림 같
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간다. 자전거 바퀴가 낙엽을 밟으며 내는 바스락 소리
와 오색 빛깔 바람개비가 휘휘 도는 모습은 경쾌함을 더한다.

성당포구마을에서 금강 변을 따라 내달리면 낙조 명소인 웅포관광지곰개나루터에
다다른다. 금강 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덕양정에 오르자 금강 전망이 두 눈 가득
밀려든다. 부드러운 능선 위로 무지갯빛 향연이 펼쳐지고 물 위에 둥둥 뜬 오리 배는
고요한 파문을 일으킨다. 어둠이 내려앉자 좀 전과는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 그려진
다. 버들을 닮은 조명이 여행자의 발길을 밝히고, 바닥에서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물
고기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이 계절, 오래 머물고 싶은 풍경이다.



주소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62(성당포구마을) 웅포면 강변로 25(웅포관광지 캠핑장)
문의 063-862-3918(성당포구마을), 063-862-1578(웅포관광지 캠핑장)

가을바람따라

전북견기여행

성지혜움길 / 전주·익산·완주

시나브로치유길 / 완주·진안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 익산·완주

비단가람온길 / 익산

EDITOR 신승희 · PHOTOGRAPHER 김은주

제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황등 비빔밥의 산역사 진미식당

비빔밥으로 유명한 세 지역은 전주, 진주 그리고 익산의 황등이다. 이 중 황등의 비빔밥은 사골국에 밥을 한 그릇씩 토렴해 양념에 비빈 후 고명을 올려 맑은 선짓국과 함께 내는 것이 특징이다. 1931년 황등 장터에서 장사를 시작한 진미식당은 1대 조여아대표, 2대 원금애대표, 3대 이종식대표까지 90여년간 손맛을 잇고 있다. 원래 있던 식당 옆으로 건물을 확장하며 나란히 걸린 두 간판은 유구한 역사를 보여 준다. 오랜 세월 단골손님의 발길을 이끈 메뉴는 ‘토렴 육회 비빔밥’이다. 채 썬 당근과 무, 고사리, 양배추, 상추, 김 가루를 빙 두른 뒤 중양에 육회, 도토리묵, 달걀 지단을 차례로 얹은 비빔밥은 색의 조화부터 남다르다. 살살 섞어 한 입 맛보면 육수가 배어든 촉촉한 밥알이 나물과 부드럽게 어우러진다. 연근 샐러드, 백김치, 아삭이 고추 된장무침 등 정갈한 밑반찬도 입맛을 돋운다. 진미식당의 숨은 별미, 은은한 단맛의 날씬이 고구마 순대도 지나치기 아깝다. 주소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58 문의 063-856-4422



QR코드에 접속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익산 진미식당 음료 제공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전북 미식 기행

오랜 역사와 차별화된 맛으로 명성을 얻은
전북의 백년가게를 찾았다. 정성스런 한 상을 받으니
마음이 절로 넉넉해진다.

차향 그윽한 한옥 교동다원

전주가 한옥 마을로 유명해지기 이전인 1999년, 교동 한복판에 100년 넘은 한옥을 찻집으로 개조한 교동다원이 문을 열었다. 본채와 행랑채, 작은 정원으로 이루어진 정겨운 공간. 아버지 황기정 대표에 이어 현재는 그의 아들 황헌 대표가 이곳을 운영한다. 찻잎을 직접 제다해 최소 10년 이상 숙성시킨 황차가 대표 메뉴. 오래 숙성한 덕분에 찻잎 특유의 씹쓸한 맛 대신 단호박 같은 구수한 향미가 입안을 부드럽게 감싼다. 난꽃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기문 홍차 밀크티도 인기다. 차의 맛과 향을 한층 풍부하게 하는 수제 다식을 함께 즐기는 것도 잊지 말 것. 고소한 흑임자와 달달한 단호박으로 만든 수제 양갱과 향긋한 쑥을 가미한 쑥 구름 설기는 모든 차와 잘 어울린다. 가을에는 달콤한 밤으로 만든 수제 양갱도 한정 판매한다. 한옥 마루에 걸터앉아 정갈하게 차려 낸 다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여유를 만끽해 본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65-5 문의 063-282-7133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연애남매



하트시그널

남의 연애가 더 재밌다

연애보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는 게 더 낫다?
최근 몇 년간 쏟아져 나온 연애 리얼리티에 대한
대중의 과몰입을 보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온다.
무엇이 이런 현상을 불러온 걸까.



나는 SOLO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사랑의 스튜디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전성시대

<나는 솔로> <하트시그널> <환승연애> <솔로지옥>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신들린 연애>... 지금 한국은 연애 리얼리티 전성시대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로맨틱한 분위기의 연애를 담은 <하트시그널>, 보다 현실적인 연애의 정경을 담은 <나는 솔로>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연애 리얼리티는 물론이고, 헤어진 연인들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환승연애>나 천국도와 지옥도를 오가며 서바이벌에 가까운 연애의 아찔함을 담은 <솔로지옥>, 연애에 남매라는 가족의 시선을 더한 <연애남매> 같은 변주된 프로그램도 있다.

너무 많아진 연애 리얼리티들이 차별점을 찾기 위해 독특한 출연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스토리를 그려 나가는 경향도 생겼다. 모태솔로들이 참여해 모든 게 낯설고 처음이라 서툴러서 생겨나는 새로운 연애 스토리를 담은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나 무숙인, 점술가 같은 운명을 점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을 한데 모아 운명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독특한 연애를 보여주는 <신들린 연애>가 그렇다. 또 최근에는 나영석 PD와 김태호 PD가 함께 코멘터리로 참여해 각 회사 후배 PD들의 미팅을 들여다보는 <사육미팅>이라는 유튜브 콘텐츠도 등장했다.

본래 연애는 '먹히는' 예능 소재였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방영된 <사랑의 스튜디오>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박한 구성임에도 큰 인기를 끌었고, 2000년대 들어 리얼리티 시대가 시작되면서 <산장미팅-장미의 전쟁>이나 <천생연분> 같은 연예인들의 이른바 '짜짓기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이어 가기도 했다.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연예인들의 가상 부부 연애 리얼리티도 등장했고, 드디어 2011년에 <짝>이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시대를 열었다. 연애는 늘 소위 '장사가 되는' 소재였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은 타인의 사생활을 바라보는 대중의 감수성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SNS가 일상화되어 사생활 공개와 관찰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연애 리얼리티는 본격적인 전성시대를 맞았다.

연애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연애 리얼리티 전성시대는 연애라는 보편적인 관심사를 건드리는 소재와 더불어 사생활 공개에 대한 감수성 변화가 더해진 결과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작용했다. 대중의 연애에 대한 관점 변화가 그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결혼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뚝 떨어졌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다.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 나아가 출산과 육아는 모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취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에게 결혼

후 이어지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는 사회에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연애조차 꺼려지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또한 실제 연애 상황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감도 영향을 미친다. 오프라인 만남보다 온라인에 더 익숙한 세대는 직접 겪는 연애에서의 거절이나 이별에 대한 상처, 교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면이 있다. 실제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를 보면 연애 경험이 없어서 이성 앞에만 서면 뚝뚝거리는 이들은 물론이고,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로 불편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결국 한국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실제 연애를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대리 충족을 안겨 주며 전성기를 맞았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과몰입과 현실 사이

최근 연애 리얼리티에 대한 대중의 과몰입은 SNS 개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리액션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보며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시청자들의 리액션 영상 중에는 무려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도 여럿 있다. 그만큼 연애는 누구나 한마디씩 엿을 수 있는 보편적 소재이기도 하지만, '남의 연애'를 향한 적극적인 리액션은 이들이 얼마나 과몰입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으로서의 연애 리얼리티는 형식 자체가 현실 연애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애 리얼리티는 대부분 남녀 출연자들을 일정 기간 특정 공간에 함께 지내게 하면서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감정적 변화를 들여다본다. 시간과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들 간에 나타나는 감정 변화가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처음에 마음이 간 이성이 있었지만, 하루이틀 만에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일이 쉽게 벌어진다. 현실에서라면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들이 한 공간에서 여러 이성이 '경쟁적으로' 부딪치다 보니 짧은 기간에 생겨나는 것이다. 즉 연애 리얼리티의 제한적 시공간은 현실 연애와는 다른 감정이 생기게도 만든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일반인들도 영향을 받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 역시 현실 연애와는 다른 '방송용 연애'의 부작용 중 하나다. 이런 부분을 오인했다가는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연애 관계를 곡해할 수도 있다.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라는 말처럼 "연애를 연애 리얼리티로 배웠어요"라는 이야기거나 나올 수 있다. 현실 연애와 연애 리얼리티는 그렇게 다르다.

실제 연애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현실에서 연애 리얼리티를 통해 대리 만족하고 즐거움에 빠지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연애와는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당한 거리감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남의 연애가 제일 재밌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실제 연애의 효용만큼 클 수는 없다.

TOURISM



캐나다관광청
‘Taste of Canada’ 프로모션

캐나다관광청과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이하 풀만 호텔)이 협업해 10월 31일까지 미식 프로모션 ‘테이스트 오브 캐나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풀만 호텔의 ‘더 킹스’ 1955 그로서리아 ‘더 라운지 앤 바’ 세 곳에서 캐나다 각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통해 한국 미식가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신종철 총괄 셰프가 배우 김강우와 캐나다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방문해 캐나다의 식문화를 체험한 뒤 이를 풀만 호텔 스타일로 재해석한 여러 메뉴를 선보인다.

홈페이지 travel.destinationcanada.com/ko-kr



마카오정부관광청
제33회마카오국제불꽃놀이대회

올해로 33회를 맞는 마카오 국제 불꽃놀이 대회가 10월 6일까지 마카오 타워 해안가에서 열린다. 1989년에 시작한 이 대회는 매년 가을 전 세계 불꽃 연출 팀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글로벌 축제다. 중국 국경절(10월 1일)과 중추절(10월 6일)을 포함해 총 5회 개최한다. 한국은 지난 9월 13일 화랑아트피로테크닉스(Hwarang Art Pyrotechnics)가 참가해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였다. 이 외에도 일본, 포르투갈, 브라질, 영국 등 5개국이 새롭게 참가해 관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홈페이지 www.macaotourism.gov.mo/ko/



사이판, 그린 위로 펼쳐지는
최적의 골프 라운드

마리아나제도의 이상적인 골프 시즌이다가온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건기는 푸른 하늘과 청량한 바람, 평균기온 27~29도의 온화한 기후가 특징으로, 이는 골프 라운드와 관광에 완벽한 조건이다. 사이판을 대표하는 골프 코스 ‘라오라오베이 골프 리조트’와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은 최적의 골프 시즌을 맞아 준비에 나섰다. 라오라오베이 골프 리조트는 사이판 최대 규모의 36홀 챔피언십 코스를,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은 사이판 유일의 LPGA 규격 18홀 코스로, 해안 9홀과 내륙 9홀을 갖췄다.

홈페이지 mymarianas.co.kr

〈돌봄의 역설〉

소아 치과 전문의이자 의료 윤리학자인 김준혁이 한국 사회가 처한 ‘돌봄의 실재’를 직시하며 양육, 교육, 의료, 요양 네 분야에 걸쳐 좋은 돌봄을 제시한다. ‘모든 생은 돌봄에서 출발해 돌봄으로 맺어진다’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준다. 인문학 서적과 논문 등에서 길어 올린 풍부한 예시, 그리고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과 성찰이 의미심장하다. 김준혁 지음 은행나무 펴냄

〈방학여행 베트남〉

엄마와 두 아이, 할머니가 함께 떠난 17일간의 베트남 여행기. 엄마는 생애 다시 없을 여행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위해 수도 하노이를 거쳐 다낭, 호이안, 호찌민을 여행하는 순간을 사진과 글로 기록했다. 3대가 베트남 여행을 하며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는 물론, 각 도시에 대한 정보와 여행 비용, 숙소에 대한 팁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겼다. Summer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VIDEO

〈굿뉴스〉

1970년대 일본 공산주의 단체에 의해 여객기가 납치됐다. 암암리에 국가 사건을 해결하는 아무개는 중앙정보부장 박상현으로부터 여객기 착륙 작전을 지시받는다. 영화 속 인물들은 어떻게든 여객기를 착륙시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한다. 폭넓은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 변성현 감독의 독특한 연출과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관람객의 기대감을 높인다. 10월 17일 공개.

감독 변성현 출연 설경구, 홍경 제공 넷플릭스

〈세계의 주인〉

18세 여고생 주인이 환깁에 질러 버린 한마디에 모두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10대들의 관계와 성장을 세밀하게 다룬 영화 <우리들> <우리집>을 연출한 윤가은 감독의 이번 신작은 성장통을 겪으며 주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의 여정을 깊이 있게 그려 낸다. 제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인 ‘플랫폼’에 한국 영화 최초로 공식 초청됐다. 10월 22일 개봉.

감독 윤가은 출연 서수빈, 장혜진

〈동그라미〉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일자리마저 잃어버린 사와다. 우연히 그린 동그라미 그림 하나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진다. 그러나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사와다는 점차 동그라미에 잠식되어 간다. <카모메 식당> <안경> 등 따뜻한 시선과 유머가 두드러지는 오기가미나오코 감독의 감성을 이번 영화에서도 느낄 수 있다. 10월 1일 개봉. 감독 오기가미나오코 출연 도모토 쓰요시, 아야노 고

〈미러 넘버 3〉

교통사고로 남자 친구를 잃은 라우라를 중년 여성 베티가 구조해 돌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심리 드라마. 작품은 재난과 상실 이후 겪는 삶의 균열과 회복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다. 제목은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모음곡 ‘거울’의 세 번째 곡 ‘바다 위의 조각배’를 차용했다. 영화 곳곳에 흐르는 이 곡은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10월 1일 개봉.

감독 크리스티안 페솔트 출연 파올라 베어, 바르바라 아우어

〈나쁜 계집애: 달려라 하니〉

세대를 넘어 사랑받아 온 국민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가 40주년을 맞아 스크린에 데뷔한다. 이번 극장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인공이 나에리라는 것. 영화 배경은 원작에서 3년이 지난 시점으로, 하니와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나에리가 고등학생이 되어 만난다. 둘은 서울 도심을 달리는 ‘스트리트 러닝’ 경기에 참여해 다시 한번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10월 7일 개봉.

감독 허정수 목소리 출연 강시현, 정혜원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9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황금 들과 열차' © 정백호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상태기반 유지보수(CBM)로 차량 안정성 확보



한국철도공사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태기반 유지보수(CBM)'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하는 고속열차(EMU-260)의 주 변압기, 차축 베어링 등 주요 장치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탑재할 예정이다. 열차 운행 중 차축 발열 상태, 부품 이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 데이터를 수집해 부품이 고장 나기 전 미리 정비할 수 있다.

'2025 여행 가는 가을' 기차 여행 할인 상품 판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여행 가는 가을' 프로모션에 맞춰 한국철도공사가 11월까지 기차 여행 할인 상품을 판매한다. 전국 명소를 잇는 5개 노선 관광 열차 운임을 50퍼센트 할인하고, 철도 자유여행 패스 '내일로'는 권중에 상관없이 1만 원 할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korail.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역 사랑 철도 여행' 인구 감소 지역과 추가 협약



지난 8월 14일 한국철도공사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대상 지역은 대구 군위, 충남 예산, 전남 구례, 경북 의성 등 9곳으로, 열차 할인을 지원하는 지역이 42곳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개통하는 목포보성선이 지나는 전남 강진·장흥·해남이 포함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 교통망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공사 하반기 신규 채용 공공기관 최대 규모



하반기에도 한국철도공사 신규 채용이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된 다. 이번 채용부터는 열차 승무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열차 승무' 분야를 신설했다. 신입 사원과 전문·경력직 총 1200명을 선발하며, 합격자는 10월 28일에 발표한다. 합격 후 2주 이상 채용형 인턴 과정을 수행하고 별도 평가를 통해 최종 정규직으로 임용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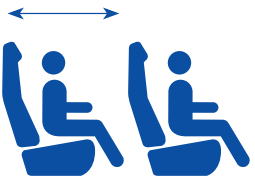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

신문

Newspaper



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자판기는 KTX 5·9·11·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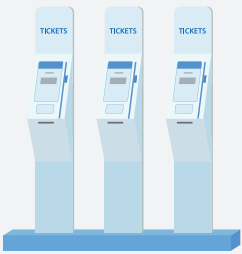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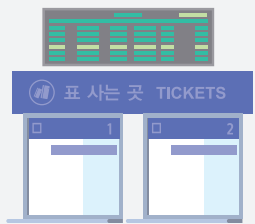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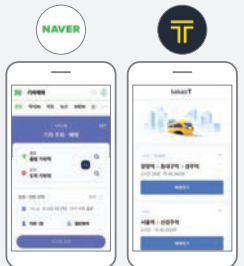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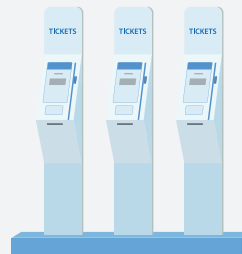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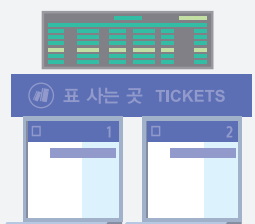
KORAIL Website(www.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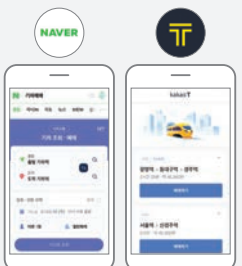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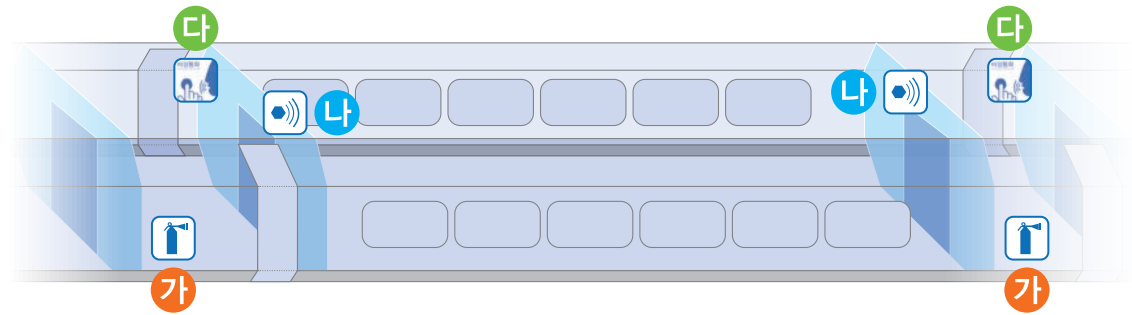
구분	1개월~ 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 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60분 경과 후~ 도착 시각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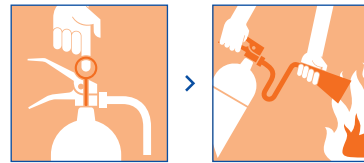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40%	70%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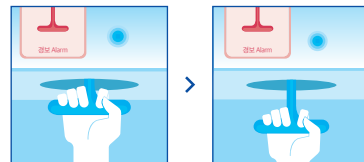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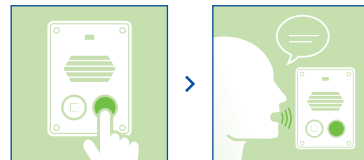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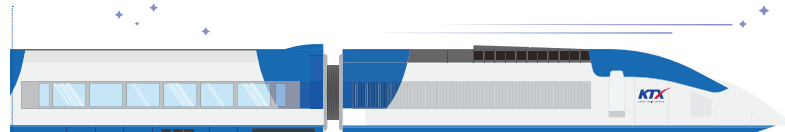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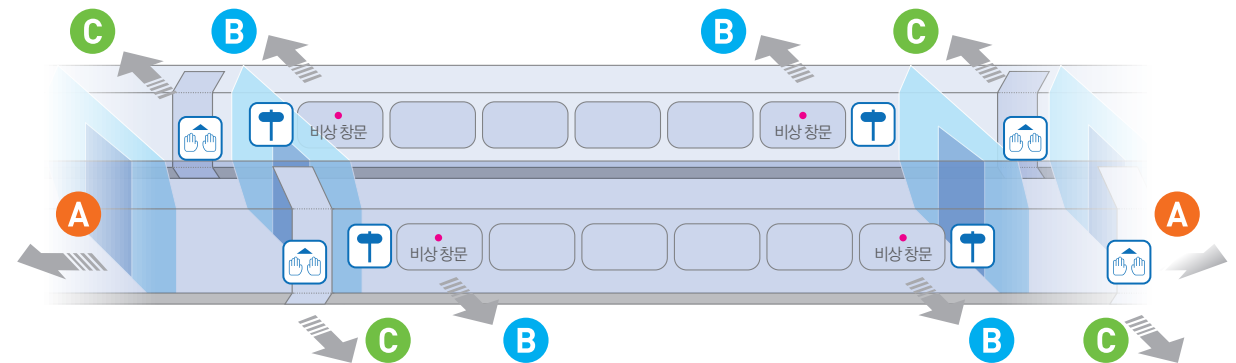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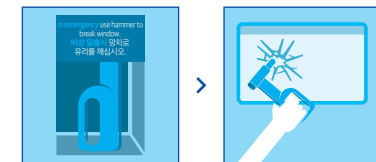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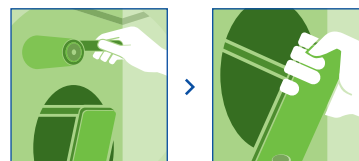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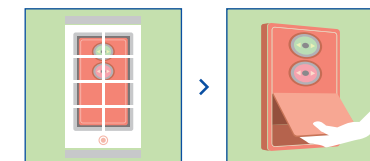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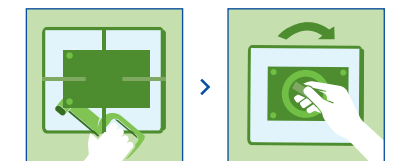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다린과 떠나는 음악 여행

각자의 표정으로 가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싱어송라이터 다린이 짧은
편지를 보냈다. 기차가
달리고, 다정한 음악가의
노랫말이 쏟아지는 시간
속으로 달린다.



음악 듣기



비밀 편지 같은 다린의 플레이리스트

1 가을노래 곽진언

어딘가로 떠나고 있을 여러분께 ‘잘 지내시나요?’ 묻고 싶어 골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것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잠시 창밖 풍경을 바라봐요.

4 꿈에 이설아

이동 시간이 긴 날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기 위해 들어요.
눈을 감으면 넓고 푸른 바다 앞에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고, 기타 선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해요.

[illegible]

언젠가 공원에 앉아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저마다 흔들리는 마음도 멀리서 보면 멋진 춤 같을지도 몰라요!

5 꿈의 가로수길 김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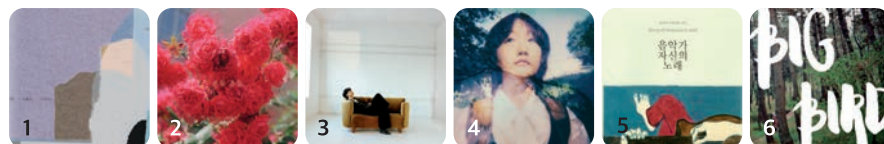
기차를 타고 낯선 마을을 지나칠 때, 종종 그곳에 내려
무작정 걷는 제 모습을 상상해요. 노래 속 가루소길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같은 장면이 떠올라요.

3 우리라는 건 소수빈

긴산책을하거나집으로돌아가는길,오롯이혼자있는
순간에만듣는곡입니다.노래가끝날무렵,쓸쓸함이지닌
온기에대해꼭써보곤해요.그순간이참좋아요.

6 큰새 다린

여러분의 도착지는 어디인가요?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누구든 부디 마음껏 꿈꾸고 훨훨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할 거예요.



③ 다시 보기



